

부산시 문화정책에 대한 인식도 및 만족도 조사

2017. 06

(주)도시와공간연구소

제 출 문

부산광역시의회 귀하

본 보고서를 (주)도시와공간연구소에서 수행한
『부산시 문화정책에 대한 인식도 및 만족도 조사』의
조사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7년 06월

(주)도시와공간연구소
소장 강 기 철

목 차

제1편 조사결과 요약	1
1. 문화도시 기반 조성 정책에 대한 인식도 및 만족도	1
2. 시민 생활문화 확산 정책에 대한 인식도 및 만족도	2
3. 예술창작 환경 조성 정책에 대한 인식도 및 만족도	3
 제2편 설문조사 개요	 5
I. 설문조사 개요	7
1. 조사목적	7
2. 조사설계 및 방법	7
3. 조사기간 및 일정	8
4. 설문조사대상	9
5. 자료처리 및 분석 방법	10
 제3편 설문조사 결과 분석	 11
I. 전문가 및 종사자	13
1. 문화도시 기반 조성 정책에 대한 인식도 및 만족도	13
2. 시민 생활문화 확산 정책에 대한 인식도 및 만족도	19
3. 예술창작 환경 조성 정책에 대한 인식도 및 만족도	23
 II. 공무원	 36
1. 문화도시 기반 조성 정책에 대한 인식도 및 만족도	36
2. 시민 생활문화 확산 정책에 대한 인식도 및 만족도	42
3. 예술창작 환경 조성 정책에 대한 인식도 및 만족도	46

Ⅲ. 시민	59
1. 관심분야	59
2. 문화도시 기반 조성 정책에 대한 인식도 및 만족도	62
3. 시민 생활문화 확산 정책에 대한 인식도 및 만족도	68
4. 예술창작 환경 조성 정책에 대한 인식도 및 만족도	72
Ⅳ. 종합 비교 분석	81
1. 문화도시 기반 조성 정책에 대한 인식도 및 만족도	81
2. 시민 생활문화 확산 정책에 대한 인식도 및 만족도	94
3. 예술창작 환경 조성 정책에 대한 인식도 및 만족도	100
V. 설문조사결과 요약 및 함의	111
부록	115
부록① 설문지(관계자)	117
부록② 설문지(시민)	123

제 1 편

조사결과 요약 및 제언

1. 문화도시 기반 조성 정책에 대한 인식도 및 만족도

-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오페라하우스 건립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응답으로 '타당하다'가 38.7%, '보통이다'가 32.8%, '매우 타당하다' 14.5%, '타당하지 않다' 10.7%, '전혀 타당하지 않다' 3.3%의 순으로 나타남
 - ➔ 공무원이 오페라하우스 건립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
 - 전문가 및 종사자 : ① 보통이다(34.5%), ② 타당하다(33.5%), ③ 매우 타당하다(13.5%) 순
 - 공무원 : ① 타당하다(43.5%), ② 보통이다(26.5%), ③ 매우 타당하다(22.5%) 순
 - 시 민 : ① 보통이다(41.0%), ② 타당하다(36.0%), ③ 타당하지 않다(13.5%) 순
- 오페라하우스가 부산의 랜드마크로서 문화관광 거점시설이 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응답으로, '그렇다'가 42.7%, '보통이다' 22.5% 등의 순이며, 참관 의향에 대한 응답도 '있다'가 47.5% '매우 있다' 22.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오페라하우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응답으로, '전문기획, 연출가'가 44.8%, '예산' 29.7%, '전속 오페라단' 11.5%, '전문 스탭진' 9.7%, '기타' 4.3%의 순으로 나타남
 - 전문가 및 종사자 : ① 전문기획, 연출가(38.5%), ② 예산(26.5%), ③ 전문 스탭진(14.5%) 순
 - 공무원 : ① 전문기획, 연출가(58.0%), ② 예산(23.5%), ③ 전속 오페라단(10.5%) 순
 - 시 민 : ① 예산(39.5%), ② 전문기획, 연출가(39.5%), ③ 전속 오페라단(11.0%) 순
-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부산국제아트센터 건립 사업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응답으로, '타당하다'가 40.5%, '보통이다' 35.8%, '매우 타당하다' 13.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공무원이 부산국제아트센터 건립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
 - 전문가 및 종사자 : ① 타당하다(37.5%), ② 보통이다(34.5%), ③ 매우 타당하다(13.5%) 순
 - 공무원 : ① 타당하다(43.5%), ② 보통이다(32.5%), ③ 매우 타당하다(20.5%) 순
 - 시 민 : ① 보통이다(42.0%), ② 타당하다(39.5%), ③ 타당하지 않다(9.5%) 순

- 국제아트센터의 중요 기능은 '음악공연' 35.2%, '문화축제' 34.2%, '미술전시' 15.0%, '문화강좌' 9.7%, '기타' 3.5%, '영화상영' 2.5%의 순으로 나타남
 - '음악공연'과 '문화축제'에 대한 관심이 높으나, 그에 맞는 시설은 부족하다는 것으로 판단됨
- 클래식 전용홀의 필요성은 '필요하다'가 43.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보통이다' 25.3%, '매우 필요하다' 17.5%, '필요하지 않다' 12.2%, '전혀 필요하지 않다' 2.0%의 순으로 나타남
- 클래식 전용 콘서트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전문기획, 연출가'가 44.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예산' 25.0%, '전속 오케스트라' 17.5%, '전문 스텝진' 9.7%, '기타' 3.7%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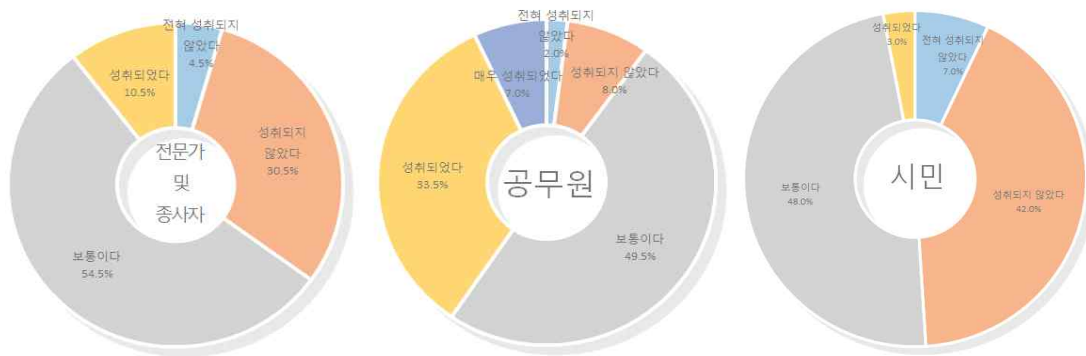
2. 시민 생활문화 확산 정책에 대한 인식도 및 만족도

- '문화가 있는 날' 현장에 참여 여부에서는 '없다'라는 응답이 258명, 43.0%, '있다'가 342명, 57.0%로 참여도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및 종사자의 참여가 72.5%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공무원은 65.5%가 참여하였으나, 시민은 32.5%만이 참여
 -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홍보 등 필요
- '문화가 있는 날' 현장에 참여한 곳은 어디인가에 대한 전체응답(369명, 중복응답 포함) 중에서 '공연장'이 42.0%로 가장 많았고, '영화관' 36.0%, '미술관' 8.7%, '기타' 7.0%, '박물관' 5.4%, '도서관' 0.8%의 순으로 나타남
 - 전문가 및 종사자와 공무원은 '공연장'이 가장 높았으나, 시민들은 주변에 쉽게 접할 수 있는 '영화관'이 가장 참여를 많이 하는 장소로 나타남
 - 전문가 및 종사자 : ① 공연장(46.6%), ② 영화관(28.8%), ③ 미술관(12.3%) 순
 - 공무원 : ① 공연장(48.6%), ② 영화관(32.6%), ③ 기타(11.3%) 순
 - 시민 : ① 영화관(63.2%), ② 공연장(16.2%), ③ 미술관(11.8%) 순

-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한 전체응답(342명) 중 ‘된다’ 55.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보통이다’ 23.4%, ‘매우 된다’ 16.4%, ‘안된다’ 4.7%, ‘전혀 안된다’ 0.6%의 순으로 나타남
- ‘문화가 있는 날’이 지역문화·예술가에게 경제적 기여도에 대한 전체응답(342명) 중 ‘된다’가 37.4%로 가장 높았고, ‘보통이다’ 34.5%, ‘매우 된다’ 13.2%, ‘안된다’ 12.9%, ‘전혀 안된다’ 2.0%의 순으로 나타남
- ➔ 공무원은 ‘된다’와 ‘매우 된다’가 61.1%로 높게 나타났으나, 전문가 및 종사자는 43.5%, 시민은 44.6%로 공무원에 비해 낮게 나타남

3. 예술창작 환경 조성 정책에 대한 인식도 및 만족도

- 민선6기 부산시 ‘문화융성’ 비전의 성취도는 ‘보통이다’가 50.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성취되지 않았다’ 27.2%, ‘성취되었다’ 15.8%, ‘전혀 성취되지 않았다’ 4.5%, ‘매우 성취되었다’ 2.3%의 순으로 나타남
- ➔ 공무원은 ‘성취되었다’와 ‘매우 성취되었다’의 응답이 40.5%로 전문가 및 종사자의 10.5%, 시민 3.0%에 비해 높게 나타남



- 문화예술의 변화와 발전이 가장 크게 이루어진 분야는 어디라고 보는가에 대한 응답으로, ‘영화’가 43.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종합예술’ 14.2%, ‘기타’ 12.7%, ‘음악’ 9.3%, ‘미술’ 8.2%, ‘연극’ 5.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부산시가 영화의 도시로써 영화분야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영화와 관련된 시설이나 기관이 설립되고 운영되면서 ‘영화’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음

- 향후 지역 문화예술의 기반조성과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문화예술의 공연시설이나 교육시설 등이 확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 부산시 문화분야 공무원의 전문성은 ‘보통이다’가 51.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낮다’ 24.8%, ‘높다’ 14.5%, ‘매우 낮다’ 7.3%, ‘매우 높다’ 2.3%의 순으로 나타남
 - 부산시 문화분야에 대한 발전과 문화 및 예술가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며,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이나 전문가 영입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
- 부산시 문화시설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견으로 ‘예산확충’이 40.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프로그램 개발’ 27.8%, ‘인력양성’ 13.2%, ‘홍보’ 10.2%, ‘행정지원’ 6.8%, ‘기타’ 2.0%의 순으로 나타남
 - 시민은 홍보에 대한 의견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어 문화시설에 대한 정보 획득 기회 필요
- 부산시의 미래 문화비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은 ‘운영 효율화’가 24.8%로 가장 높고, ‘인력양성’ 23.8%, ‘중장기 계획 설정’ 21.5%, ‘국비확보’ 11.3%, ‘시설투자’ 11.2%, ‘행정지원’ 5.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부산시 문화예술정책을 연구·개발하는 기관의 필요성은 ‘필요하다’가 52.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보통이다’ 18.8%, ‘매우 필요하다’ 16.5%, ‘필요 없다’ 10.5%, ‘전혀 필요 없다’ 1.7%의 순으로 나타남
 - 전문가 및 종사자에서 ‘매우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24.5%로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전문 기관에 대한 필요성을 가장 크게 느끼는 것으로 판단
- 문화예술정책 연구·개발 기관 주체로는 ‘부산문화재단’이 48.0%, ‘기관 신설’ 22.8%, ‘부산발전연구원’ 16.8%, ‘부산예총·민예총’ 8.0%, ‘기타’ 4.3%의 순으로 나타남

제 2 편

설문조사 개요

I. 설문조사 개요

1. 조사목적

- 부산시의 다양한 문화정책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비판이 적지 않으며, 실제 일반 시민들의 체감 정도 역시 낮은 실정으로 시민과 관련 분야 공무원, 전문가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 부산시 문화정책에 대한 다양한 계층의 인지도와 만족도를 구체적이고 실증적으로 조사함으로써 향후 정책방향 설정과 의정활동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조사설계 및 방법

1) 표본 설계

- 조사대상 : 부산시에 거주하는 문화예술분야 공무원, 전문가 및 종사자, 일반 시민
- 표본 크기 : 600명
 - 시 민 : 200명
 - 공 무 원 : 200명(문화정책 관련 분야 공무원)
 - 전문가 및 종사자 : 200명
- 표본추출방법 : 임의 표집

2) 자료수집 방법

- 자료수집도구 : 조사목적에 맞게 제작된 구조화된 설문지
- 조사방법 : 1:1 면접조사

[표 1] 부산시 문화정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의 대상 및 방법

조사모집단		부산시 거주 시민 및 공무원, 전문가 및 종사자 600명
조사지역		부산 전역
자료수집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1:1 면접조사
조사기간		2017년 05월 15일 ~ 05월 30일
조사기관	주관기관	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수행기관	(주)도시와공간연구소
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도시 기반조성 정책에 대한 인식도 및 만족도 - 시민 생활문화 확산 정책에 대한 인식도 및 만족도 - 예술창작 환경 조성 정책에 대한 인식도 및 만족도

3. 조사기간 및 일정

- 조사기간은 2017년 05월 15일부터 2017년 05월 30일까지 진행되었다.
- 본 설문조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이루어졌다.

[표 2] 부산시 문화정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 수행 체계도

단계	상세 내용
1단계 실사팀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슈퍼바이저 및 면접원 등 실사팀 구성 : 설문조사 경험 있는 전문 면접원 위주로 선발 - 면접원 교육 실시 : 조사취지 및 내용 체계적인 교육 실시 - 면접원별 조사대상 구역 배정
2단계 조사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실시 (실사)
3단계 자료 에디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수자료 전산처리를 위한 코드변환 작업 - 코딩 완료 설문에 대해 전산처리가 가능한 데이터 형식 입력

4. 설문조사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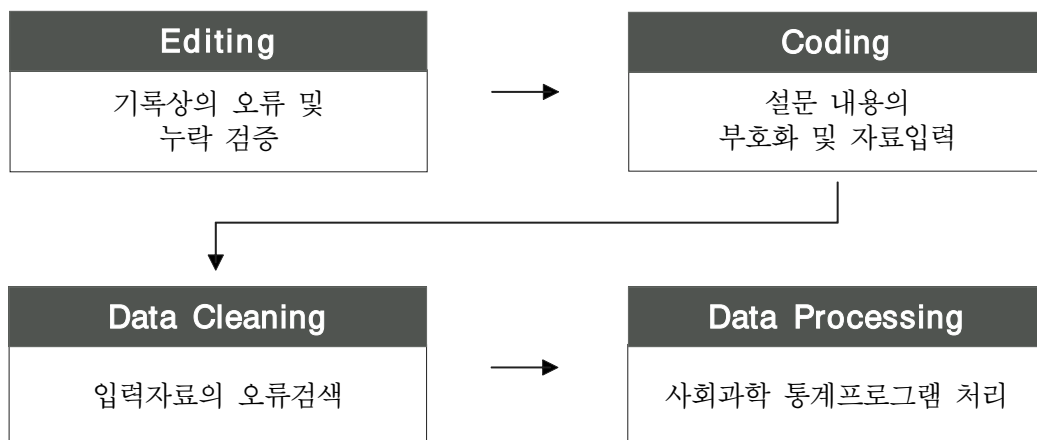
- 부산시에 거주하는 일반 시민과 관계자(문화정책 분야 공무원, 전문가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 수집된 자료(설문지)는 검증과 에디팅과정을 거쳐 오류의 보완 및 자료의 폐기가 이루어졌으며 최종적으로 유효한 설문지 600부를 본 분석에 활용하였다.

[표 3] 부산시 문화정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 응답자 특성

항목		빈도	비율(%)
그룹	전문가 및 종사자	200	33.3
	공무원	200	33.3
	일반시민	200	33.3
성별	남성	306	51.0
	여성	294	49.0
연령별	20대	94	15.7
	30대	162	27.0
	40대	181	30.2
	50대	118	19.7
	60대 이상	45	7.5
거주지	강서구	6	1.0
	금정구	38	6.3
	기장군	17	2.8
	남구	91	15.2
	동구	19	3.2
	동래구	67	11.2
	부산진구	60	10.0
	북구	27	4.5
	사상구	17	2.8
	사하구	11	1.8
	서구	25	4.2
	수영구	46	7.7
	연제구	37	6.2
	영도구	10	1.7
	중구	9	1.5
	해운대구	86	14.3
	결측	34	5.7
학력	초졸	1	0.2
	중졸	4	0.7
	고졸	91	15.2
	대졸	346	57.7
	대학원 이상	143	23.8
	결측	15	2.5
합계		600	100.0

5. 자료처리 및 분석 방법

- 수집된 자료는 Editing-Coding-Punching-Cleaning 과정으로 처리 및 검토하였다.
- 확인, 검증(Validation)을 거친 설문자료에 대해 SPSS 사회과학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한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분석을 실시하였다.
 - 빈도분석 : 응답자별 설문내용 빈도 및 분포표상의 개괄적인 특성 파악, 상대적 백분율, 응답누적빈도(비율) 등을 분석
- 크게 시민, 관계자 등 2개 계층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설문지를 설계하고, 관계자를 문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전문가 및 종사자로 하위 계층을 분류하여 조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료를 처리하고 분석하였다.



[그림 1] 자료의 확인 과정

제 3 편

설문조사 결과 분석

I. 전문가 및 종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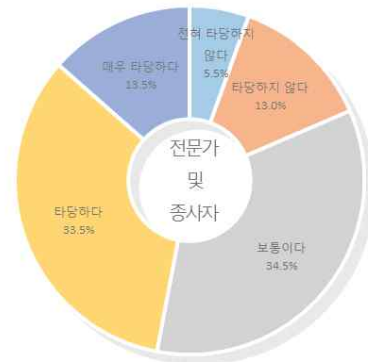
1. 문화도시 기반 조성 정책에 대한 인식도 및 만족도

1) 오페라하우스 건립 사업의 타당성 여부

-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오페라하우스 건립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응답으로, '보통이다'가 가장 많은 69명, 34.5%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타당하다'가 67명, 33.5%, '매우 타당하다'가 27명, 13.5%, '타당하지 않다'가 26명, 13.0%, '전혀 타당하지 않다'가 11명, 5.5%의 순으로 나타났다.
- '타당하다'와 '매우 타당하다'가 94명, 47.0%를 나타내고 있어 오페라하우스 건립 사업의 타당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오페라하우스 건립 사업의 타당성

구분	빈도	비율(%)
전혀 타당하지 않다	11	5.5
타당하지 않다	26	13.0
보통이다	69	34.5
타당하다	67	33.5
매우 타당하다	27	13.5
합계	2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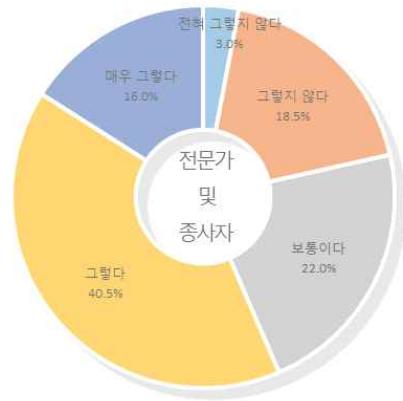


2) 오페라하우스가 부산의 랜드마크 문화관광 거점시설로서 활용 가능성

- 오페라하우스가 부산의 랜드마크로서 문화관광 거점시설이 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응답으로, '그렇다'가 81명, 40.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보통이다'가 44명, 22.0%, '그렇지 않다'가 37명, 18.5%, '매우 그렇다'가 32명, 16.0%, '전혀 그렇지 않다'가 6명, 3.0%의 순으로 나타났다.
-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가 113명, 56.5%를 나타내고 있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오페라하우스의 문화관광 거점시설 활용 가능성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6	3.0
그렇지 않다	37	18.5
보통이다	44	22.0
그렇다	81	40.5
매우 그렇다	32	16.0
합계	2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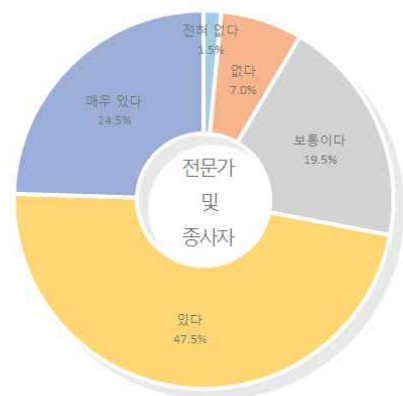


3) 오페라하우스 참관 의향

- 오페라하우스에서는 오페라·무용(발레)·뮤지컬 등이 무대에 상영될 예정으로, 이에 참관할 의향에 대한 응답으로, '있다'가 95명, 47.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매우 있다'가 49명, 24.5%, '보통이다'가 39명, 19.5%, '없다'가 14명, 7.0%, '전혀 없다'가 3명, 1.5%의 순으로 나타났다.
- '있다'와 '매우 있다'의 응답이 144명, 72.0%로 오페라하우스 건립시 참관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오페라하우스 참관 의향

구분	빈도	비율(%)
전혀 없다	3	1.5
없다	14	7.0
보통이다	39	19.5
있다	95	47.5
매우 있다	49	24.5
합계	2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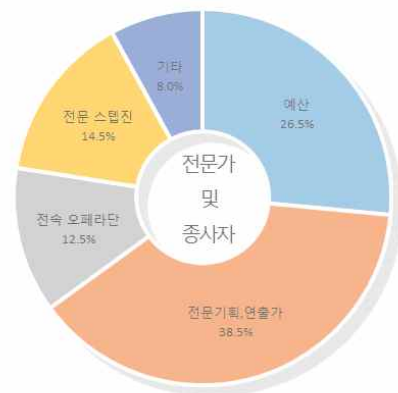


4) 오페라하우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 오페라하우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응답으로, '전문기획, 연출가'가 77명, 38.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예산'이 53명, 26.5%, '전문 스텝진'이 29명, 14.5%, '전속 오페라단'이 25명, 12.5%, '기타'가 16명, 8.0%의 순으로 나타났다.
- '기타' 의견으로는 모두 다 중요한 요소라는 응답이 있었으며, 시설이나 홍보, 화제성, 소비자의 수요 등의 의견이 있었다.
- '전문기획, 연출가'에 대한 응답이 높은 것은 오페라의 특성상 공연의 질적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기획이나 연출에 대한 중요도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7] 오페라하우스 효율적 운영 요소

구분	빈도	비율(%)
예산	53	26.5
전문기획,연출가	77	38.5
전속 오페라단	25	12.5
전문 스텝진	29	14.5
기타	16	8.0
합계	200	100.0



5) 부산국제아트센터 건립 타당성 여부

-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부산국제아트센터 건립 사업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응답으로, '타당하다'가 가장 많은 75명, 37.5%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보통이다'가 69명, 34.5%, '매우 타당하다'가 27명, 13.5%, '타당하지 않다'가 24명, 12.0%, '매우 타당하지 않다'가 5명, 2.5%의 순으로 나타났다.
- '타당하다'와 '매우 타당하다'가 102명, 51.0%를 나타내고 있어 부산국제아트센터 건립 타당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앞선 오페라하우스 건립 타당성의 긍정적 응답(47.0%)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오페라하우스 보다 부산국제아트센터의 건립을 더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부산국제아트센터 건립 타당성

구분	빈도	비율(%)
매우 타당하지 않다	5	2.5
타당하지 않다	24	12.0
보통이다	69	34.5
타당하다	75	37.5
매우 타당하다	27	13.5
합계	2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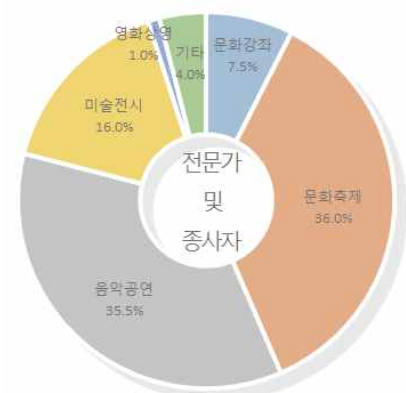


6) 국제아트센터의 가장 중요한 기능

- 국제아트센터의 기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문화축제’가 72명, 36.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음악공연’이 71명, 35.5%, ‘미술전시’가 32명, 16.0%, ‘문화강좌’가 15명, 7.5%, ‘기타’가 8명, 4.0%, ‘영화상영’이 2명, 1.0%의 순으로 나타났다.
- 전문가 및 종사자 계층에서는 국제아트센터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문화축제’와 ‘음악공연’을 중심으로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
- 반면, ‘영화상영’은 국제아트센터의 중요한 이에 대한 기능적 평가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부산국제아트센터의 중요 기능

구분	빈도	비율(%)
문화강좌	15	7.5
문화축제	72	36.0
음악공연	71	35.5
미술전시	32	16.0
영화상영	2	1.0
기타	8	4.0
합계	2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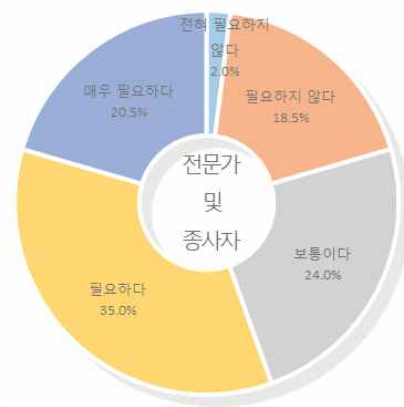


7) 클래식 전용홀 필요성

- 현재 부산에는 클래식 전용 콘서트홀이 없는 실정에서 클래식 전용홀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으로 '필요하다'가 70명, 35.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보통이다'가 48명, 24.0%, '매우 필요하다'가 41명, 20.5%, '필요하지 않다'가 37명, 18.5%, '전혀 필요하지 않다'가 4명, 2.0%의 순으로 나타났다.
- '필요하다'와 '매우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111명, 55.5%로 클래식 전용홀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오페라하우스와 국제아트센터의 건립 타당성에 비해서 클래식 전용홀의 필요성을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표 10] 클래식 전용홀의 필요성

구분	빈도	비율(%)
전혀 필요하지 않다	4	2.0
필요하지 않다	37	18.5
보통이다	48	24.0
필요하다	70	35.0
매우 필요하다	41	20.5
합계	2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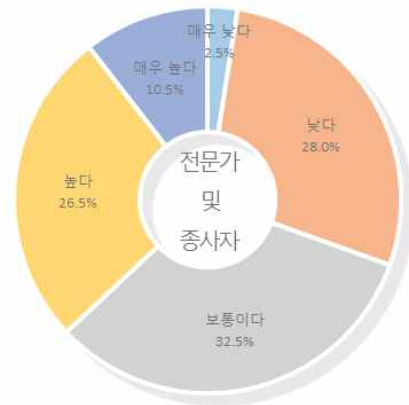


8) 클래식 전용 콘서트홀 활용도

- 클래식 전용 콘서트홀은 2,000석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전용 콘서트홀의 활용도에 대한 응답으로는 '보통이다'가 65명, 32.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낮다'가 56명, 28.0%, '높다'가 53명, 26.5%, '매우 높다'가 21명, 10.5%, '매우 낮다'가 5명, 2.5%의 순으로 나타났다.
- '높다'와 '매우 높다'가 74명, 37.0%로 '낮다'와 '매우 낮다'의 61명, 30.5%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활용성에 있어 다소 미흡할 것이라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 클래식 전용 콘서트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고 있으나 그 활용성에 대해서는 다소 부족하여 다양한 활용방안에 대한 방안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11] 클래식 전용 콘서트홀의 활용도

구분	빈도	비율(%)
매우 낮다	5	2.5
낮다	56	28.0
보통이다	65	32.5
높다	53	26.5
매우 높다	21	10.5
합계	2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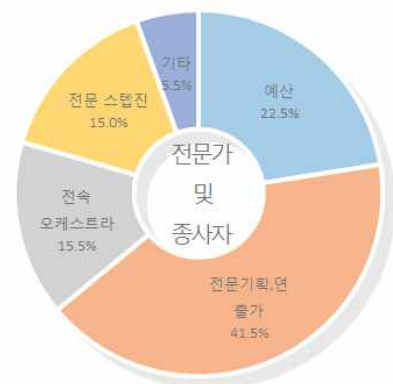


9) 클래식 전용 콘서트홀의 효율적 운영에 가장 필요한 요소

- 클래식 전용 콘서트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전문기획, 연출가’가 83명, 41.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예산’이 45명, 22.5%, ‘전속 오케스트라’가 31명, 15.5%, ‘전문 스텝진’이 30명, 15.0%, ‘기타’가 11명, 5.5%의 순으로 나타났다.
- 공연의 질적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기획과 연출가’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오페라하우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요소와 비교할 경우 ‘전문기획과 연출가’에 대한 응답 38.5%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 ‘예산’의 경우에서도 오페라하우스에 비해서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전속 오케스트라’에 대한 비중은 12.5%에 비해 15.5%로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표 12] 클래식 전용 콘서트홀의 효율적 운영 요소

구분	빈도	비율(%)
예산	45	22.5
전문기획,연출가	83	41.5
전속 오케스트라	31	15.5
전문 스텝진	30	15.0
기타	11	5.5
합계	2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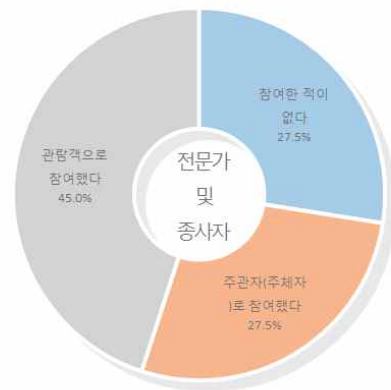
2. 시민 생활문화 확산 정책에 대한 인식도 및 만족도

1) '문화가 있는 날' 현장 참여 여부

- '문화가 있는 날' 현장에 참여한 여부에서는 '관람객으로 참여했다'라는 응답이 90명, 45.0%로 가장 높았고, '참여한 적이 없다'와 '주관자(주체자)로 참여했다'가 각각 55명, 27.5%로 나타났다.
- '문화가 있는 날'에 관람객 또는 주관자(주체자)로 참여한 것이 72.5%로 '문화가 있는 날'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문화가 있는 날' 현장 참여 여부

구분	빈도	비율(%)
참여한 적이 없다	55	27.5
주관자(주체자)로 참여했다	55	27.5
관람객으로 참여했다	90	45.0
합계	2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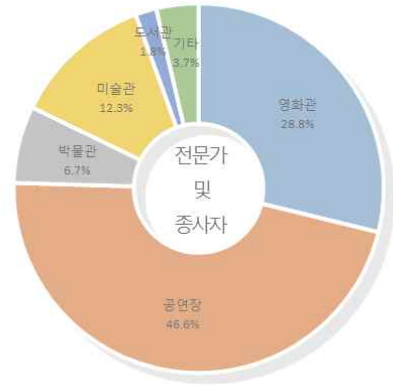


2) '문화가 있는 날' 현장 참여 장소

- '문화가 있는 날' 현장에 참여한 곳은 어디인가에 대한 전체응답(163명, 복수응답 포함) 중에서 '공연장'이 76명, 46.6%로 가장 많았고, '영화관' 47명, 28.8%, '미술관' 20명, 12.3%, '박물관'이 11명, 6.7%. '기타'가 6명, 3.7%, '도서관'이 3명, 1.8%의 순으로 나타났다.
- '문화가 있는 날'의 행사가 관람객으로써는 가격 할인이나 무료 관람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면서 평소에 높은 비용으로 인해 관람이 어려운 '공연장'에 대한 수요가 높았고, 주관자(주체자)로써도 다양한 문화행사를 추진할 수 있는 '공연장'이 가장 수요가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 '박물관'이나 '도서관'의 참여 장소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 다양한 문화행사의 추진으로 관람객을 유입할 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14] '문화가 있는 날' 현장 참여 장소

구분	빈도	비율(%)
영화관	47	28.8
공연장	76	46.6
박물관	11	6.7
미술관	20	12.3
도서관	3	1.8
기타	6	3.7
합계	163	100.0



3) '문화가 있는 날' 현장 참여시 문화향유 만족도

- '문화가 있는 날' 현장에 참여한 경우 문화향유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전체 응답 (145명) 중에서 '만족됐다'가 62명, 42.8%로 가장 높았고, '보통이다'가 58명, 40.0%, '매우 만족됐다'가 16명, 11.0%, '만족 안됐다'가 9명, 6.2%의 순으로 나타났다.
- '만족됐다'와 '매우 만족됐다'가 78명, 53.8%로 '문화가 있는 날' 참여에 따른 문화향유에 다수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
- 다만, '보통이다'의 비율이 40.0%로 다소 유보적인 판단을 내리는 참가자가 많아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이나 지원체계 등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15] '문화가 있는 날' 현장 참여시 문화향유 만족도

구분	빈도	비율(%)
만족 안됐다	9	6.2
보통이다	58	40.0
만족됐다	62	42.8
매우 만족됐다	16	11.0
합계	14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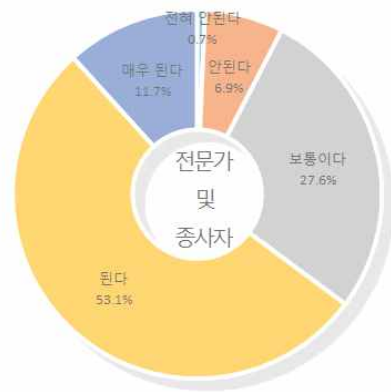


4)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이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정도

-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한 전체응답(145명) 중에서 ‘된다’가 77명, 53.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보통이다’가 40명, 27.6%, ‘매우 된다’가 17명, 11.7%, ‘안된다’가 10명, 6.9%, ‘전혀 안된다’가 1명, 0.7%의 순으로 나타났다.
- ‘된다’와 ‘매우 된다’가 94명, 64.8%로 나타나고 있어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문화향유 만족도(53.8%)에 비해서 긍정적 평가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문화가 있는 날’에 대한 참여 자체만으로도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으로 판단된다.
- 이는 ‘문화가 있는 날’에서 수행하는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의 향상도 매우 중요하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참여의 폭을 확대하고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 ‘문화가 있는 날’에 참여하는 기관이나 주체가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적극적인 홍보와 기간의 확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16]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의 삶의 질 향상 기여도

구분	빈도	비율(%)
전혀 안된다	1	0.7
안된다	10	6.9
보통이다	40	27.6
된다	77	53.1
매우 된다	17	11.7
합계	14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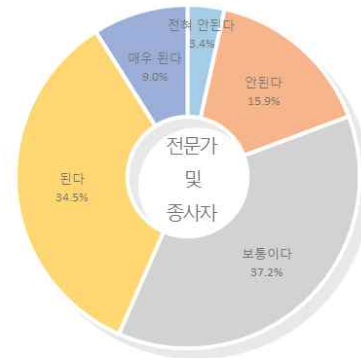
5) ‘문화가 있는 날’이 지역문화·예술가에 대한 경제적 기여 정도

- ‘문화가 있는 날’이 지역문화·예술가에게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한 전체응답(145명) 중에서 ‘보통이다’가 54명, 37.2%로 가장 높았고, ‘된다’가 50명, 34.5%, ‘안된다’가 23명, 15.9%, ‘매우 된다’가 13명, 9.0%, ‘전혀 안된다’가 5명, 3.4%의 순으로 나타났다.

- ‘된다’와 ‘매우 된다’의 응답이 63명, 43.5%로 지역문화·예술가의 경제적인 기여도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지역문화 및 예술사업에 재투자되어 질적·양적 수준의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된다.
- 향후 지역문화·예술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문화·예술가의 인재양성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7] ‘문화가 있는 날’의 지역문화·예술가의 경제적 기여도

구분	빈도	비율(%)
전혀 안된다	5	3.4
안된다	23	15.9
보통이다	54	37.2
된다	50	34.5
매우 된다	13	9.0
합계	145	100.0



3. 예술창작 환경 조성 정책에 대한 인식도 및 만족도

1) 부산문화재단의 가장 중요한 사업

- 부산문화재단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 무엇인가에 대한 응답으로, ‘문화예술활동지원’이 153명, 76.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문화예술교육지원’이 32명, 16.0%, ‘학예진흥지원’이 10명, 5.0%, ‘기타’가 3명, 1.5%, ‘국제문화교류지원’이 2명, 1.0%의 순으로 나타났다.
- 전문가 및 종사자의 입장에서는 문화예술에 대한 활동지원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다른 타 지원사업에 비해서 ‘문화예술활동지원’이 가장 중요한 부산문화재단의 사업으로 제시하고 있다.

[표 18] 부산문화재단의 가장 중요한 사업

구분	빈도	비율(%)
문화예술활동지원	153	76.5
학예진흥지원	10	5.0
문화예술교육지원	32	16.0
국제문화교류지원	2	1.0
기타	3	1.5
합계	200	100.0



2) 부산문화재단이 집중 지원할 대상

- 부산문화재단이 집중 지원해야 할 대상은 어디라고 보는가에 대한 의견으로 ‘문화예술 생산자’가 111명, 55.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문화예술 수요자’가 57명, 28.5%, ‘문화예술 유통자’가 28명, 14.0%, ‘기타’가 4명, 2.0%의 순으로 나타났다.
- ‘문화예술 생산자’에 대한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으며, 이는 ‘문화예술 생산자’의 열악한 기반이나 처우에 대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며, 문화예술에 대한 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 생산자’의 증가와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19] 부산문화재단의 집중지원 대상자

구분	빈도	비율(%)
문화예술 생산자	111	55.5
문화예술 유통자	28	14.0
문화예술 수요자	57	28.5
기타	4	2.0
합계	200	100.0



3) 부산문화재단 지원 사업비의 문화예술활동 기여도

- 부산문화재단의 지원 사업비가 예술가의 문화예술활동에 어느 정도 도움되는가에 대한 응답으로, '도움된다'가 80명, 40.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보통이다'가 76명, 38.0%, '매우 도움된다'와 '도움 안된다'가 각각 22명, 11.0%로 나타났다.
- '도움된다'와 '매우 도움된다'가 102명, 51.0%로 부산문화재단의 지원 사업비가 예술가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서 문화예술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 다만, '보통이다'에 대한 응답이 38.0%를 나타나고 있어 조금더 다양한 지원 사업이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지원 사업비의 확충을 통해서 문화예술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20] 부산문화재단 지원 사업비의 문화예술활동 기여도

구분	빈도	비율(%)
도움 안된다	22	11.0
보통이다	76	38.0
도움된다	80	40.0
매우 도움된다	22	11.0
합계	2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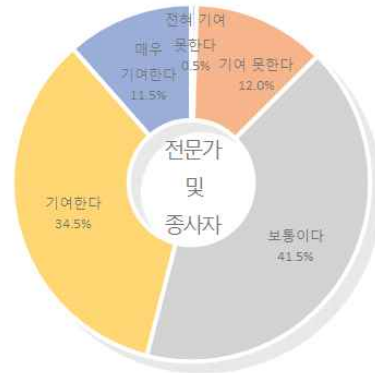


4) 부산문화재단 지원사업의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기여도

- 부산문화재단 지원사업이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가에 대한 응답으로는 '보통이다'가 83명, 41.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기여한다'가 69명, 34.5%, '기여 못한다'가 24명, 12.0%, '매우 기여한다'가 23명, 11.5%, '전혀 기여 못한다'가 1명, 0.5%의 순으로 나타났다.
- '기여한다'와 '매우 기여한다'가 92명, 46.0%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보통이다'가 가장 높은 41.5%를 보이고 있어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도를 크게 체감하지 못하는 전문가 및 종사자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표 21] 부산문화재단 지원사업의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기여도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기여 못한다	1	0.5
기여 못한다	24	12.0
보통이다	83	41.5
기여한다	69	34.5
매우 기여한다	23	11.5
합계	2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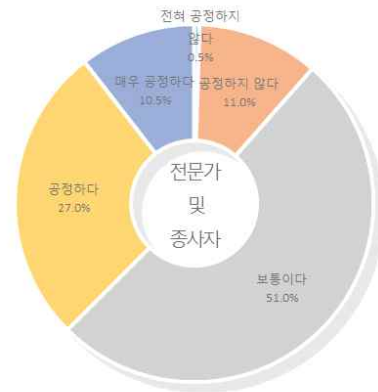


5) 부산문화재단 지원사업 심의과정의 공정성

- 부산문화재단의 지원사업 심의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가는 '보통이다'가 102명, 51.0%로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고, 그 다음으로 '공정하다'가 54명, 27.0%, '공정하지 않다'가 22명, 11.0%, '매우 공정하다'가 21명, 10.5%, '전혀 공정하지 않다'가 1명, 0.5%의 순으로 나타났다.
- '공정하다'와 '매우 공정하다'가 75명, 37.5%로 '공정하지 않다'와 '전혀 공정하지 않다'의 23명, 11.5%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어 공정성에 긍정적인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그러나 '보통이다'에 대한 응답이 54.0%를 차지하고 있어 부산문화재단의 지원사업에 대한 심의과정을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심의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외부 심의위원을 초빙하여 대내외적인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22] 부산문화재단 지원사업 심의과정의 공정성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공정하지 않다	1	0.5
공정하지 않다	22	11.0
보통이다	102	51.0
공정하다	54	27.0
매우 공정하다	21	10.5
합계	2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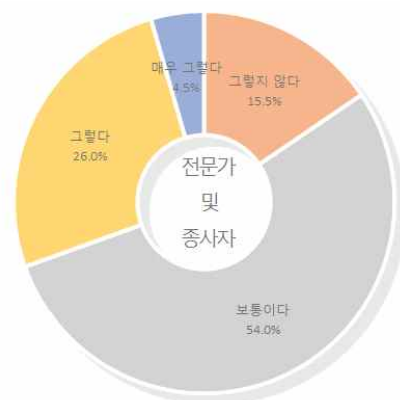


6) 부산문화재단의 지원사업 이후 평가의 적절성

- 부산문화재단의 지원사업 이후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응답으로, '보통이다'가 108명, 54.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그렇다'가 52명, 26.0%, '그렇지 않다'가 31명, 15.5%, '매우 그렇다'가 9명, 4.5%의 순으로 나타났다.
-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가 61명, 30.5%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의 31명, 15.5%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부정적 의견보다는 긍정적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보통이다'가 가장 높은 54.0%를 나타내고 있어 지원사업 이후 평가절차 및 사후 관리에 대한 적절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체계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서 향후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23] 부산문화재단의 지원사업 이후 평가의 적절성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0	0.0
그렇지 않다	31	15.5
보통이다	108	54.0
그렇다	52	26.0
매우 그렇다	9	4.5
합계	2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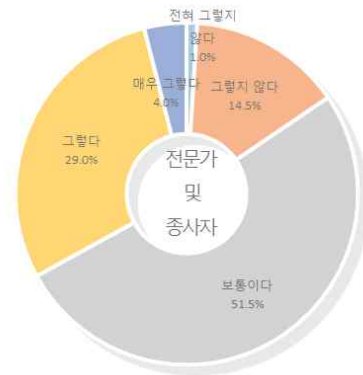


7) 부산문화재단 지원사업 평가 이후 사업 반영 여부

- 부산문화재단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가 이후의 지원사업에 잘 반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응답으로, '보통이다'가 103명, 51.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그렇다'가 58명, 29.0%, '그렇지 않다'가 29명, 14.5%, '매우 그렇다'가 8명, 4.0%, '전혀 그렇지 않다'가 2명, 1.0%의 순으로 나타났다.
-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가 66명, 33.0%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의 31명, 15.5%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부정적 의견보다는 긍정적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보통이다'가 가장 높은 51.5%를 나타내고 있어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가 이후의 사업 추진에 있어 적절하게 반영되는 것을 잘 체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향후 평가 결과에 대해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24] 부산문화재단 지원사업 평가 이후 사업 반영 여부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2	1.0
그렇지 않다	29	14.5
보통이다	103	51.5
그렇다	58	29.0
매우 그렇다	8	4.0
합계	2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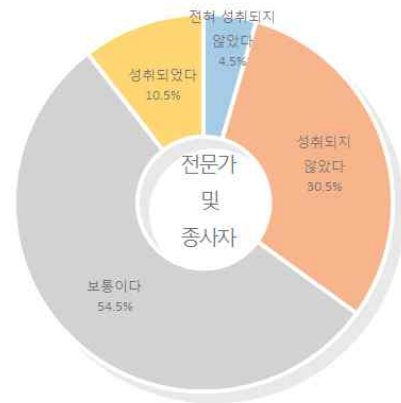
8) 민선6기 부산시 '문화융성' 비전의 성취도

- 민선6기 부산시는 '문화융성'을 비전으로 삼고 있으며, 이에 현재 어느 정도 성취되었다고 보는가에 대한 응답으로, '보통이다'가 109명, 54.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성취되지 않았다'가 61명, 30.5%, '성취되었다'가 21명, 10.5%, '전혀 성취되지 않았다'가 9명, 4.5%의 순으로 나타났다.
- '매우 성취되었다'라는 응답은 없었으며, '성취되었다'도 10.5%로 '성취되지 않았다'와 '전혀 성취되지 않았다'의 35.0%에 비해 낮아 부산시의 문화정책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부산시 ‘문화융성’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문화융성에 대해서 잘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부산시의 문화정책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된다.

[표 25] 부산시 ‘문화융성’ 비전의 성취도

구분	빈도	비율(%)
전혀 성취되지 않았다	9	4.5
성취되지 않았다	61	30.5
보통이다	109	54.5
성취되었다	21	10.5
매우 성취되었다	0	0.0
합계	200	100.0



9) ‘문화융성’이 가장 크게 성취된 분야

- ‘문화융성’이 가장 크게 성취된 분야는 어디라고 보는가에 대한 응답으로, ‘영화’가 63명, 31.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기타’가 46명, 23.0%, ‘종합예술’이 34명, 17.0%, ‘음악’과 ‘미술’이 각각 19명, 9.5%, ‘연극’이 8명, 4.0%, ‘무용’이 6명, 3.0%, ‘전통예술’이 3명, 1.5%, ‘문학’이 2명, 1.0%의 순으로 나타났다.
- 부산시가 영화의 도시로써 영화분야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영화와 관련된 시설이나 기관이 설립되고 운영되면서 ‘영화’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 ‘기타’의 내용으로는 성취 분야가 없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으며, 대중 및 생활예술, 방송, 전시 등의 분야에 대한 응답이 존재하였다.
- 향후 지역 문화예술의 기반조성과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문화예술의 공연시설이나 교육시설 등이 확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26] '문화융성'이 가장 성취된 분야

구분	빈도	비율(%)
문학	2	1.0
연극	8	4.0
영화	63	31.5
음악	19	9.5
무용	6	3
미술	19	9.5
전통예술	3	1.5
종합예술	34	17.0
기타	46	23.0
합계	2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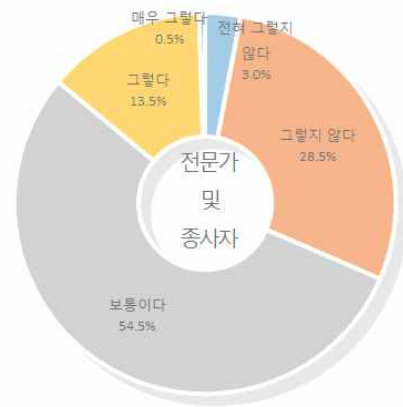


10) 부산시 문화예산의 합리적 집행 여부

- 부산시 문화예산 집행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응답으로, '보통이다'가 109명, 54.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그렇지 않다'가 57명, 28.5%, '그렇다'가 27명, 13.5%, '전혀 그렇지 않다'가 6명, 3.0%, '매우 그렇다'가 1명, 0.5%의 순으로 나타났다.
-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가 28명, 14.0%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의 63명, 31.5%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어 긍정적 평가보다는 부정적 평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리고 '보통이다'가 가장 높은 54.5%를 나타내고 있어, 부정적 평가와 함께 부산시 문화예산의 집행 합리성에 대해 낮은 평가를 내리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27] 부산시 문화예산집행의 합리성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6	3.0
그렇지 않다	57	28.5
보통이다	109	54.5
그렇다	27	13.5
매우 그렇다	1	0.5
합계	2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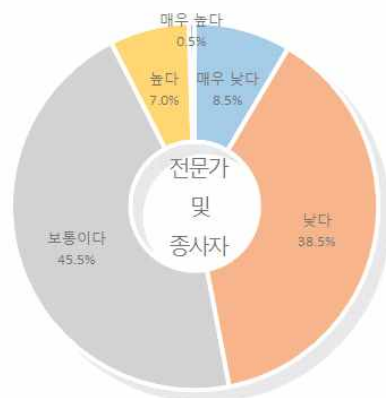


11) 부산시 문화분야 관련 기구 및 인력투입

- 부산시 문화분야 관련 기구 및 인력투입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에 대한 응답으로, ‘보통이다’가 91명, 45.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낮다’가 77명, 38.5%, ‘매우 낮다’가 17명, 8.5%, ‘높다’가 14명, 7.0%, ‘매우 높다’가 1명, 0.5%의 순으로 나타났다.
- ‘매우 낮다’와 ‘낮다’의 의견이 94명, 47.0%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부산시의 문화분야 관련 기구 및 인력투입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문가 및 종사자의 입장에서 부산시의 문화분야에 대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향후 체계적인 지원 체계마련으로 관련 기구와 인력의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표 28] 부산시 문화분야 관련 기구 및 인력투입 수준

구분	빈도	비율(%)
매우 낮다	17	8.5
낮다	77	38.5
보통이다	91	45.5
높다	14	7.0
매우 높다	1	0.5
합계	200	100.0



12) 부산시 문화분야 공무원의 전문성

- 부산시 문화분야 공무원의 전문성에 대한 의견으로 '보통이다'가 99명, 49.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낮다'가 57명, 28.5%, '높다'가 25명, 12.5%, '매우 낮다'가 18명, 9.0%, '매우 높다'가 1명, 0.5%의 순으로 나타났다.
- '매우 낮다'와 '낮다'의 의견이 75명, 37.5%로 '높다'와 '매우 높다'의 26명, 13.0%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고 있어 문화분야 공무원의 전문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 부산시 문화분야에 대한 발전과 문화 및 예술가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며,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이나 전문가 영입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29] 부산시 문화분야 공무원의 전문성

구분	빈도	비율(%)
매우 낮다	18	9.0
낮다	57	28.5
보통이다	99	49.5
높다	25	12.5
매우 높다	1	0.5
합계	2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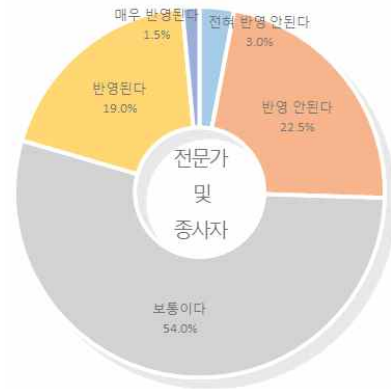


13) 부산시 문화정책 수립시 전문가·종사자 의견 반영도

- 부산시 문화정책 수립에 있어서 해당분야 전문가·종사자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되는가에 대한 응답으로, '보통이다'가 108명, 54.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반영 안된다'가 45명, 22.5%, '반영된다'가 38명, 19.0%, '전혀 반영 안된다'가 6명, 3.0%, '매우 반영된다'가 3명, 1.5%의 순으로 나타났다.
- '반영 안된다'와 '전혀 반영 안된다'가 25.5%로 '반영된다'와 '매우 반영된다'의 20.5%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전문가 및 종사자의 의견 반영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보통이다'의 의견이 54.0%로 이는 전문가 및 종사자 입장에서는 의견 반영에 대해서 크게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0] 부산시 문화정책 수립시 전문가·종사자 의견 반영도

구분	빈도	비율(%)
전혀 반영 안된다	6	3.0
반영 안된다	45	22.5
보통이다	108	54.0
반영된다	38	19.0
매우 반영된다	3	1.5
합계	2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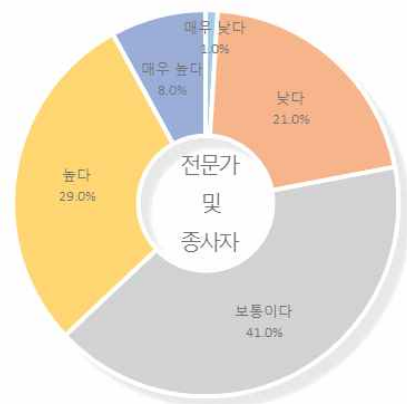


14) 부산시 문화시설(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등)의 활용도

- 부산시 문화시설(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등)의 활용도에 대한 의견으로 '보통이다'가 82명, 41.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높다'가 58명, 29.0%, '낮다'가 42명, 21.0%, '매우 높다'가 16명, 8.0%, '매우 낮다'가 2명, 1.0%의 순으로 나타났다.
- '높다'와 '매우 높다'의 의견이 37.0%로 '낮다'와 '매우 낮다'의 의견 22.0%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부산시 문화시설의 활용도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만, '보통이다'라는 의견이 41.0%로 크게 나타나고 있어 활용도에 대한 체감이 크지 못하고 있어 향후 부산시 문화시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1] 부산시 문화시설(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등)의 활용도

구분	빈도	비율(%)
매우 낮다	2	1.0
낮다	42	21.0
보통이다	82	41.0
높다	58	29.0
매우 높다	16	8.0
합계	200	100.0



15) 부산시 문화시설 활성화를 위한 가장 필요한 요소

- 부산시 문화시설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견으로 '예산확충'이 91명, 45.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프로그램 개발'이 44명, 22.0%, '인력양성'이 27명, 13.5%, '행정지원'이 17명, 8.5%, '홍보'가 15명, 7.5%, '기타'가 6명, 3.0%의 순으로 나타났다.
- 부산시 문화시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장 핵심 요소는 '예산확충'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문화시설 개선이나 확충, 다양한 문화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예산적 부분이 가장 핵심적 요소로 작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 32] 부산시 문화시설 활성화를 위한 가장 필요한 요소

구분	빈도	비율(%)
인력양성	27	13.5
프로그램 개발	44	22.0
행정지원	17	8.5
예산확충	91	45.5
홍보	15	7.5
기타	6	3.0
합계	200	100.0



16) 부산시의 미래 문화비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

- 부산시의 미래 문화비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가에 대한 응답으로, '인력양성'이 51명, 25.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중장기 계획 설정'이 50명, 25.0%, '운영 효율화'가 46명, 23.0%, '국비확보'가 22명, 11.0%, '시설투자'가 16명, 8.0%, '행정지원'이 10명, 5.0%, '기타'가 5명, 2.5%의 순으로 나타났다.
- 미래의 문화비전을 위한 정책으로는 '인재양성'과 '중장기 계획 설정'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는 향후의 지속적인 문화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나타나는 결과로 판단된다.
-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인재양성의 경우 현재부터 준비가 필요하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문화분야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으로 현재보다는 미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반 조성이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나타났다.

[표 33] 부산시 미래 문화비전을 위한 필요 정책

구분	빈도	비율(%)
시설투자	16	8.0
인력양성	51	25.5
운영 효율화	46	23.0
중장기 계획 설정	50	25.0
국비확보	22	11.0
행정지원	10	5.0
기타	5	2.5
합계	200	100.0



17) 부산시 문화예술정책을 연구·개발하는 기관의 필요성

- 부산시 문화예술정책을 연구·개발하는 기관이 필요한가에 대한 응답으로는 ‘필요하다’가 94명, 47.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매우 필요하다’가 49명, 24.5%, ‘보통이다’가 32명, 16.0%, ‘필요 없다’가 24명, 12.0%, ‘전혀 필요 없다’가 1명, 0.5%의 순으로 나타났다.
- ‘필요하다’와 ‘매우 필요하다’가 71.5%로 부산시 문화예술정책의 연구·개발을 전담하는 기관에 대한 필요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문화예술정책을 연구·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나타내며, 장기적이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문화예술정책의 연구 및 개발이 진행되어야 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표 34] 부산시 문화예술정책을 연구·개발하는 기관의 필요성

구분	빈도	비율(%)
전혀 필요 없다	1	0.5
필요 없다	24	12.0
보통이다	32	16.0
필요하다	94	47.0
매우 필요하다	49	24.5
합계	200	100.0



18) 문화예술정책 연구·개발 기관의 주체

- 문화예술정책 연구·개발 기관을 만든다면, 어디에 만들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응답으로, '부산문화재단'이 79명, 39.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기관 신설'이 54명, 27.0%, '부산발전연구원'이 37명, 18.5%, '부산예총·민예총'이 22명, 11.0%, '기타'가 8명, 4.0%의 순으로 나타났다.
- 현재 문화예술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부산문화재단이 문화예술정책 연구·개발 기관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나타났으나, 기관신설이나 부산발전연구원에 대한 의견도 일부 나타나고 있어 부산문화재단에 대한 역할수행에 있어 다소 부정적 입장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5] 문화예술정책 연구·개발 기관의 주체

구분	빈도	비율(%)
부산문화재단	79	39.5
부산예총·민예총	22	11.0
부산발전연구원	37	18.5
기관 신설	54	27.0
기타	8	4.0
합계	200	100.0



II. 공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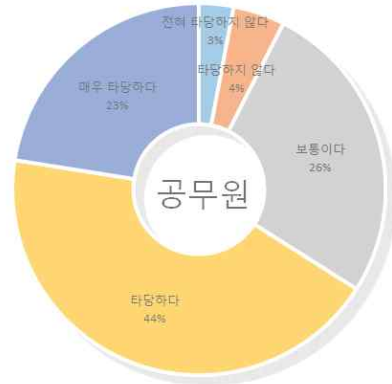
1. 문화도시 기반 조성 정책에 대한 인식도 및 만족도

1) 오페라하우스 건립 사업의 타당성 여부

-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오페라하우스 건립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응답으로, '타당하다'가 가장 많은 87명, 43.5%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보통이다'가 53명, 26.5%, '매우 타당하다'가 45명, 22.5%, '타당하지 않다'가 9명, 4.5%, '전혀 타당하지 않다'가 6명, 3.0%의 순으로 나타났다.
- '타당하다'와 '매우 타당하다'가 132명, 66.0%를 나타내고 있어 오페라하우스 건립 사업의 타당성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 오페라하우스 건립 사업의 타당성

구분	빈도	비율(%)
전혀 타당하지 않다	6	3.0
타당하지 않다	9	4.5
보통이다	53	26.5
타당하다	87	43.5
매우 타당하다	45	22.5
합계	200	100.0



2) 오페라하우스가 부산의 랜드마크 문화관광 거점시설로서 활용 가능성

- 오페라하우스가 부산의 랜드마크로서 문화관광 거점시설이 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응답으로, '그렇다'가 89명, 44.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매우 그렇다'가 55명, 27.5%, '보통이다'가 37명, 18.5%, '그렇지 않다'가 13명, 6.5%, '전혀 그렇지 않다'가 6명, 3.0%의 순으로 나타났다.
-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가 144명, 72.0%를 나타내고 있어 문화관광 거점시설로 활용성이 매우 크다고 평가를 하고 있다.

[표 37] 오페라하우스의 문화관광 거점시설 활용 가능성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6	3.0
그렇지 않다	13	6.5
보통이다	37	18.5
그렇다	89	44.5
매우 그렇다	55	27.5
합계	200	100.0



3) 오페라하우스 참관 의향

- 오페라하우스에서는 오페라·무용(발레)·뮤지컬 등이 무대에 상영될 예정으로, 이에 참관할 의향에 대한 응답으로, '있다'가 90명, 45.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매우 있다'가 62명, 31.0%, '보통이다'가 30명, 15.0%, '없다'가 13명, 6.5%, '전혀 없다'가 5명, 2.5%의 순으로 나타났다.
- '있다'와 '매우 있다'의 응답이 152명, 76.0%로 오페라하우스 건립시 참관 의향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향후 오페라하우스 건립에 따라서 문화관광의 거점시설로 활용되면서 부산시의 문화기회를 확대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표 38] 오페라하우스 참관 의향

구분	빈도	비율(%)
전혀 없다	5	2.5
없다	13	6.5
보통이다	30	15.0
있다	90	45.0
매우 있다	62	31.0
합계	2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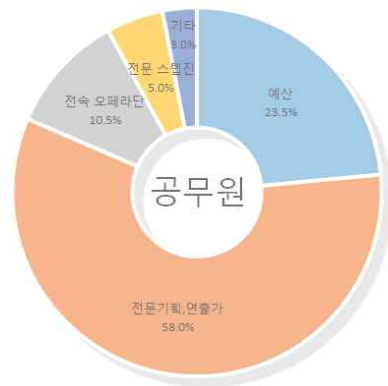


4) 오페라하우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 오페라하우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응답으로, '전문기획, 연출가'가 116명, 58.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예산'이 47명, 23.5%, '전속 오페라단'이 21명, 10.5%, '전문 스텝진'이 10명, 5.0%, '기타'가 6명, 3.0%의 순으로 나타났다.
- '전문기획, 연출가'에 대한 응답이 매우 높은 것은 오페라의 특성상 공연의 질적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기획이나 연출에 대한 중요도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수준 높은 오페라 공연의 지속적인 상영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기반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표 39] 오페라하우스 효율적 운영 요소

구분	빈도	비율(%)
예산	47	23.5
전문기획,연출가	116	58.0
전속 오페라단	21	10.5
전문 스텝진	10	5.0
기타	6	3.0
합계	200	100.0



5) 부산국제아트센터 건립 타당성 여부

-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부산국제아트센터 건립 사업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응답으로, '타당하다'가 가장 많은 87명, 43.5%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보통이다'가 65명, 32.5%, '매우 타당하다'가 41명, 20.5%, '매우 타당하지 않다'가 4명, 2.0%, '타당하지 않다'가 3명, 1.5%의 순으로 나타났다.
- '타당하다'와 '매우 타당하다'가 128명, 64.0%를 나타내고 있어 부산국제아트센터 건립 타당성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앞선 오페라하우스 건립 타당성의 긍정적 응답(66.0%)와 비슷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오페라하우스와 부산국제아트센터의 건립을 모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0] 부산국제아트센터 건립 타당성

구분	빈도	비율(%)
매우 타당하지 않다	4	2.0
타당하지 않다	3	1.5
보통이다	65	32.5
타당하다	87	43.5
매우 타당하다	41	20.5
합계	2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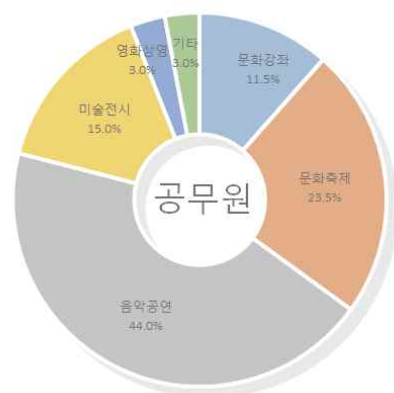


6) 국제아트센터의 가장 중요한 기능

- 국제아트센터의 기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음악공연’이 88명, 44.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문화축제’가 47명, 23.5%, ‘미술전시’가 30명, 15.0%, ‘문화강좌’가 23명, 11.5%, ‘영화상영’과 ‘기타’가 각각 6명, 3.0%의 순으로 나타났다.
- ‘음악공연’과 ‘문화축제’가 다른 기능에 비해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음악공연이나 문화축제에 대한 관심이 높으나, 그에 맞는 시설은 부족하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 ‘미술전시’는 부산에 다양한 미술전시 공간이 생겨나면서 그 수요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영화상영’의 경우 부산시내에 다양한 영화관람시설이 분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요는 매우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표 41] 부산국제아트센터의 중요 기능

구분	빈도	비율(%)
문화강좌	23	11.5
문화축제	47	23.5
음악공연	88	44.0
미술전시	30	15.0
영화상영	6	3.0
기타	6	3.0
합계	2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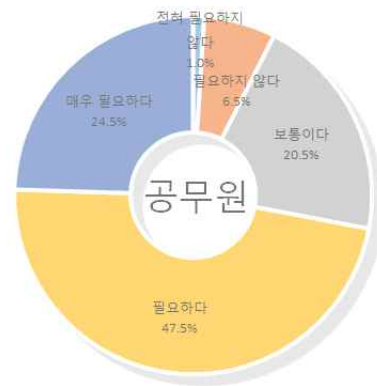


7) 클래식 전용홀 필요성

- 현재 부산에는 클래식 전용 콘서트홀이 없는 실정에서 클래식 전용홀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으로 '필요하다'가 95명, 47.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매우 필요하다'가 49명, 24.5%, '보통이다'가 41명, 20.5%, '필요하지 않다'가 13명, 6.5%, '전혀 필요하지 않다'가 2명, 1.0%의 순으로 나타났다.
- '필요하다'와 '매우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144명, 72.0%로 클래식 전용홀에 대한 필요성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오페라하우스와 국제아트센터의 건립 타당성에 비해서 클래식 전용홀의 필요성을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표 42] 클래식 전용홀의 필요성

구분	빈도	비율(%)
전혀 필요하지 않다	2	1.0
필요하지 않다	13	6.5
보통이다	41	20.5
필요하다	95	47.5
매우 필요하다	49	24.5
합계	200	100.0



8) 클래식 전용 콘서트홀의 활용도

- 클래식 전용 콘서트홀은 2,000석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전용 콘서트홀의 활용도에 대한 응답으로는 '높다'가 70명, 35.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보통이다'가 69명, 34.5%, '매우 높다'가 38명, 19.0%, '낮다'가 22명, 11.0%, '매우 낮다'가 1명, 0.5%의 순으로 나타났다.
- '높다'와 '매우 높다'가 108명, 54.0%로 클래식 전용 콘서트홀의 활용도를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만, 클래식 전용 콘서트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으나 그 활용성에 대해서는 다소 부족하여 다양한 활용방안에 대한 방안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43] 클래식 전용 콘서트홀의 활용도

구분	빈도	비율(%)
매우 낮다	1	0.5
낮다	22	11.0
보통이다	69	34.5
높다	70	35.0
매우 높다	38	19.0
합계	2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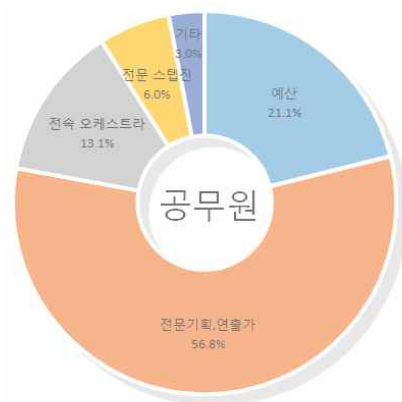


9) 클래식 전용 콘서트홀의 효율적 운영에 가장 필요한 요소

- 클래식 전용 콘서트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전문기획, 연출가'가 114명, 56.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예산'이 43명, 21.0%, '전속 오케스트라'가 13명, 6.0%, '전문 스텝진'이 12명, 6.0%, '기타'가 6명, 3.0%의 순으로 나타났다.
- 공연의 질적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기획과 연출가'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오페라하우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요소와 비교할 경우 '전문기획과 연출가'에 대한 응답 58.0%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다.
- '예산'의 경우에서도 오페라하우스에 비해서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전속 오케스트라'에 대한 비중은 '전속 오페라단' 10.5%에 비해 13.0%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4] 클래식 전용 콘서트홀의 효율적 운영 요소

구분	빈도	비율(%)
예산	43	21.0
전문기획,연출가	114	56.5
전속 오케스트라	26	13.0
전문 스텝진	12	6.0
기타	6	3.0
합계	200	100.0



2. 시민 생활문화 확산 정책에 대한 인식도 및 만족도

1) '문화가 있는 날' 현장 참여 여부

- '문화가 있는 날' 현장에 참여한 여부에서는 '관람객으로 참여했다'라는 응답이 97명, 48.5%로 가장 높았고, '참여한 적이 없다'가 69명, 34.5%, '주관자(주체자)로 참여했다'가 34명, 17.0%로 나타났다.
- '문화가 있는 날'에 관람객 또는 주관자(주체자)로 참여한 것이 65.5%로 '문화가 있는 날'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문화가 있는 날' 현장 참여 여부

구분	빈도	비율(%)
참여한 적이 없다	69	34.5
주관자(주체자)로 참여했다	34	17.0
관람객으로 참여했다	97	48.5
합계	2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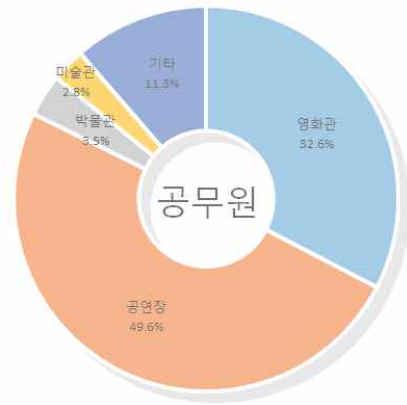


2) '문화가 있는 날' 현장 참여 장소

- '문화가 있는 날' 현장에 참여한 곳은 어디인가에 대한 전체응답(141명, 복수응답 포함) 중에서 '공연장'이 70명, 49.6%로 가장 많았고, '영화관' 46명, 32.6%, '기타'가 16명, 11.3% '박물관' 5명, 3.5%, '미술관'이 4명, 2.8%의 순으로 나타났다.
- '문화가 있는 날'의 행사가 관람객으로써는 가격 할인이나 무료 관람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면서 평소에 높은 비용으로 인해 관람이 어려운 '공연장'에 대한 수요가 높았고, 주관자(주체자)로써도 다양한 문화행사를 추진할 수 있는 '공연장'이 가장 수요가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의 참여 장소 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 다양한 문화행사의 추진으로 관람객을 유입할 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46] '문화가 있는 날' 현장 참여 장소

구분	빈도	비율(%)
영화관	46	32.6
공연장	70	49.6
박물관	5	3.5
미술관	4	2.8
도서관	0	0.0
기타	16	11.3
합계	14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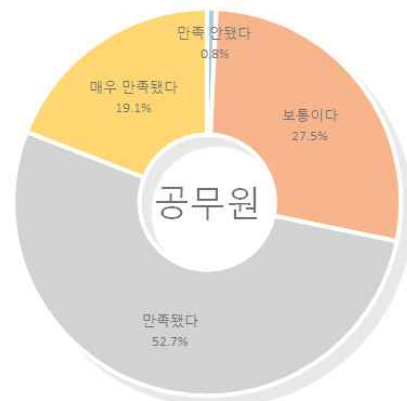


3) '문화가 있는 날' 현장 참여시 문화향유 만족도

- '문화가 있는 날' 현장에 참여한 경우 문화향유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전체 응답 (131명) 중에서 '만족됐다'가 69명, 52.7%로 가장 높았고, '보통이다'가 36명, 27.5%, '매우 만족됐다'가 25명, 19.1%, '만족 안됐다'가 1명, 0.8%의 순으로 나타났다.
- '만족됐다'와 '매우 만족됐다'가 94명, 71.8%로 '문화가 있는 날' 참여에 따른 문화향유에 만족감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 만족도가 높은 '문화가 있는 날'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원과 기반의 확대를 통해서 문화향유의 만족도를 더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47] '문화가 있는 날' 현장 참여시 문화향유 만족도

구분	빈도	비율(%)
만족 안됐다	1	0.8
보통이다	36	27.5
만족됐다	69	52.7
매우 만족됐다	25	19.1
합계	131	100.0



4)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이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정도

-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한 전체응답(131명) 중에서 '된다'가 67명, 51.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매우 된다'가 33명, 25.2%, '보통이다'가 27명, 20.6%, '안된다'가 3명, 2.3%, '전혀 안된다'가 1명, 0.8%의 순으로 나타났다.
- '된다'와 '매우 된다'가 100명, 76.3%로 나타나고 있어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문화향유 만족도(71.8%)에 비해서 긍정적 평가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문화가 있는 날'에 대한 참여 자체만으로도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 이는 '문화가 있는 날'에서 수행하는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의 향상도 매우 중요하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참여의 폭을 확대하고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 '문화가 있는 날'에 참여하는 기관이나 주체가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적극적인 홍보와 기간의 확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48]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의 삶의 질 향상 기여도

구분	빈도	비율(%)
전혀 안된다	1	0.8
안된다	3	2.3
보통이다	27	20.6
된다	67	51.1
매우 된다	33	25.2
합계	131	100.0



5) '문화가 있는 날'이 지역문화·예술가에 대한 경제적 기여 정도

- '문화가 있는 날'이 지역문화·예술가에게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한 전체응답(131명) 중에서 '된다'가 52명, 39.7%로 가장 높았고, '보통이다'가 41명, 31.3%, '매우 된다'가 28명, 21.4%, '안된다'가 8명, 6.1%, '전혀 안된다'가 2명, 1.5%의 순으로 나타났다.

- ‘된다’와 ‘매우 된다’의 응답이 80명, 61.1%로 지역문화·예술가의 경제적인 기여도가 높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문화 및 예술사업에 재투자되어 질적·양적 수준의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 향후 지역문화·예술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문화·예술가의 인재양성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49] ‘문화가 있는 날’의 지역문화·예술가의 경제적 기여도

구분	빈도	비율(%)
전혀 안된다	2	1.5
안된다	8	6.1
보통이다	41	31.3
된다	52	39.7
매우 된다	28	21.4
합계	131	100.0



3. 예술창작 환경 조성 정책에 대한 인식도 및 만족도

1) 부산문화재단의 가장 중요한 사업

- 부산문화재단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 무엇인가에 대한 응답으로, ‘문화예술활동지원’이 159명, 79.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문화예술교육지원’이 28명, 14.0%, ‘국제문화교류지원’이 8명, 4.0%, ‘학예진흥지원’이 3명, 1.5%, ‘기타’가 2명, 1.0%의 순으로 나타났다.
- 문화예술에 대한 활동지원이 부산문화재단의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문화예술의 기반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문화예술활동지원을 통해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핵심적 기능으로 볼 수 있다.

[표 50] 부산문화재단의 가장 중요한 사업

구분	빈도	비율(%)
문화예술활동지원	159	79.5
학예진흥지원	3	1.5
문화예술교육지원	28	14.0
국제문화교류지원	8	4.0
기타	2	1.0
합계	2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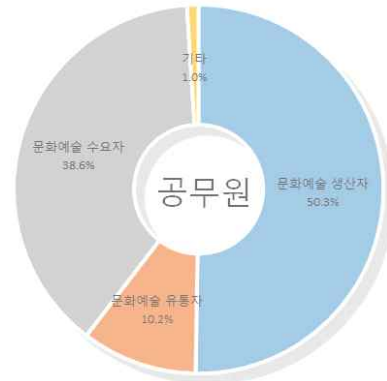


2) 부산문화재단이 집중 지원할 대상

- 부산문화재단이 집중 지원해야 할 대상은 어디라고 보는가에 대한 의견으로 ‘문화예술 생산자’가 99명, 49.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문화예술 수요자’가 76명, 38.0%, ‘문화예술 유통자’가 20명, 10.0%, ‘기타’가 2명, 1.0%의 순으로 나타났다.
- ‘문화예술 생산자’에 대한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으며, 이는 ‘문화예술 생산자’의 열악한 기반이나 처우에 대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며, 문화예술에 대한 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 생산자’의 증가와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51] 부산문화재단의 집중지원 대상자

구분	빈도	비율(%)
문화예술 생산자	99	49.5
문화예술 유통자	20	10.0
문화예술 수요자	76	38.0
기타	2	1.0
합계	2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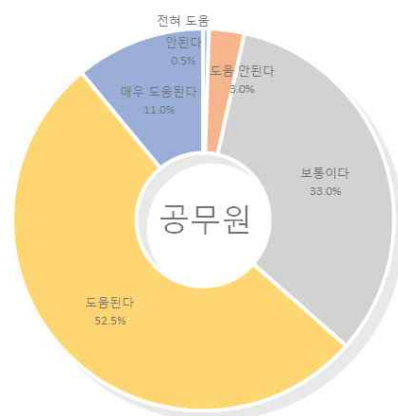


3) 부산문화재단 지원 사업비의 문화예술활동 기여도

- 부산문화재단의 지원 사업비가 예술가의 문화예술활동에 어느 정도 도움되는가에 대한 응답으로, '도움된다'가 105명, 52.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보통이다'가 66명, 33.0%, '매우 도움된다'가 22명, 11.0%, '도움 안된다'가 6명, 3.0%, '전혀 도움 안된다'가 1명, 0.5%의 순으로 나타났다.
- '도움된다'와 '매우 도움된다'가 127명, 63.5%로 부산문화재단의 지원 사업비가 예술가의 문화예술활동에 높은 기여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 다만, '보통이다'에 대한 응답이 33.0%를 나타나고 있어 조금더 다양한 지원 사업이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지원 사업비의 확충을 통해서 문화예술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52] 부산문화재단 지원 사업비의 문화예술활동 기여도

구분	빈도	비율(%)
전혀 도움 안된다	1	0.5
도움 안된다	6	3.0
보통이다	66	33.0
도움된다	105	52.5
매우 도움된다	22	11.0
합계	200	100.0



4) 부산문화재단 지원사업의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기여도

- 부산문화재단 지원사업이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가에 대한 응답으로는 '기여한다'가 103명, 51.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보통이다'가 65명, 32.5%, '매우 기여한다'가 27명, 13.5%, '기여 못한다'가 3명, 1.5%, '전혀 기여 못한다'가 2명, 1.0%의 순으로 나타났다.
- '기여한다'와 '매우 기여한다'가 130명, 65.0%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산문화재단의 지원사업이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표 53] 부산문화재단 지원사업의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기여도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기여 못한다	2	1.0
기여 못한다	3	1.5
보통이다	65	32.5
기여한다	103	51.5
매우 기여한다	27	13.5
합계	2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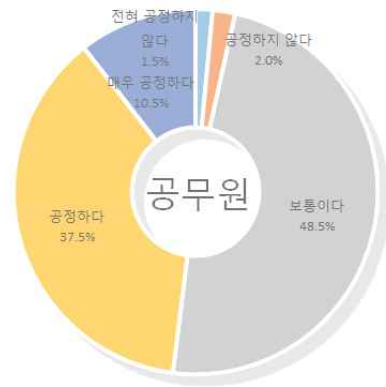


5) 부산문화재단 지원사업 심의과정의 공정성

- 부산문화재단의 지원사업 심의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가는 '보통이다'가 97명, 48.5.0%로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고, 그 다음으로 '공정하다'가 75명, 37.5%, '매우 공정하다'가 21명, 10.5%, '공정하지 않다'가 4명, 2.0%, '전혀 공정하지 않다'가 3명, 1.5%의 순으로 나타났다.
- '공정하다'와 '매우 공정하다'가 96명, 48.0%로 '공정하지 않다'와 '전혀 공정하지 않다'의 7명, 3.5%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공정성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만, '보통이다'에 대한 응답이 48.5%를 차지하고 있어, 앞으로 심의과정을 조금더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심의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거나 외부심의위원을 초빙하여 대내외적인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54] 부산문화재단 지원사업 심의과정의 공정성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공정하지 않다	3	1.5
공정하지 않다	4	2.0
보통이다	97	48.5
공정하다	75	37.5
매우 공정하다	21	10.5
합계	2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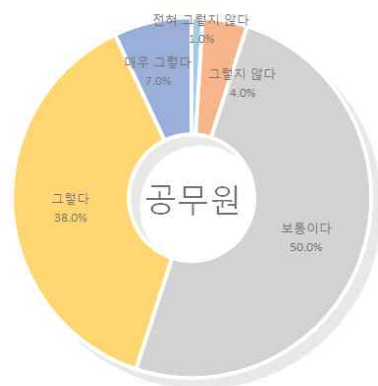


6) 부산문화재단의 지원사업 이후 평가의 적절성

- 부산문화재단의 지원사업 이후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응답으로, '보통이다'가 100명,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그렇다'가 76명, 38.0%, '매우 그렇다'가 14명, 7.0%, '그렇지 않다'가 8명, 4.0%, '전혀 그렇지 않다'가 2명, 1.0%의 순으로 나타났다.
-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가 45.0%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의 5.0%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부정적 의견보다는 긍정적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보통이다'가 가장 높은 50.0%를 나타내고 있어 지원사업 이후 평가절차 및 사후 관리에 대한 적절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체계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서 향후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55] 부산문화재단의 지원사업 이후 평가의 적절성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2	1.0
그렇지 않다	8	4.0
보통이다	100	50.0
그렇다	76	38.0
매우 그렇다	14	7.0
합계	2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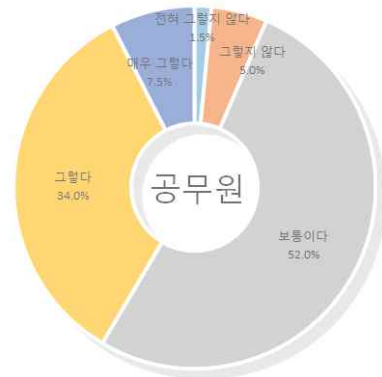


7) 부산문화재단 지원사업 평가 이후 사업 반영 여부

- 부산문화재단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가 이후의 지원사업에 잘 반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응답으로, '보통이다'가 104명, 52.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그렇다'가 68명, 34.0%, '매우 그렇다'가 15명, 7.5%, '그렇지 않다'가 10명, 5.0%, '전혀 그렇지 않다'가 3명, 1.5%의 순으로 나타났다.
-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가 41.5%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의 6.5%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부정적 의견보다는 긍정적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보통이다'가 가장 높은 52.0%를 나타내고 있어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가 이후의 사업 추진에 있어 적절하게 반영되는 것을 잘 체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향후 평가 결과에 대해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체계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56] 부산문화재단 지원사업 평가 이후 사업 반영 여부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3	1.5
그렇지 않다	10	5.0
보통이다	104	52.0
그렇다	68	34.0
매우 그렇다	15	7.5
합계	2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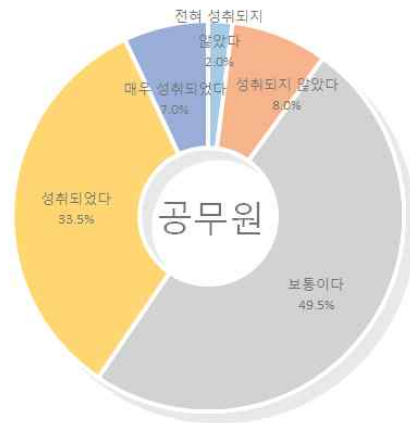
8) 민선6기 부산시 '문화융성' 비전의 성취도

- 민선6기 부산시는 '문화융성'을 비전으로 삼고 있으며, 이에 현재 어느 정도 성취되었다고 보는가에 대한 응답으로, '보통이다'가 99명, 49.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성취되었다'가 67명, 33.5%, '성취되지 않았다'가 16명, 8.0%, '매우 성취되었다'가 14명, 7.0%, '전혀 성취되지 않았다'가 4명, 2.0%의 순으로 나타났다.
- '성취되었다'와 '매우 성취되었다'가 40.5%로 '성취되지 않았다'와 '전혀 성취되지 않았다'의 10.0%에 비해 매우 높아 부산시의 문화정책에 대한 긍정적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부산시 ‘문화융성’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 지역의 문화 융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보통이다’의 의견이 49.5%로 실질적인 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57] 부산시 ‘문화융성’ 비전의 성취도

구분	빈도	비율(%)
전혀 성취되지 않았다	4	2.0
성취되지 않았다	16	8.0
보통이다	99	49.5
성취되었다	67	33.5
매우 성취되었다	14	7.0
합계	2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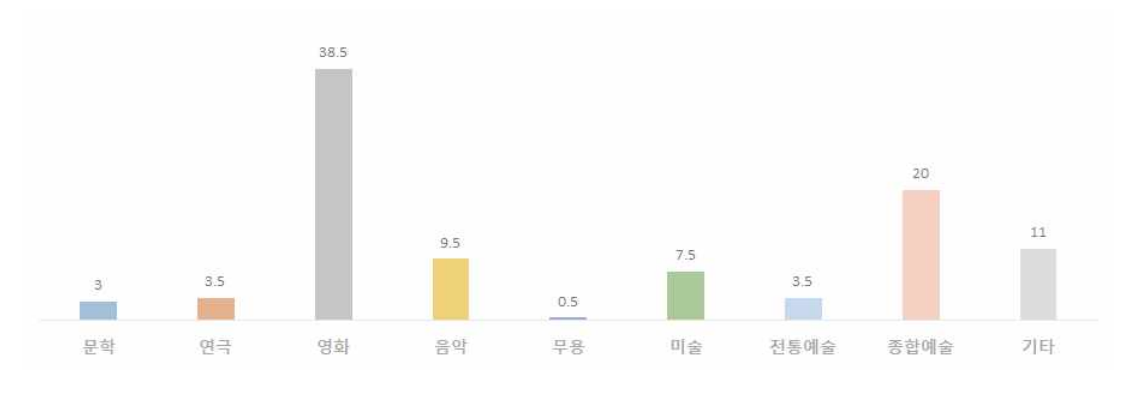


9) ‘문화융성’이 가장 크게 성취된 분야

- ‘문화융성’이 가장 크게 성취된 분야는 어디라고 보는가에 대한 응답으로, ‘영화’가 77명, 38.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종합예술’이 40명, 20.0%, ‘음악’이 19명, 9.5% ‘미술’이 15명, 7.5%, ‘기타’가 22명, 11.0%, ‘연극’과 ‘전통예술’이 각각 7명, 3.5%, ‘문학’이 6명, 3.0%, ‘무용’이 1명, 0.5%의 순으로 나타났다.
- 부산시가 영화의 도시로써 영화분야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영화와 관련된 시설이나 기관이 설립되고 운영되면서 ‘영화’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 향후 지역 문화예술의 기반조성과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문화예술의 공연시설이나 교육시설 등이 확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58] '문화융성'이 가장 성취된 분야

구분	빈도	비율(%)
문학	6	3.0
연극	7	3.5
영화	77	38.5
음악	19	9.5
무용	1	0.5
미술	15	7.5
전통예술	7	3.5
종합예술	40	20.0
기타	22	11.0
합계	2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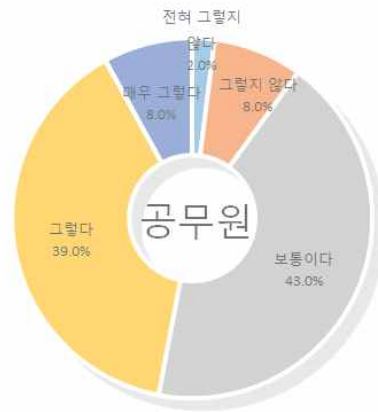


10) 부산시 문화예산의 합리적 집행 여부

- 부산시 문화예산 집행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응답으로, '보통이다'가 86명, 43.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그렇다'가 78명, 39.0%, '매우 그렇다'와 '그렇지 않다'가 각각 16명, 8.0%, '전혀 그렇지 않다'가 4명, 2.0%의 순으로 나타났다.
-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가 94명, 47.0%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의 20명, 10.0%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긍정적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보통이다'가 43.0%를 나타내고 있어, 부산시 문화예산의 집행 합리성에 대해 일부 유보적인 입장이 나타나고 있어, 이를 해소 할 수 있는 합리적 집행 방안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표 59] 부산시 문화예산집행의 합리성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4	2.0
그렇지 않다	16	8.0
보통이다	86	43.0
그렇다	78	39.0
매우 그렇다	16	8.0
합계	2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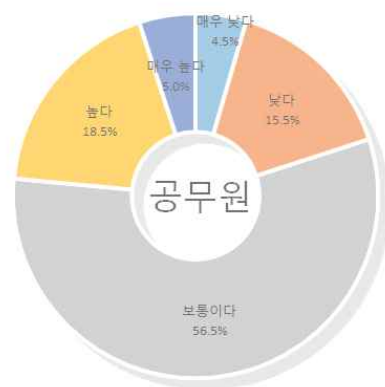


11) 부산시 문화분야 관련 기구 및 인력투입

- 부산시 문화분야 관련 기구 및 인력투입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에 대한 응답으로, '보통이다'가 113명, 56.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높다'가 37명, 18.5%, '낮다'가 31명, 15.5%, '매우 높다'가 10명, 5.0%, '매우 낮다'가 9명, 4.5%의 순으로 나타났다.
- '매우 높다'와 '높다'의 의견이 23.5%로 '매우 낮다'와 '낮다'의 의견 20.0%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그 차이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보통이다'가 56.5%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공무원의 입장에서 부산시의 문화분야에 대한 원활한 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못한 것으로, 향후 체계적인 지원 체계마련으로 관련 기구와 인력의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표 60] 부산시 문화분야 관련 기구 및 인력투입 수준

구분	빈도	비율(%)
매우 낮다	9	4.5
낮다	31	15.5
보통이다	113	56.5
높다	37	18.5
매우 높다	10	5.0
합계	2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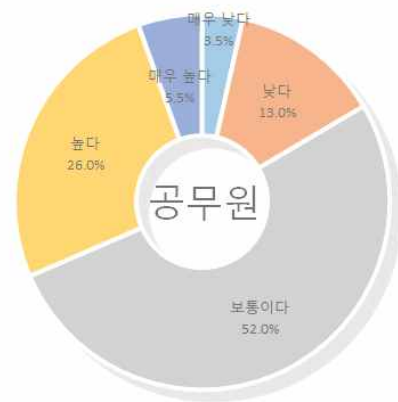


12) 부산시 문화분야 공무원의 전문성

- 부산시 문화분야 공무원의 전문성에 대한 의견으로 '보통이다'가 104명, 52.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높다'가 52명, 26.0%, '낮다'가 26명, 13.0%, '매우 높다'가 11명, 5.5%, '매우 낮다'가 7명, 3.5%의 순으로 나타났다.
- '매우 높다'와 '높다'의 의견이 63명, 31.5%로 '낮다'와 '매우 낮다'의 33명, 16.5%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고 있어 문화분야 공무원의 전문성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 부산시 문화분야에 대한 발전과 문화 및 예술가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며,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이나 전문가 영입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61] 부산시 문화분야 공무원의 전문성

구분	빈도	비율(%)
매우 낮다	7	3.5
낮다	26	13.0
보통이다	104	52.0
높다	52	26.0
매우 높다	11	5.5
합계	2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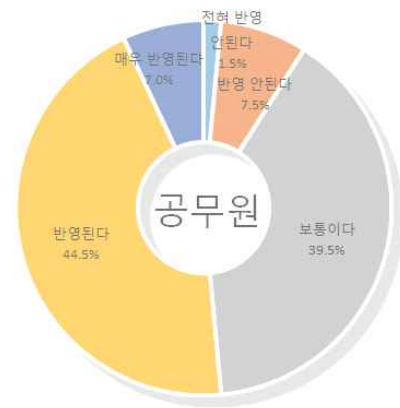


13) 부산시 문화정책 수립시 전문가·종사자 의견 반영도

- 부산시 문화정책 수립에 있어서 해당분야 전문가·종사자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되는가에 대한 응답으로, '반영된다'가 89명, 44.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보통이다'가 79명, 39.5%, '반영 안된다'가 15명, 7.5%, '매우 반영된다'가 14명, 7.0%, '전혀 반영 안된다'가 3명, 1.5%의 순으로 나타났다.
- '반영된다'와 '매우 반영된다'가 51.5%로 '반영 안된다'와 '전혀 반영 안된다'의 9.0%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전문가 및 종사자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 문화정책의 수립시에 전문가 및 종사자의 의견 수렴이 잘 진행되고 있으며, 적극적인 의견 반영을 통해서 합리적인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표 62] 부산시 문화정책 수립시 전문가·종사자 의견 반영도

구분	빈도	비율(%)
전혀 반영 안된다	3	1.5
반영 안된다	15	7.5
보통이다	79	39.5
반영된다	89	44.5
매우 반영된다	14	7.0
합계	2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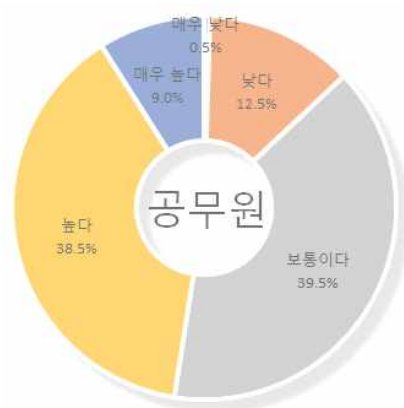


14) 부산시 문화시설(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등)의 활용도

- 부산시 문화시설(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등)의 활용도에 대한 의견으로 '보통이다'가 79명, 39.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높다'가 77명, 38.5%, '낮다'가 25명, 12.5%, '매우 높다'가 18명, 9.0%, '매우 낮다'가 1명, 0.5%의 순으로 나타났다.
- '높다'와 '매우 높다'의 의견이 47.5%로 '낮다'와 '매우 낮다'의 의견 13.0% 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부산시 문화시설의 활용도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만, '보통이다'라는 의견이 39.5%로 나타나고 있어 활용도에 대한 체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63] 부산시 문화시설(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등)의 활용도

구분	빈도	비율(%)
매우 낮다	1	0.5
낮다	25	12.5
보통이다	79	39.5
높다	77	38.5
매우 높다	18	9.0
합계	2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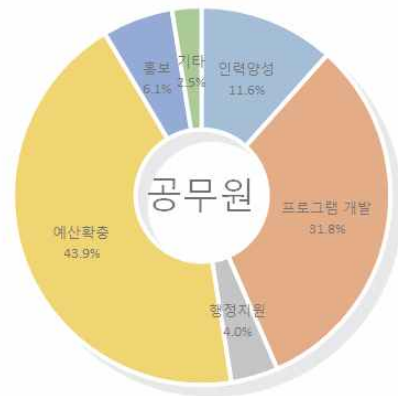


15) 부산시 문화시설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

- 부산시 문화시설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견으로 ‘예산확충’이 87명, 43.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프로그램 개발’이 63명, 31.5%, ‘인력양성’이 23명, 11.5%, ‘홍보’가 12명, 6.0%, ‘행정지원’이 8명, 4.0%, ‘기타’가 5명, 2.5%의 순으로 나타났다.
- 부산시 문화시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장 핵심 요소는 ‘예산확충’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문화시설 개선이나 확충, 다양한 문화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예산적 부분이 가장 핵심적 요소로 작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 64] 부산시 문화시설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

구분	빈도	비율(%)
인력양성	23	11.5
프로그램 개발	63	31.5
행정지원	8	4.0
예산확충	87	43.5
홍보	12	6.0
기타	5	2.5
합계	2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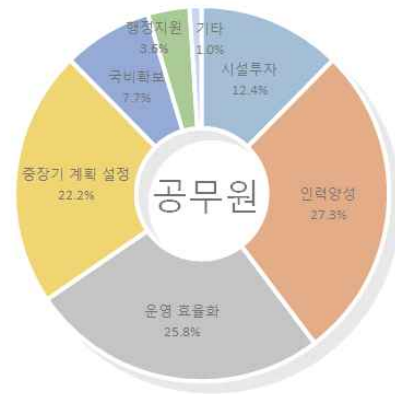


16) 부산시의 미래 문화비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

- 부산시의 미래 문화비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가에 대한 응답으로, ‘인력양성’이 53명, 26.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운영 효율화’가 50명, 25.0%, ‘중장기 계획 설정’이 43명, 21.5%, ‘시설투자’가 24명, 12.0%, ‘국비확보’가 15명, 7.5%, ‘행정지원’이 7명, 3.5%, ‘기타’가 2명, 1.0%의 순으로 나타났다.
- 미래의 문화비전을 위한 정책으로는 ‘인재양성’과 ‘운영 효율화’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장기적인 안목과 현재의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결과로 판단된다.
-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인재양성의 경우 현재부터 준비가 필요하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운영 효율화가 중요한 정책으로 도출되었다.
- 공무원의 입장에서 행정지원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인식하며, 공공의 행정지원 보다는 장기적인 접근을 통한 문화정책의 필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표 65] 부산시 미래 문화비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

구분	빈도	비율(%)
시설투자	24	12.0
인력양성	53	26.5
운영 효율화	50	25.0
중장기 계획 설정	43	21.5
국비확보	15	7.5
행정지원	7	3.5
기타	2	1.0
합계	200	100.0



17) 부산시 문화예술정책을 연구·개발하는 기관의 필요성

- 부산시 문화예술정책을 연구·개발하는 기관이 필요한가에 대한 응답으로는 ‘필요하다’가 111명, 55.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보통이다’가 45명, 22.5%, ‘매우 필요하다’가 28명, 14.0%, ‘필요 없다’가 11명, 5.5%, ‘전혀 필요 없다’가 5명, 2.5%의 순으로 나타났다.
- ‘필요하다’와 ‘매우 필요하다’가 69.5%로 부산시 문화예술정책의 연구·개발을 전담하는 기관에 대한 필요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문화예술정책을 연구·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나타내며, 장기적이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문화예술정책의 연구 및 개발이 진행되어야 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표 66] 부산시 문화예술정책을 연구·개발하는 기관의 필요성

구분	빈도	비율(%)
전혀 필요 없다	5	2.5
필요 없다	11	5.5
보통이다	45	22.5
필요하다	111	55.5
매우 필요하다	28	14.0
합계	2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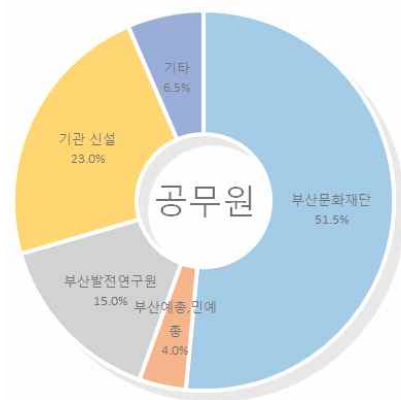


18) 문화예술정책 연구·개발 기관의 주체

- 문화예술정책 연구·개발 기관을 만든다면, 어디에 만들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응답으로, '부산문화재단'이 103명, 51.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기관 신설'이 46명, 23.0%, '부산발전연구원'이 30명, 15.0%, '기타'가 13명, 6.5%, '부산예총·민예총'이 8명, 4.0%의 순으로 나타났다.
- 현재 문화예술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부산문화재단이 문화예술정책 연구·개발 기관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나타났으나, 기관신설이나 부산발전연구원에 대한 의견도 일부 나타나고 있어 부산문화재단에 대한 역할수행에 있어 다소 미흡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인식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표 67] 문화예술정책 연구·개발 기관의 주체

구분	빈도	비율(%)
부산문화재단	103	51.5
부산예총·민예총	8	4.0
부산발전연구원	30	15.0
기관 신설	46	23.0
기타	13	6.5
합계	200	100.0



III. 시민

1. 관심분야

1) 문화예술에서 가장 관심 높은 분야

- 문화예술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에 대한 의견으로 '영화'가 98명, 49.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음악'이 44명, 22.0%, '연극'이 14명, 7.0%, '문학'과 '미술', '종합예술'이 각각 10명, 5.0%, '기타'가 8명, 4.0%, '전통예술'이 5명, 2.5%, '무용'이 1명, 0.5%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68] 문화예술에서 가장 관심 높은 분야

구분	빈도	비율(%)
문학	10	5.0
연극	14	7.0
영화	98	49.0
음악	44	22.0
무용	1	0.5
미술	10	5.0
전통예술	5	2.5
종합예술	10	5.0
기타	8	4.0
합계	200	100.0



2) 현장 참여도

-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에 대한 현장 참여도는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응답으로, '보통이다'가 99명, 49.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높다'가 60명, 30.0%, '낮다'가 22명, 11.0%, '매우 낮다'가 13명, 6.5%, '매우 높다'가 6명, 3.0%의 순으로 나타났다.
- '높다'와 '매우 높다'가 66명, 33.0%로 '낮다'와 '매우 낮다'의 35명, 17.5%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다만, '보통이다'의 응답이 49.5%를 차지하고 있어 적극적인 참여도는 보이지 못하고 있어, 향후 참여형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69] 현장 참여도

구분	빈도	비율(%)
매우 낮다	13	6.5
낮다	22	11.0
보통이다	99	49.5
높다	60	30.0
매우 높다	6	3.0
합계	2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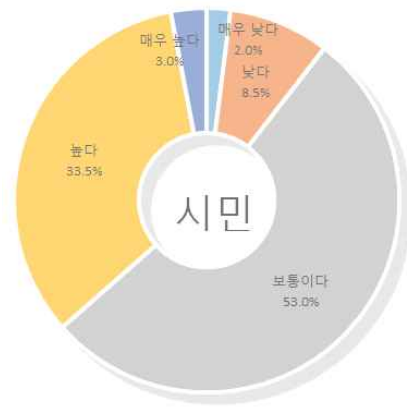


3) 현장 참여시 문화향유 만족도

- 현장 참여 때 문화향유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는 '보통이다'가 106명, 53.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높다'가 67명, 33.5%, '낮다'가 17명, 8.5%, '매우 높다'가 6명, 3.0%, '매우 낮다'가 4명, 2.0%의 순으로 나타났다.
- '높다'와 '매우 높다'가 73명, 36.5%로 '낮다'와 '매우 낮다'의 21명, 10.5%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고 있어 현장 참여시 문화향유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보통이다'라는 의견이 53.0%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문화향유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질적 수준의 향상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70] 문화향유의 만족도

구분	빈도	비율(%)
매우 낮다	4	2.0
낮다	17	8.5
보통이다	106	53.0
높다	67	33.5
매우 높다	6	3.0
합계	2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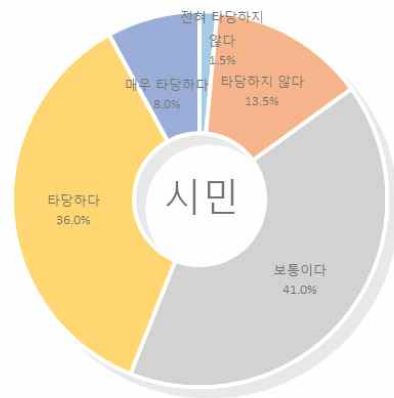
2. 문화도시 기반 조성 정책에 대한 인식도 및 만족도

1) 오페라하우스 건립 사업의 타당성 여부

-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오페라하우스 건립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응답으로, '보통이다'가 가장 많은 82명, 41.0%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타당하다'가 72명, 36.0%, '타당하지 않다'가 27명, 13.5%, '매우 타당하다'가 16명, 8.0%, '전혀 타당하지 않다'가 3명, 1.5%의 순으로 나타났다.
- '타당하다'와 '매우 타당하다'가 88명, 44.0%를 나타내고 있어 오페라하우스 건립 사업의 타당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 오페라하우스 건립 사업의 타당성

구분	빈도	비율(%)
전혀 타당하지 않다	3	1.5
타당하지 않다	27	13.5
보통이다	82	41.0
타당하다	72	36.0
매우 타당하다	16	8.0
합계	2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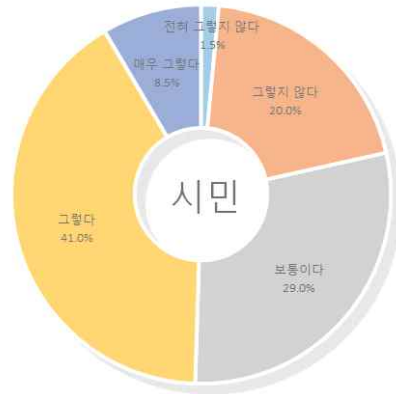


2) 오페라하우스가 부산의 랜드마크 문화관광 거점시설로 활용 가능성

- 오페라하우스가 부산의 랜드마크로서 문화관광 거점시설이 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응답으로, '그렇다'가 82명, 41.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보통이다'가 58명, 29.0%, '그렇지 않다'가 40명, 20.0%, '매우 그렇다'가 17명, 8.5%, '전혀 그렇지 않다'가 3명, 1.5%의 순으로 나타났다.
-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가 99명, 49.5%를 나타내고 있어 오페라하우스가 부산의 새로운 랜드마크 문화관광 거점시설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라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표 72] 오페라하우스의 문화관광 거점시설 활용 가능성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3	1.5
그렇지 않다	40	20.0
보통이다	58	29.0
그렇다	82	41.0
매우 그렇다	17	8.5
합계	2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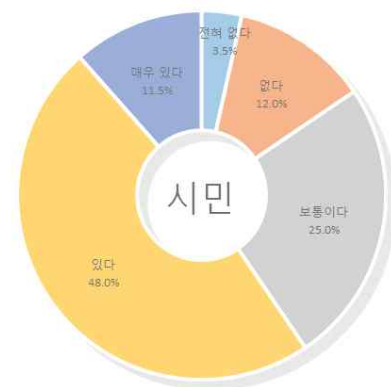


3) 오페라하우스 참관 의향

- 오페라하우스에서는 오페라·무용(발레)·뮤지컬 등이 무대에 상영될 예정으로, 이에 참관할 의향에 대한 응답으로, '있다'가 96명, 48.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보통이다'가 50명, 25.0%, '없다'가 24명, 12.0%, '매우 있다'가 23명, 11.5%, '전혀 없다'가 7명, 3.5%의 순으로 나타났다.
- '있다'와 '매우 있다'의 응답이 119명, 59.5%로 오페라하우스 건립시 참관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3] 오페라하우스 참관 의향

구분	빈도	비율(%)
전혀 없다	7	3.5
없다	24	12.0
보통이다	50	25.0
있다	96	48.0
매우 있다	23	11.5
합계	2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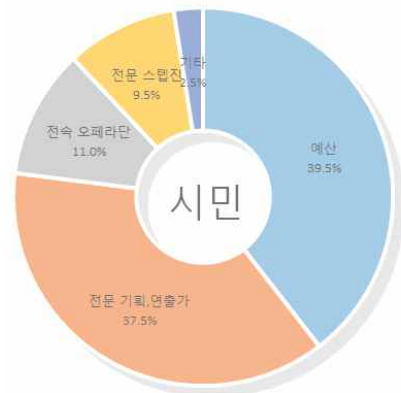


4) 오페라하우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 오페라하우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응답으로, '예산'이 79명, 39.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문기획, 연출가'가 75명, 37.5%, '전속 오페라단'이 22명, 11.0%, '전문 스텝진'이 19명, 9.5%, '기타'가 5명, 2.5%의 순으로 나타났다.
- '예산'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오페라하우스의 수준 높은 운영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예산의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문화공연 등이 예산 부족으로 파행되는 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으로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 '전문기획, 연출가'에 대한 응답이 높은 것은 오페라의 특성상 공연의 질적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기획이나 연출에 대한 중요도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74] 오페라하우스 효율적 운영 요소

구분	빈도	비율(%)
예산	79	39.5
전문기획,연출가	75	37.5
전속 오페라단	22	11.0
전문 스텝진	19	9.5
기타	5	2.5
합계	2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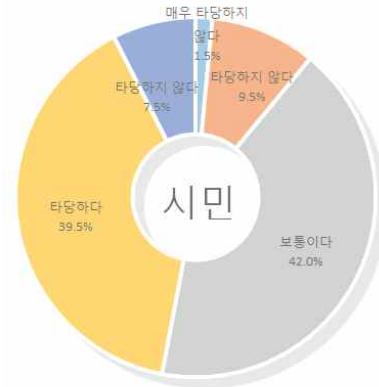


5) 부산국제아트센터 건립 타당성 여부

-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부산국제아트센터 건립 사업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응답으로, '보통이다'가 가장 많은 84명, 42.0%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타당하다'가 79명, 39.5%, '타당하지 않다'가 19명, 9.5%, '매우 타당하다'가 15명, 7.5%, '매우 타당하지 않다'가 3명, 1.5%의 순으로 나타났다.
- '타당하다'와 '매우 타당하다'가 94명, 47.0%를 나타내고 있어 부산국제아트센터 건립 타당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5] 부산국제아트센터 건립 타당성

구분	빈도	비율(%)
매우 타당하지 않다	3	1.5
타당하지 않다	19	9.5
보통이다	84	42.0
타당하다	79	39.5
매우 타당하다	15	7.5
합계	2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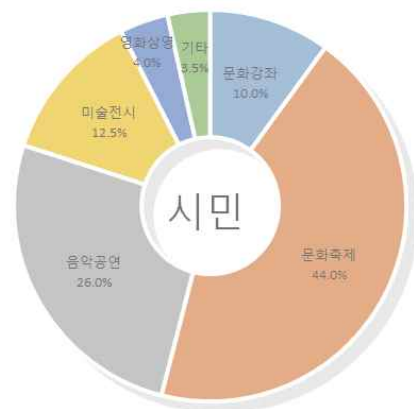


6) 국제아트센터의 가장 중요한 기능

- 국제아트센터의 기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문화축제’가 88명, 44.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음악공연’이 52명, 26.0%, ‘미술전시’가 25명, 12.5%, ‘문화강좌’가 20명, 10.0%, ‘영화상영’이 8명, 4.0%, ‘기타’가 7명, 3.5%의 순으로 나타났다.
- ‘문화축제’와 ‘음악공연’이 다른 기능에 비해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문화축제나 음악공연에 대한 관심이 높으나, 그에 맞는 시설은 부족하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 ‘미술전시’는 부산에 다양한 미술전시 공간이 생겨나면서 그 수요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영화상영’의 경우 부산시내에 다양한 영화관람시설이 분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요는 매우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표 76] 부산국제아트센터의 중요 기능

구분	빈도	비율(%)
문화강좌	20	10.0
문화축제	88	44.0
음악공연	52	26.0
미술전시	25	12.5
영화상영	8	4.0
기타	7	3.5
합계	2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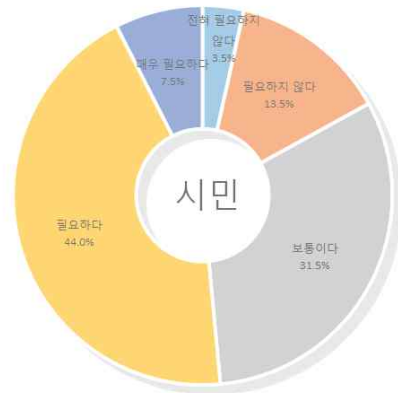


7) 클래식 전용홀의 필요성

- 현재 부산에는 클래식 전용 콘서트홀이 없는 실정에서 클래식 전용홀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으로 '필요하다'가 88명, 44.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보통이다'가 63명, 31.5%, '필요하지 않다'가 27명, 13.5%, '매우 필요하다'가 15명, 7.5%, '전혀 필요하지 않다'가 7명, 3.5%의 순으로 나타났다.
- '필요하다'와 '매우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103명, 51.5%로 클래식 전용홀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오페라하우스와 국제아트센터의 건립 타당성에 비해서 클래식 전용홀의 필요성을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7] 클래식 전용홀의 필요성

구분	빈도	비율(%)
전혀 필요하지 않다	7	3.5
필요하지 않다	27	13.5
보통이다	63	31.5
필요하다	88	44.0
매우 필요하다	15	7.5
합계	2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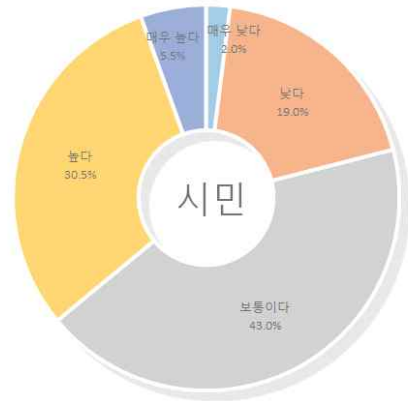


8) 클래식 전용 콘서트홀의 활용도

- 클래식 전용 콘서트홀은 2,000석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전용 콘서트홀의 활용도에 대한 응답으로는 '보통이다'가 86명, 43.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높다'가 61명, 30.5%, '낮다'가 38명, 19.0%, '매우 높다'가 11명, 5.5%, '매우 낮다'가 4명, 2.0%의 순으로 나타났다.
- '높다'와 '매우 높다'가 36.0%로 '낮다'와 '매우 낮다'의 21.0%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고 있어 활용도가 다소 높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 다만, '보통이다'의 의견이 43.0%로 클래식 전용 콘서트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고 있으나 그 활용성에 대해서는 다소 부족하여 다양한 활용방안에 대한 방안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78] 클래식 전용 콘서트홀의 활용도

구분	빈도	비율(%)
매우 낮다	4	2.0
낮다	38	19.0
보통이다	86	43.0
높다	61	30.5
매우 높다	11	5.5
합계	2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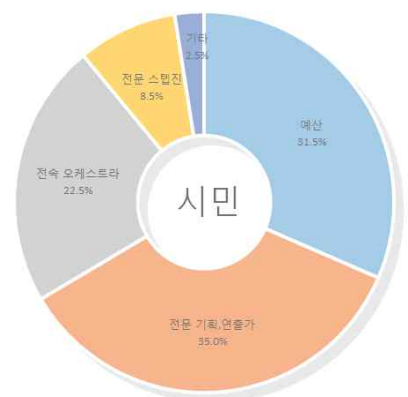


9) 클래식 전용 콘서트홀의 효율적 운영에 가장 필요한 요소

- 클래식 전용 콘서트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전문기획, 연출가'가 70명, 35.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예산'이 63명, 31.5%, '전속 오케스트라'가 45명, 22.5%, '전문 스텝진'이 17명, 8.5%, '기타'가 5명, 2.5%의 순으로 나타났다.
- 오페라하우스에서는 '예산'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클래식 전용 콘서트홀에서는 공연의 질적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기획과 연출가'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예산'의 경우에서도 오페라하우스에 비해서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전속 오케스트라'에 대한 비중은 '전속 오페라단' 11.0%에 비해 22.5%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79] 클래식 전용 콘서트홀의 효율적 운영 요소

구분	빈도	비율(%)
예산	63	31.5
전문기획,연출가	70	35.0
전속 오케스트라	45	22.5
전문 스텝진	17	8.5
기타	5	2.5
합계	200	100.0



3. 시민 생활문화 확산 정책에 대한 인식도 및 만족도

1) ‘문화가 있는 날’ 현장 참여 여부

- ‘문화가 있는 날’ 현장에 참여한 여부에서는 ‘없다’라는 응답이 135명, 67.5%로 가장 높았고, ‘있다’가 65명, 32.5%로 나타났다.
- ‘문화가 있는 날’에 참여한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어 시민들은 ‘문화가 있는 날’에 대한 참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다양한 문화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80] ‘문화가 있는 날’ 현장 참여 여부

구분	빈도	비율(%)
없다	135	67.5
있다	65	32.5
합계	2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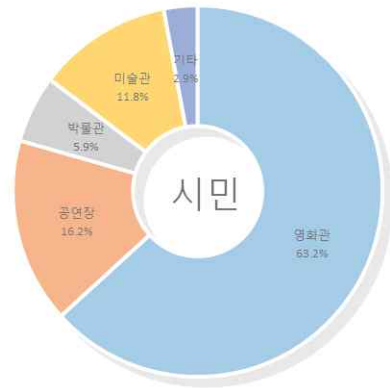


2) ‘문화가 있는 날’ 현장 참여 장소

- ‘문화가 있는 날’ 현장에 참여한 곳은 어디인가에 대한 전체응답(68명, 중복응답 포함) 중에서 ‘영화관’이 43명, 63.2%로 가장 많았고, ‘공연장’ 11명, 16.2%, ‘미술관’ 8명, 11.8%, ‘박물관’이 4명, 5.9%. ‘기타’가 2명, 2.9%의 순으로 나타났다.
- ‘문화가 있는 날’의 행사를 가장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영화관’이 가장 많은 참여 장소로 나타났으며, 이외의 장소는 참여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박물관’이나 ‘도서관’의 참여 장소 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 다양한 문화행사의 추진으로 관람객을 유입할 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81] '문화가 있는 날' 현장 참여 장소

구분	빈도	비율(%)
영화관	43	63.2
공연장	11	16.2
박물관	4	5.9
미술관	8	11.8
도서관	0	0.0
기타	2	2.9
합계	6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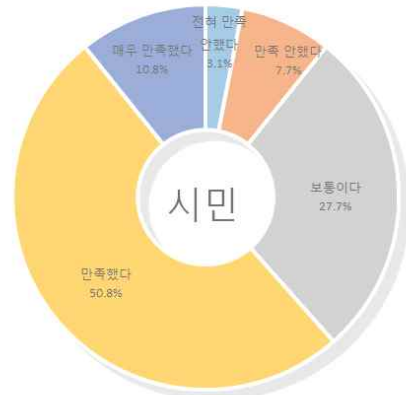


3) '문화가 있는 날' 현장 참여시 문화향유 만족도

- '문화가 있는 날' 현장에 참여한 경우 문화향유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전체 응답 (65명) 중에서 '만족됐다'가 33명, 50.8%로 가장 높았고, '보통이다'가 18명, 27.7%, '매우 만족됐다'가 7명, 10.8%, '만족 안했다'가 5명, 7.7%, '전혀 만족 안했다'가 2명, 3.1%의 순으로 나타났다.
- '만족됐다'와 '매우 만족됐다'가 40명, 61.6%로 '문화가 있는 날' 참여에 따른 문화향유에 다수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었다.
- 참여자의 다수가 문화향유에 대한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어서, 향후 참여자의 확대와 참여 증진을 위한 방안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82] '문화가 있는 날' 현장 참여시 문화향유 만족도

구분	빈도	비율(%)
전혀 만족 안했다	2	3.1
만족 안했다	5	7.7
보통이다	18	27.7
만족됐다	33	50.8
매우 만족됐다	7	10.8
합계	6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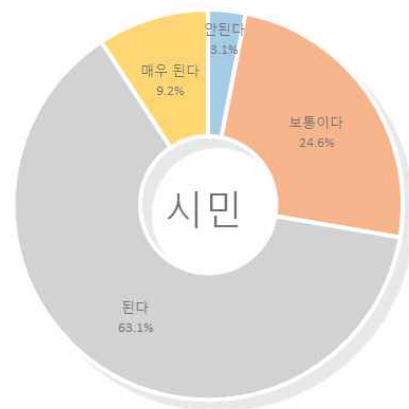


4)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이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정도

-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한 전체응답(65명) 중에서 '된다'가 41명, 63.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보통이다'가 16명, 24.6%, '매우 된다'가 6명, 9.2%, '안된다'가 2명, 3.1%의 순으로 나타났다.
- '된다'와 '매우 된다'가 47명, 72.3%로 나타나고 있어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문화향유 만족도(61.6%)에 비해서 긍정적 평가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문화가 있는 날'에 대한 참여 자체만으로도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으로 판단된다.
- 이는 '문화가 있는 날'에서 수행하는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의 향상도 매우 중요하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참여의 폭을 확대하고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 '문화가 있는 날'에 참여하는 기관이나 주체가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적극적인 홍보와 기간의 확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83]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의 삶의 질 향상 기여도

구분	빈도	비율(%)
전혀 안된다	0	0.0
안된다	2	3.1
보통이다	16	24.6
된다	41	63.1
매우 된다	6	9.2
합계	65	100.0



5) '문화가 있는 날'이 지역문화·예술가에 대한 경제적 기여 정도

- '문화가 있는 날'이 지역문화·예술가에게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한 전체응답(65명) 중에서 '된다'가 23명, 35.4%로 가장 높았고, '보통이다'가 22명, 33.8%, '안된다'가 14명, 21.5%, '매우 된다'가 6명, 9.2%의 순으로 나타났다.

- ‘된다’와 ‘매우 된다’의 응답이 29명, 44.6%로 지역문화·예술가의 경제적인 기여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 그러나 ‘보통이다’의 의견이 33.8%이고, ‘안된다’의 의견이 21.5%로 나타나고 있어, ‘문화가 있는 날’이 지역 문화·예술가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민들이 이를 참여하면서 지역문화·예술가에게도 경제적 기여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84] ‘문화가 있는 날’의 지역문화·예술가 경제적 기여도

구분	빈도	비율(%)
전혀 안된다	0	0.0
안된다	14	21.5
보통이다	22	33.8
된다	23	35.4
매우 된다	6	9.2
합계	6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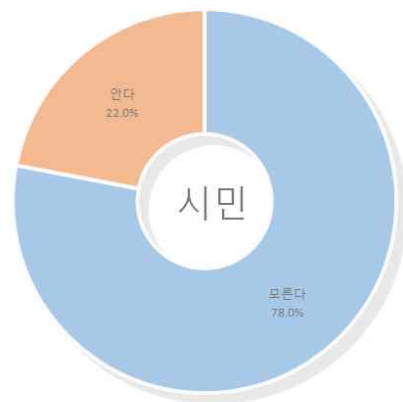
4. 예술창작 환경 조성 정책에 대한 인식도 및 만족도

1) 부산문화재단 인지도

- 부산문화재단에 대한 인지도를 물어본 결과, ‘모른다’가 156명, 78.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안다’가 44명, 22.0%로 나타났다.
- 대부분의 시민들은 부산문화재단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부산문화재단에 대한 기관 홍보나 다양한 정책마련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85] 부산문화재단 인지도

구분	빈도	비율(%)
모른다	156	78.0
안다	44	22.0
합계	2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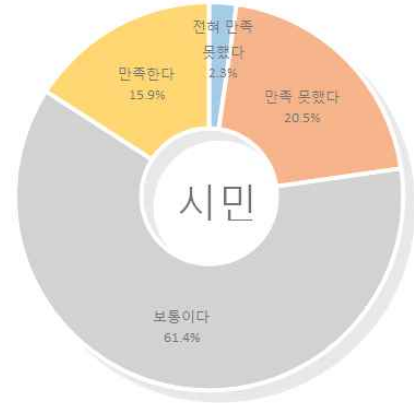


2) 부산문화재단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만족도

- 부산문화재단을 인지할 경우에 부산문화재단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다’가 27명, 64.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만족 못했다’가 9명, 20.5%, ‘만족한다’가 7명, 15.9%, ‘전혀 만족하지 못했다’가 1명, 2.3%로 나타났다.
- ‘만족 못했다’와 ‘전혀 만족하지 못했다’가 22.8%로 ‘만족한다’의 15.9%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어, 부산문화재단의 기능과 역할에 전반적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보통이다’가 61.4%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부산문화재단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재검토와 함께 시민에 대한 홍보가 적절하게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86] 부산문화재단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만족도

구분	빈도	비율(%)
전혀 만족 못했다	1	2.3
만족 못했다	9	20.5
보통이다	27	61.4
만족한다	7	15.9
매우 만족한다	0	0.0
합계	4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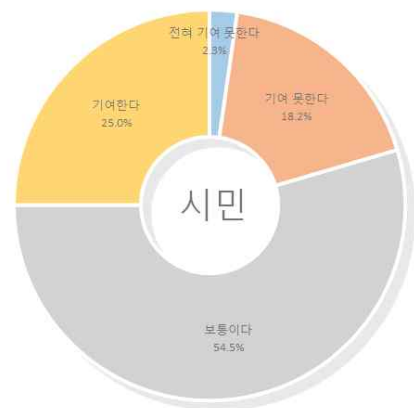


3) 부산문화재단의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기여도

- 부산문화재단이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가에 대한 응답으로 ‘보통이다’가 24명, 54.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여한다’가 11명, 25.0%, ‘기여 못한다’가 8명, 18.2%, ‘전혀 기여 못한다’가 1명, 2.3%로 나타났다.
- ‘기여한다’가 25.0%로 ‘기여 못한다’와 ‘전혀 기여 못한다’의 20.5%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그 차이는 매우 미비한 수준이며,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54.5%로 부산문화재단의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지는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부산문화재단이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함에 있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전략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87] 부산문화재단의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기여도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기여 못한다	1	2.3
기여 못한다	8	18.2
보통이다	24	54.5
기여한다	11	25.0
매우 기여한다	0	0.0
합계	4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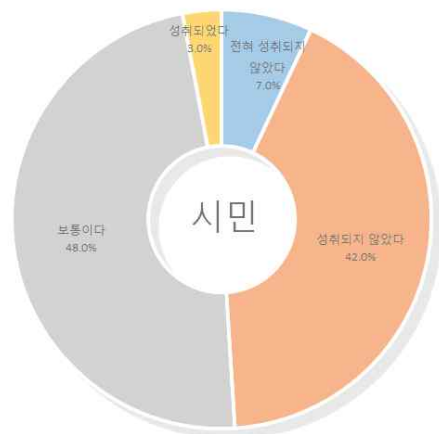


4) 민선6기 부산시 ‘문화융성’ 비전의 성취도

- 민선6기 부산시는 ‘문화융성’을 비전으로 삼고 있으며, 이에 현재 어느 정도 성취되었다고 보는가에 대한 응답으로, ‘보통이다’가 96명, 48.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성취되지 않았다’가 84명, 42.0%, ‘전혀 성취되지 않았다’가 14명, 7.0%, ‘성취되었다’가 6명, 3.0%의 순으로 나타났다.
- ‘매우 성취되었다’라는 응답은 없었으며, ‘성취되었다’도 3.0%로 ‘성취되지 않았다’와 ‘전혀 성취되지 않았다’의 49.0%에 비해 매우 낮아 부산시의 문화정책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부산시 ‘문화융성’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문화융성에 대해서 잘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부산시의 문화정책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된다.

[표 88] 부산시 ‘문화융성’ 비전의 성취도

구분	빈도	비율(%)
전혀 성취되지 않았다	14	7.0
성취되지 않았다	84	42.0
보통이다	96	48.0
성취되었다	6	3.0
매우 성취되었다	0	0.0
합계	2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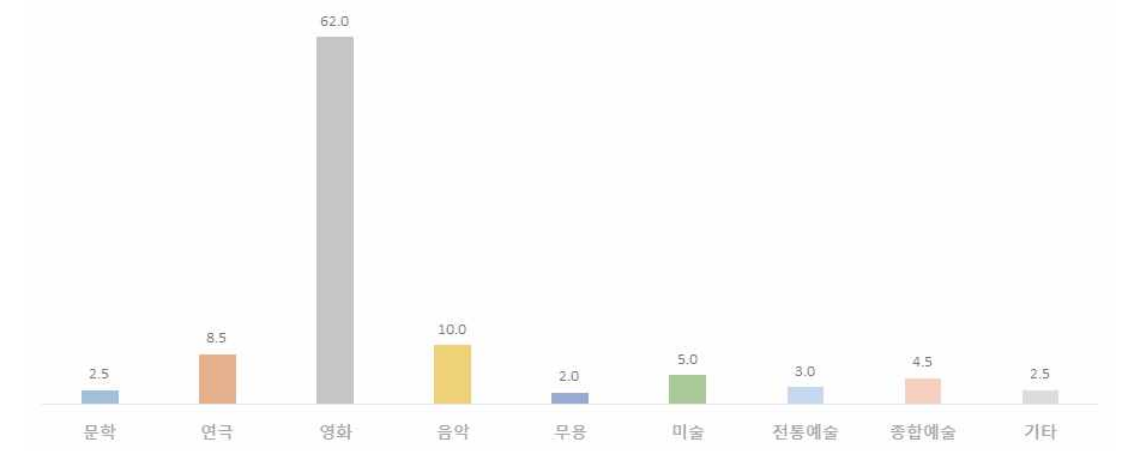
5) 문화예술의 변화와 발전이 가장 크게 이루어진 분야

- 문화예술의 변화와 발전이 가장 크게 이루어진 분야는 어디라고 보는가에 대한 응답으로, ‘영화’가 124명, 62.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음악’이 20명, 10.0%, ‘연극’이 17명, 8.5%, ‘미술’이 10명, 5.0%, ‘종합예술’이 9명, 4.5%, ‘전통예술’이 6명, 3.0%, ‘문학’과 ‘기타’가 각각 5명, 2.5%, ‘무용’이 4명, 2.0%의 순으로 나타났다.

- 부산시가 영화의 도시로써 영화분야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영화와 관련된 시설이나 기관이 설립되고 운영되면서 ‘영화’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 ‘연극’의 경우 ‘영화’ 다음으로 높은 순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부산에서 연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소극장이 늘어나고 연극 공연 등이 활발하게 진행된 결과로 볼 수 있다.
- 그러나 영화로 편중된 결과로 인해 향후 지역 문화예술의 기반조성과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문화예술의 공연시설이나 교육시설 등이 확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89] ‘문화융성’이 가장 성취된 분야

구분	빈도	비율(%)
문학	5	2.5
연극	17	8.5
영화	124	62.0
음악	20	10.0
무용	4	2.0
미술	10	5.0
전통예술	6	3.0
종합예술	9	4.5
기타	5	2.5
합계	200	100.0



6) 부산시 문화분야 공무원의 전문성

- 부산시 문화분야 공무원의 전문성에 대한 의견으로 '보통이다'가 103명, 51.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낮다'가 66명, 33.0%, '매우 낮다'가 19명, 9.5%, '높다'가 10명, 5.0%, '매우 높다'가 2명, 1.0%의 순으로 나타났다.
- '매우 낮다'와 '낮다'의 의견이 85명, 42.5%로 '높다'와 '매우 높다'의 12명, 6.0%에 비해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문화분야 공무원의 전문성을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부산시 문화분야에 대한 발전과 문화 및 예술가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며,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이나 전문가 영입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90] 부산시 문화분야 공무원의 전문성

구분	빈도	비율(%)
매우 낮다	19	9.5
낮다	66	33.0
보통이다	103	51.5
높다	10	5.0
매우 높다	2	1.0
합계	2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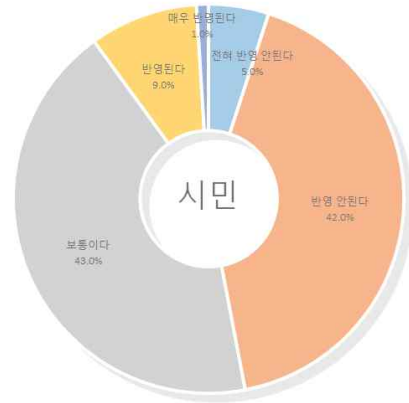


7) 부산시 문화정책 수립시 일반 시민의 의견 반영도

- 부산시 문화정책 수립에 있어서 시민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되는가에 대한 응답으로, '보통이다'가 86명, 43.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반영 안된다'가 84명, 42.0%, '반영된다'가 18명, 9.0%, '전혀 반영 안된다'가 10명, 5.0%, '매우 반영된다'가 2명, 1.0%의 순으로 나타났다.
- '반영 안된다'와 '전혀 반영 안된다'가 47.0%로 '반영된다'와 '매우 반영된다'의 10.0%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시민의 의견 반영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보통이다'의 의견이 43.0%로 이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의견 반영에 대해서 크게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91] 부산시 문화정책 수립시 시민의 의견 반영도

구분	빈도	비율(%)
전혀 반영 안된다	10	5.0
반영 안된다	84	42.0
보통이다	86	43.0
반영된다	18	9.0
매우 반영된다	2	1.0
합계	2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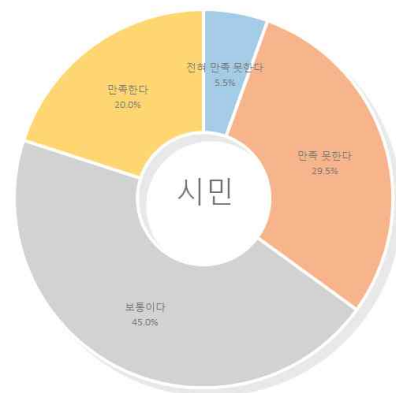


8) 부산시 문화시설(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등)에 대한 만족도

- 부산시 문화시설(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등)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의견으로 '보통이다'가 90명, 45.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만족 못한다'가 59명, 29.5%, '만족한다'가 40명, 20.0%, '전혀 만족 못한다'가 11명, 5.5%의 순으로 나타났다.
- '만족한다'의 의견이 20.0%로 '만족 못한다'와 '전혀 만족 못한다'의 의견 35.0% 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어 부산시 문화시설의 만족도는 대체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또한, '보통이다'라는 의견이 45.0%로 크게 나타나고 있어 만족도에 대한 체감이 크지 못하고 있어 향후 부산시 문화시설의 시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92] 부산시 문화시설(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등)에 대한 만족도

구분	빈도	비율(%)
전혀 만족 못한다	11	5.5
만족 못한다	59	29.5
보통이다	90	45.0
만족한다	40	20.0
매우 만족한다	0	0.0
합계	200	100.0



9) 부산시 문화시설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

- 부산시 문화시설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견으로 '예산확충'이 65명, 32.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프로그램 개발'이 61명, 30.5%, '홍보'가 33명, 16.5%, '인력양성'이 27명, 13.5%, '행정지원'이 13명, 6.5%, '기타'가 1명, 0.5%의 순으로 나타났다.
- 부산시 문화시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장 핵심 요소는 '예산확충'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문화시설 개선이나 확충, 다양한 문화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예산적 부분이 가장 핵심적 요소로 작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 93] 부산시 문화시설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

구분	빈도	비율(%)
인력양성	27	13.5
프로그램 개발	61	30.5
행정지원	13	6.5
예산확충	65	32.5
홍보	33	16.5
기타	1	0.5
합계	2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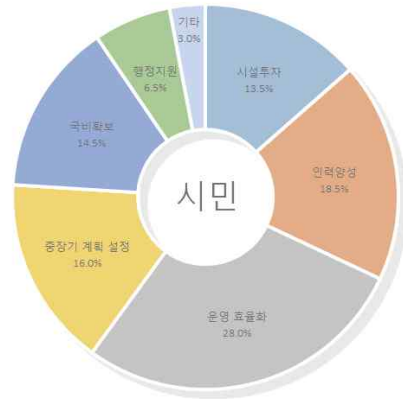


10) 부산시의 미래 문화비전을 위한 필요 정책

- 부산시의 미래 문화비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가에 대한 응답으로, '운영 효율화'가 56명, 28.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인력양성'이 37명, 18.5%, '중장기 계획 설정'이 32명, 16.0%, '국비확보'가 29명, 14.5%, '시설투자'가 27명, 13.5%, '행정지원'이 13명, 6.5%, '기타'가 6명, 3.0%의 순으로 나타났다.
- 시민들은 부산시의 미래 문화비전을 위해서는 '운영 효율화'를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문화정책들이 비합리적인 운영을 통해서 미흡한 결과를 나타냈다고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 '운영 효율화' 다음으로 '인력양성'과 '중장기 계획 설정'이 높게 나타난 것은 미래를 위해서 체계적인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함이 중요함을 나타낸다.

[표 94] 부산시 미래 문화비전을 위한 필요 정책

구분	빈도	비율(%)
시설투자	27	13.5
인력양성	37	18.5
운영 효율화	56	28.0
중장기 계획 설정	32	16.0
국비확보	29	14.5
행정지원	13	6.5
기타	6	3.0
합계	2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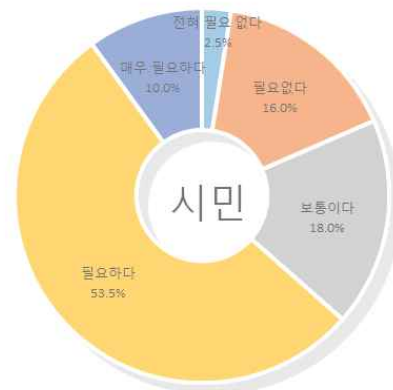


11) 부산시 문화예술정책을 연구·개발하는 기관의 필요성

- 부산시 문화예술정책을 연구·개발하는 기관이 필요한가에 대한 응답으로는 ‘필요하다’가 107명, 53.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보통이다’가 36명, 18.0%, ‘필요 없다’가 32명, 16.0%, ‘매우 필요하다’가 20명, 10.0%, ‘전혀 필요 없다’가 5명, 2.5%의 순으로 나타났다.
- ‘필요하다’와 ‘매우 필요하다’가 63.5%로 부산시 문화예술정책의 연구·개발을 전담하는 기관에 대한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문화예술정책을 연구·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나타내며, 장기적이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문화예술정책의 연구 및 개발이 진행되어야 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표 95] 부산시 문화예술정책을 연구·개발하는 기관의 필요성

구분	빈도	비율(%)
전혀 필요 없다	5	2.5
필요 없다	32	16.0
보통이다	36	18.0
필요하다	107	53.5
매우 필요하다	20	10.0
합계	2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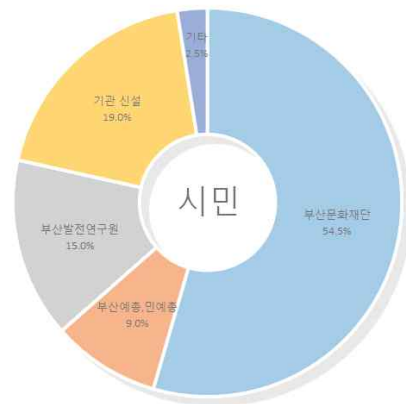


12) 문화예술정책 연구·개발 기관의 주체

- 문화예술정책 연구·개발 기관을 만든다면, 어디에 만들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응답으로, ‘부산문화재단’이 109명, 54.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기관 신설’이 38명, 19.5%, ‘부산발전연구원’이 30명, 15.0%, ‘부산예총·민예총’이 18명, 9.0%, ‘기타’가 5명, 2.5%의 순으로 나타났다.
- 현재 부산시 문화예술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부산문화재단이 문화예술정책 연구·개발 기관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나타났으나, 기관신설이나 부산발전연구원에 대한 의견도 일부 나타나고 있어 부산문화재단에 대한 역할수행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할 것이다.

[표 96] 문화예술정책 연구·개발 기관의 주체

구분	빈도	비율(%)
부산문화재단	109	54.5
부산예총·민예총	18	9.0
부산발전연구원	30	15.0
기관 신설	38	19.0
기타	5	2.5
합계	200	100.0



IV. 종합 비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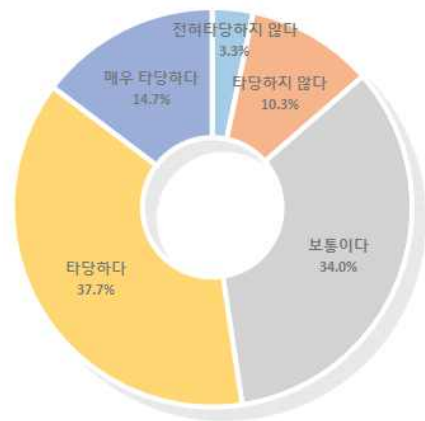
1. 문화도시 기반 조성 정책에 대한 인식도 및 만족도

1) 오페라하우스 건립 사업의 타당성 여부

-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오페라하우스 건립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응답으로, '타당하다'가 가장 많은 232명, 38.7%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보통이다'가 197명, 32.8%, '매우 타당하다'가 87명, 14.5%, '타당하지 않다'가 64명, 10.7%, '전혀 타당하지 않다'가 20명, 3.3%의 순으로 나타났다.
- '타당하다'와 '매우 타당하다'가 53.2%를 나타내고 있어 오페라하우스 건립 사업의 타당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7] 오페라하우스 건립 사업의 타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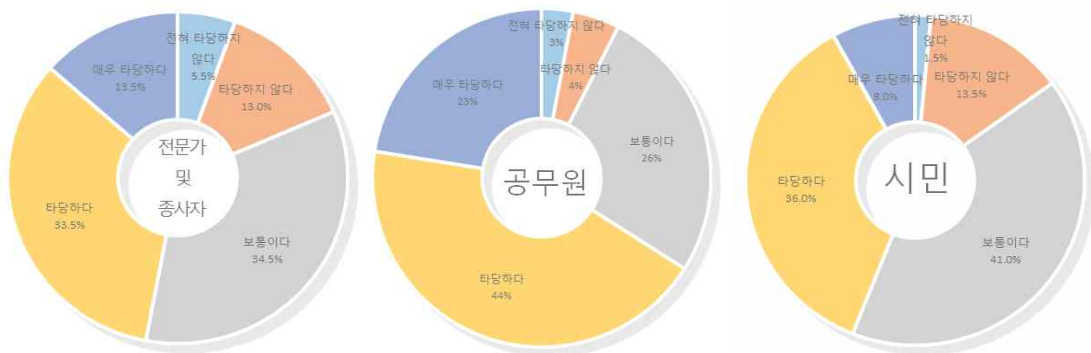
구분	빈도	비율(%)
전혀 타당하지 않다	20	3.3
타당하지 않다	62	10.3
보통이다	204	34.0
타당하다	226	37.7
매우 타당하다	88	14.7
합계	600	100.0



- 응답자별로 보면, 전문가 및 종사자와 시민은 '보통이다'의 의견이 각각 34.5%, 41.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공무원은 '타당하다'가 43.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공무원들이 오페라하우스 건립 사업을 전문가 및 종사자와 시민들에 비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표 98] 오페라하우스 건립 사업의 타당성(응답자별 비율(%))

구분	전문가 및 종사자		공무원		시민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혀 타당하지 않다	11	1.8	6	1.0	3	0.5	20	3.3
타당하지 않다	26	4.3	9	1.5	27	4.5	62	10.3
보통이다	69	11.5	53	8.8	82	13.7	204	34.0
타당하다	67	11.2	87	14.5	72	12.0	226	37.7
매우 타당하다	27	4.5	45	7.5	16	2.7	88	14.7
합계	200	33.3	200	33.3	200	33.3	6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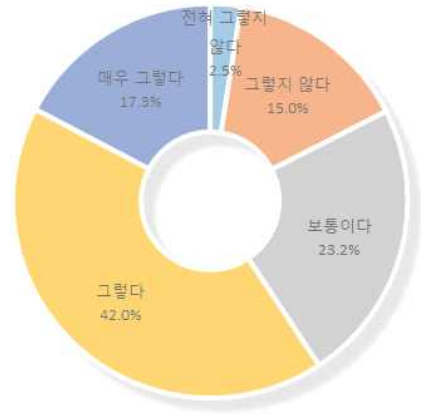


2) 오페라하우스가 부산의 랜드마크 문화관광 거점시설로서 활용 가능성

- 오페라하우스가 부산의 랜드마크로서 문화관광 거점시설이 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응답으로, ‘그렇다’가 256명, 42.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보통이다’가 135명, 22.5%, ‘매우 그렇다’가 103명, 17.2%, ‘그렇지 않다’가 91명, 15.2%, ‘전혀 그렇지 않다’가 15명, 2.5%의 순으로 나타났다.
-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가 59.9%를 나타내고 있어 오페라하우스가 부산의 새로운 랜드마크 문화관광 거점시설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라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 응답자별로 보면, 공무원들이 활용 가능성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다소 유보적이거나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높았다.
- 향후, 오페라하우스를 활용함에 있어서 부산시의 새로운 랜드마크의 문화관광 거점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부산시 차원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99] 오페라하우스의 문화관광 거점시설 활용 가능성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15	2.5
그렇지 않다	90	15.0
보통이다	139	23.2
그렇다	252	42.0
매우 그렇다	104	17.3
합계	600	100.0



[표 100] 오페라하우스의 문화관광 거점시설 활용 가능성(응답자별 비율(%))

구분	전문가 및 종사자		공무원		시민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6	1.0	6	1.0	3	0.5	15	2.5
그렇지 않다	37	6.2	13	2.2	40	6.7	90	15.0
보통이다	44	7.3	37	6.2	58	9.7	139	23.2
그렇다	81	13.5	89	14.8	82	13.7	252	42.0
매우 그렇다	32	5.3	55	9.2	17	2.8	104	17.3
합계	200	33.3	200	33.3	200	33.3	600	100.0



3) 오페라하우스 참관 의향

- 오페라하우스에서는 오페라·무용(발레)·뮤지컬 등이 무대에 상영될 예정으로, 이에 참관할 의향에 대한 응답으로, '있다'가 285명, 47.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

부산시 문화정책에 대한 인식도 및 만족도 조사

음으로 '매우 있다'가 133명, 22.2%, '보통이다'가 114명, 19.0%, '없다'가 54명, 9.0%, '전혀 없다'가 14명, 2.3%의 순으로 나타났다.

- '있다'와 '매우 있다'의 응답이 69.7%로 오페라하우스 건립시 참관 의향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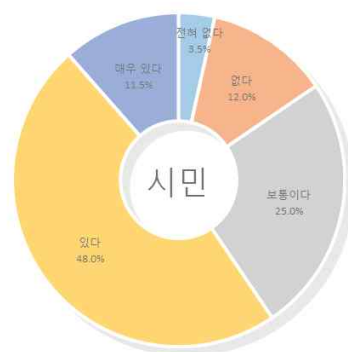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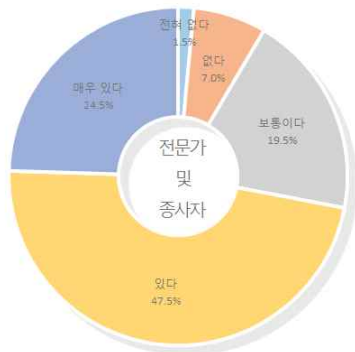
[표 101] 오페라하우스 참관 의향

구분	빈도	비율(%)
전혀 없다	15	2.5
없다	51	8.5
보통이다	119	19.8
있다	281	46.8
매우 있다	134	22.3
합계	600	100.0



[표 102] 오페라하우스 참관 의향(응답자별 비율(%))

구분	전문가 및 종사자		공무원		시민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혀 없다	3	0.5	5	0.8	7	1.2	15	2.5
없다	14	2.3	13	2.2	24	4.0	51	8.5
보통이다	39	6.5	30	5.0	50	8.3	119	19.8
있다	95	15.8	90	15.0	96	16.0	281	46.8
매우 있다	49	8.2	62	10.3	23	3.8	134	22.3
합계	200	33.3	200	33.3	200	33.3	6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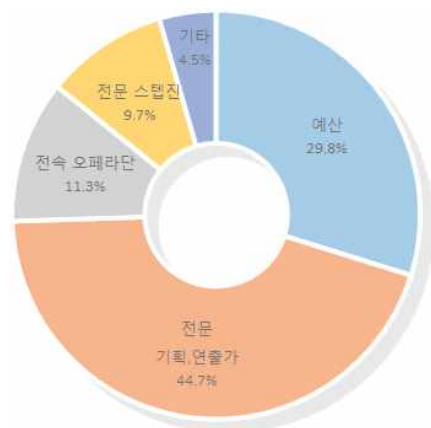
- 응답자별로 보면, 공무원의 참여 의향이 76.0%로 가장 높았고, 전문가 및 종사자는 72.0%이고, 시민은 59.5%의 순으로 나타났다.
- 시민의 참여가 다른 집단에 비해 낮은 것은 기존 오페라에 대한 문화 접근이 매우 낮은 것이 가장 큰 이유로 판단된다.
- 오페라하우스 건립 이후,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홍보전략과 프로그램의 개발이 매우 중요한 정책으로 판단되어진다.

4) 오페라하우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 오페라하우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응답으로, '전문기획, 연출가'가 269명, 44.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예산'이 178명, 29.7%, '전속 오페라단'이 69명, 11.5%, '전문 스텝진'이 58명, 9.7%, '기타'가 26명, 4.3%의 순으로 나타났다.
- '전문기획, 연출가'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은 것은 오페라의 특성상 공연의 질적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기획이나 연출에 대한 중요도가 매우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 '예산'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것은 오페라하우스의 수준 높은 운영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예산의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문화공연 등이 예산 부족으로 파행되는 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표 103] 오페라하우스 효율적 운영 요소

구분	빈도	비율(%)
예산	179	29.8
전문기획,연출가	268	44.7
전속 오페라단	68	11.3
전문 스텝진	58	9.7
기타	27	4.5
합계	6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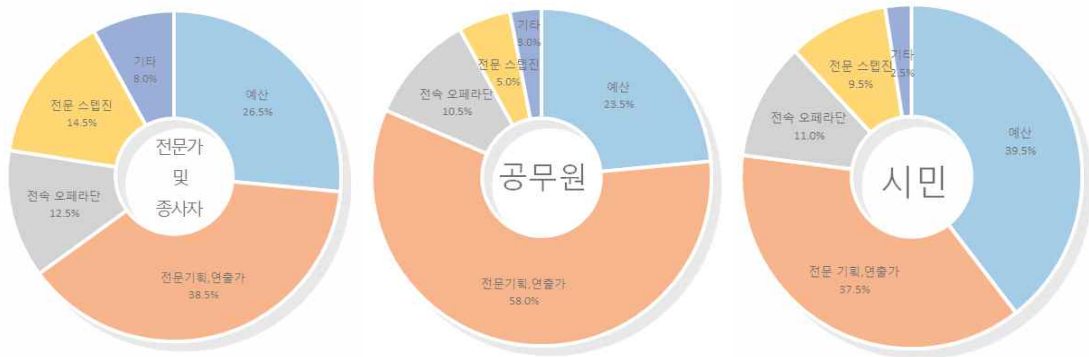
- 응답자별로는 전문가 및 종사자와 공무원이 '전문기획, 연출가'를 가장 많이 응답하

였고, 시민은 '예산'을 가장 높은 요소라고 응답하고 있다.

- 전문가 및 종사자에서는 '전문 스텝진'에 대한 의견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다른 집단에 비해서 조직원에 대한 고려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104] 오페라하우스 효율적 운영 요소(응답자별 비율(%))

구분	전문가 및 종사자		공무원		시민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예산	53	8.8	47	7.8	79	13.2	179	29.8
전문기획,연출가	77	12.8	116	19.3	75	12.5	268	44.7
전속 오페라단	25	4.2	21	3.5	22	3.7	68	11.3
전문 스텝진	29	4.8	10	1.7	19	3.2	58	9.7
기타	16	2.7	6	1.0	5	0.8	27	4.5
합계	200	33.3	200	33.3	200	33.3	6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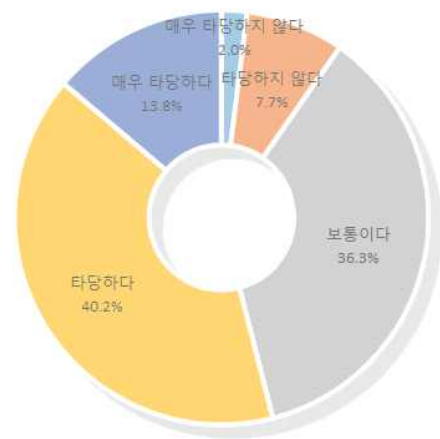
5) 부산국제아트센터 건립 타당성 여부

-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부산국제아트센터 건립 사업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응답으로, '타당하다'가 가장 많은 243명, 40.5%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보통이다'가 215명, 35.8%, '매우 타당하다'가 83명, 13.8%, '타당하지 않다'가 48명, 8.0%, '매우 타당하지 않다'가 11명, 1.8%의 순으로 나타났다.
- '타당하다'와 '매우 타당하다'가 54.3%를 나타내고 있어 부산국제아트센터 건립 타당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응답자별로 보면, 공무원이 부산국제아트센터의 건립 타당성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시민은 다소 유보적인 '보통이다'의 의견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 그리고, 부정적 의견은 전문가 및 종사자가 다른 집단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 부산국제아트센터의 건립에 대해서 전문가 및 종사자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기능과 활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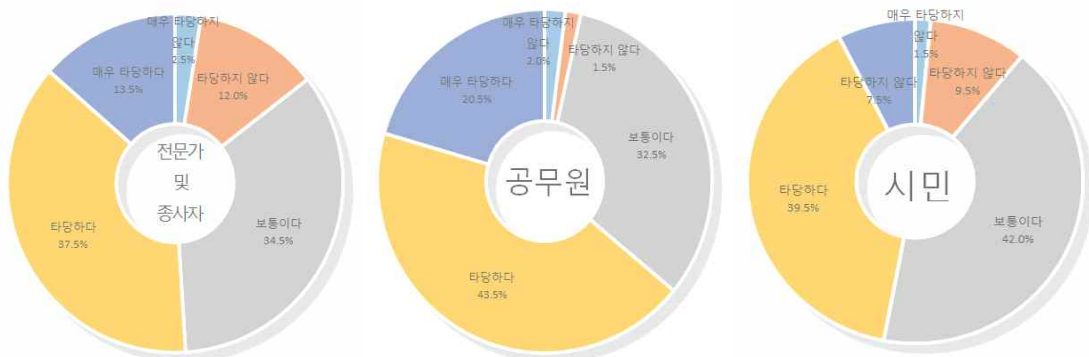
[표 105] 부산국제아트센터 건립 타당성

구분	빈도	비율(%)
매우 타당하지 않다	12	2.0
타당하지 않다	46	7.7
보통이다	218	36.3
타당하다	241	40.2
매우 타당하다	83	13.8
합계	600	100.0



[표 106] 부산국제아트센터 건립 타당성(응답자별 비율(%))

구분	전문가 및 종사자		공무원		시민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매우 타당하지 않다	5	0.8	4	0.7	3	0.5	12	2.0
타당하지 않다	24	4.0	3	0.5	19	3.2	46	7.7
보통이다	69	11.5	65	10.8	84	14.0	218	36.3
타당하다	75	12.5	87	14.5	79	13.2	241	40.2
매우 타당하다	27	4.5	41	6.8	15	2.5	83	13.8
합계	200	33.3	200	33.3	200	33.3	6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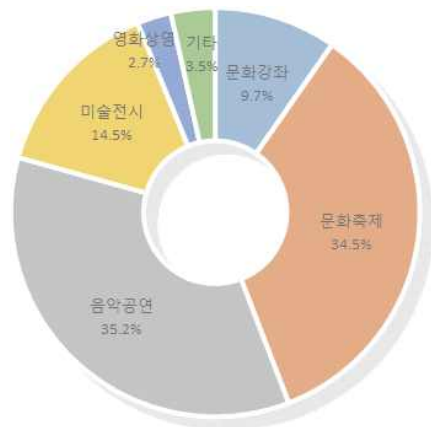


6) 국제아트센터의 가장 중요한 기능

- 국제아트센터의 기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음악공연’이 211명, 35.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문화축제’가 205명, 34.2%, ‘미술전시’가 90명, 15.0%, ‘문화강좌’가 58명, 9.7%, ‘기타’가 21명, 3.5%, ‘영화상영’이 15명, 2.5%의 순으로 나타났다.
- ‘음악공연’과 ‘문화축제’는 다른 기능에 비해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문화축제나 음악공연에 대한 관심이 높으나, 그에 맞는 시설은 부족하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 ‘미술전시’는 부산에 다양한 미술전시 공간이 생겨나면서 그 수요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영화상영’의 경우 부산시내에 다양한 영화관람시설이 분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요는 매우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표 107] 부산국제아트센터의 중요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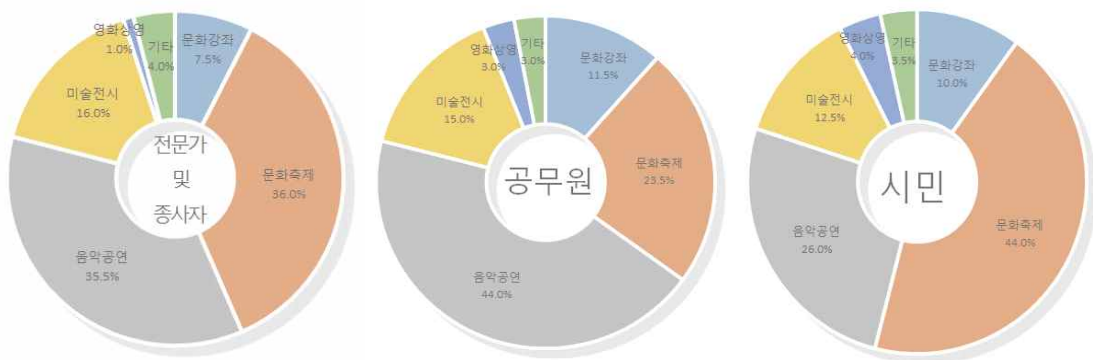
구분	빈도	비율(%)
문화강좌	58	9.7
문화축제	207	34.5
음악공연	211	35.2
미술전시	87	14.5
영화상영	16	2.7
기타	21	3.5
합계	600	100.0



- 응답자별로 보면, 전문가 및 종사자는 ‘문화축제’와 ‘음악공연’이 비슷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고, 시민은 ‘문화축제’를 공무원은 ‘음악공연’을 부산국제아트센터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 부산국제아트센터의 경우 다양한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문화축제와 음악공연을 주요 기능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다만, 다양한 기능을 포함되어 운영하면서, 영화상영과 같은 기능은 최소화하거나 배제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108] 부산국제아트센터의 중요 기능(응답자별 비율(%))

구분	전문가 및 종사자		공무원		시민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문화강좌	15	2.5	23	3.8	20	3.3	58	9.7
문화축제	72	12.0	47	7.8	88	14.7	207	34.5
음악공연	71	11.8	88	14.7	52	8.7	211	35.2
미술전시	32	5.3	30	5.0	25	4.2	87	14.5
영화상영	2	0.3	6	1.0	8	1.3	16	2.7
기타	8	1.3	6	1.0	7	1.2	21	3.5
합계	200	33.3	200	33.3	200	33.3	600	100.0



7) 클래식 전용홀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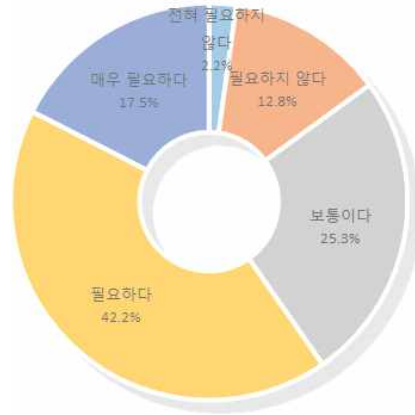
- 현재 부산에는 클래식 전용 콘서트홀이 없는 실정에서 클래식 전용홀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으로 '필요하다'가 258명, 43.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보통이다'가 152명, 25.3%, '매우 필요하다'가 105명, 17.5%, '필요하지 않다'가 73명, 12.2%, '전혀 필요하지 않다'가 12명, 2.0%의 순으로 나타났다.
- '필요하다'와 '매우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60.5%로 클래식 전용홀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오페라하우스와 국제아트센터의 건립 타당성에 비해서 클래식 전용홀의 필요성을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문화 수준이 향상되면서 전통적인 클래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부산의 경우 클래식 전용 공연장이 전무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결과로 볼 수 있다.

부산시 문화정책에 대한 인식도 및 만족도 조사

- 응답자별로는 공무원이 가장 필요성은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전문가 및 종사자, 시민의 순으로 높았다.
- 다만, 클래식 전용홀의 부정적 의견은 전문가 및 종사자에서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전문가 및 종사자의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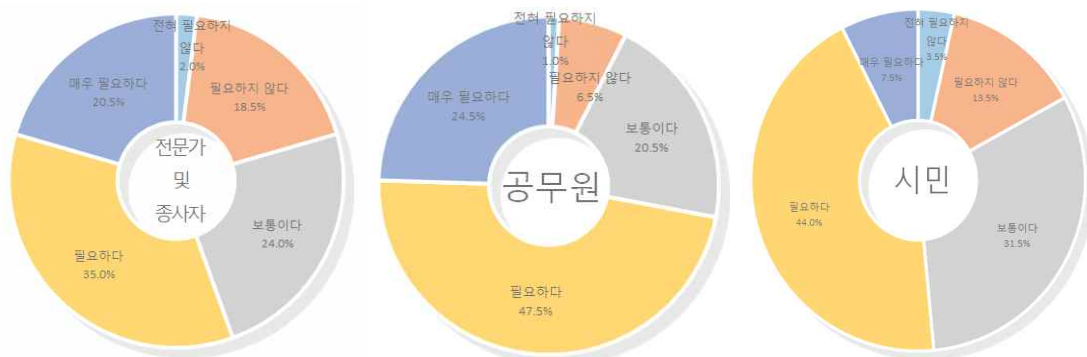
[표 109] 클래식 전용홀의 필요성

구분	빈도	비율(%)
전혀 필요하지 않다	13	2.2
필요하지 않다	77	12.8
보통이다	152	25.3
필요하다	253	42.2
매우 필요하다	105	17.5
합계	600	100.0



[표 110] 클래식 전용홀의 필요성(응답자별 비율(%))

구분	전문가 및 종사자		공무원		시민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혀 필요하지 않다	4	0.7	2	0.3	7	1.2	13	2.2
필요하지 않다	37	6.2	13	2.2	27	4.5	77	12.8
보통이다	48	8.0	41	6.8	63	10.5	152	25.3
필요하다	70	11.7	95	15.8	88	14.7	253	42.2
매우 필요하다	41	6.8	49	8.2	15	2.5	105	17.5
합계	200	33.3	200	33.3	200	33.3	6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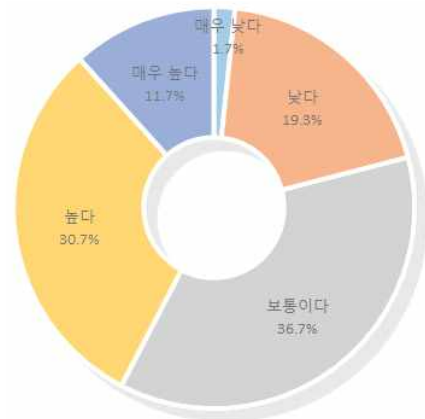


8) 클래식 전용 콘서트홀의 활용도

- 클래식 전용 콘서트홀은 2,000석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전용 콘서트홀의 활용도에 대한 응답으로는 '보통이다'가 221명, 36.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높다'가 188명, 31.3%, '낮다'가 112명, 18.7%, '매우 높다'가 69명, 11.5%, '매우 낮다'가 10명, 1.7%의 순으로 나타났다.
- '높다'와 '매우 높다'가 42.8%로 '낮다'와 '매우 낮다'의 20.4%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고 있어 활용도가 다소 높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 다만, '보통이다'의 의견이 36.8%로 클래식 전용 콘서트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고 있으나 그 활용성에 대해서는 다소 부족하여 다양한 활용방안에 대한 방안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111] 클래식 전용 콘서트홀의 활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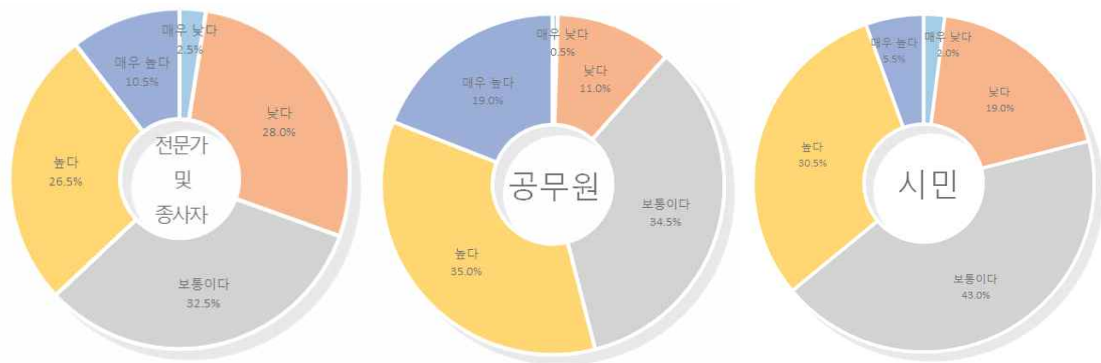
구분	빈도	비율(%)
매우 낮다	10	1.7
낮다	116	19.3
보통이다	220	36.7
높다	184	30.7
매우 높다	70	11.7
합계	600	100.0



- 응답자별로는 공무원이 가장 활용도를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시민들은 '보통이다'의 의견이 높아 다소 유보적인 평가를 하고 있고, 전문가 및 종사자들은 '보통이다'의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부정적 의견이 다른 집단에 비해서 매우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 향후 클래식 전용 콘서트홀의 다양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문화 분야 전문가 및 종사자들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클래식 공연 프로그램의 개발도 매우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112] 클래식 전용 콘서트홀의 활용도(응답자별 비율(%))

구분	전문가 및 종사자		공무원		시민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매우 낮다	5	0.8	1	0.2	4	0.7	10	1.7
낮다	56	9.3	22	3.7	38	6.3	116	19.3
보통이다	65	10.8	69	11.5	86	14.3	220	36.7
높다	53	8.8	70	11.7	61	10.2	184	30.7
매우 높다	21	3.5	38	6.3	11	1.8	70	11.7
합계	200	33.3	200	33.3	200	33.3	600	100.0



9) 클래식 전용 콘서트홀의 효율적 운영에 가장 필요한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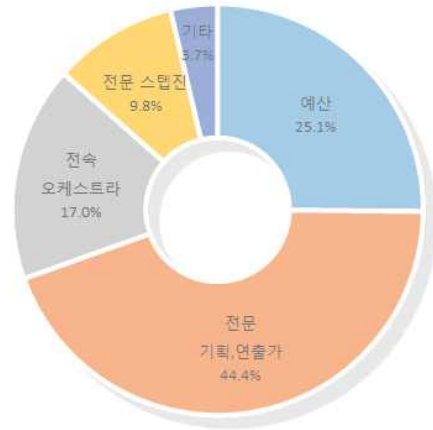
- 클래식 전용 콘서트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전문기획, 연출가’가 265명, 44.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예산’이 150명, 25.0%, ‘전속 오케스트라’가 105명, 17.5%, ‘전문 스태프’가 58명, 9.7%, ‘기타’가 22명, 3.7%의 순으로 나타났다.
- 클래식 전용 콘서트홀에서는 공연의 질적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기획과 연출가’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예산’의 경우에는 오페라하우스에 비해서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전속 오케스트라’에 대한 비중 17.5%로 ‘전속 오페라단’ 11.5%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 모든 집단에서 ‘전문기획, 연출가’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예산’, ‘전속 오케스트라’의 순으로 나타났다.
- 전문가 및 종사자에서는 ‘전문 스태프’에 대한 응답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았고, 공

무원은 '전문기획, 연출가'에 대한 집중이 매우 높았으며, 시민은 '예산'과 '전속 오케스트라'에 대한 응답이 다소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 시민에게 있어 클래식을 연주하는 전속 오케스트라에 대한 브랜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부산시향과 같은 전문화된 연주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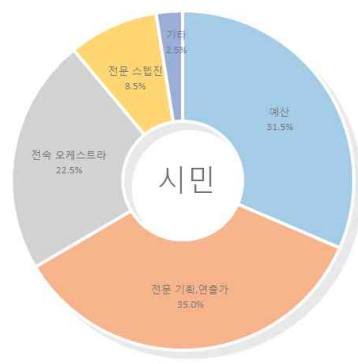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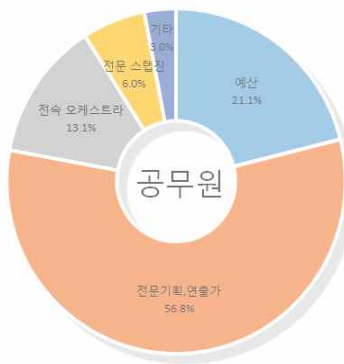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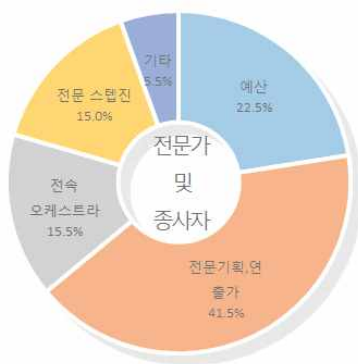
[표 113] 클래식 전용 콘서트홀의 효율적 운영 요소

구분	빈도	비율(%)
예산	151	25.2
전문기획,연출가	267	44.5
전속 오케스트라	102	17.0
전문 스텝진	59	9.8
기타	22	3.7
합계	600	100.0



[표 114] 클래식 전용 콘서트홀의 효율적 운영 요소(응답자별 비율(%))

구분	전문가 및 종사자		공무원		시민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예산	45	7.5	43	7.2	63	10.5	151	25.2
전문기획,연출가	83	13.8	114	19.0	70	11.7	267	44.5
전속 오케스트라	31	5.2	26	4.3	45	7.5	102	17.0
전문 스텝진	30	5.0	12	2.0	17	2.8	59	9.8
기타	11	1.8	6	1.0	5	0.8	22	3.7
합계	200	33.3	200	33.3	200	33.3	6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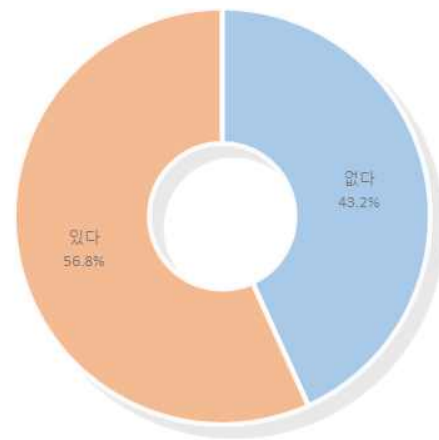
2. 시민 생활문화 확산 정책에 대한 인식도 및 만족도

1) '문화가 있는 날' 현장 참여 여부

- '문화가 있는 날' 현장에 참여한 여부에서는 '없다'라는 응답이 258명, 43.0%, '있다'가 342명, 57.0%로 참여도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없다'라는 비율이 43.0%로 나타나고 있어 다양한 문화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115] '문화가 있는 날' 현장 참여 여부

구분	빈도	비율(%)
없다	259	43.2
있다	341	56.8
합계	600	100.0



- 응답자로 보면, 전문가 및 종사자의 참여가 72.5%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공무원은 65.5%가 참여 하였으나, 시민은 32.5%만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시민들은 '문화가 있는 날'에 대한 참여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이 다양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문화가 있는 날'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참여 기관의 다양화 시민 체험형 프로그램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116] '문화가 있는 날' 현장 참여 여부(응답자별 비율(%))

구분		전문가 및 종사자		공무원		시민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없다		55	9.2	69	11.5	135	22.5	259	43.2
있다	주관자(주체자)로 참여했다	55	9.2	34	5.7	-	-	89	14.8
	관람객으로 참여했다	90	15.0	97	16.2	65	10.8	252	42.0
합계		200	33.3	200	33.3	200	33.3	600	100.0



2) '문화가 있는 날' 현장 참여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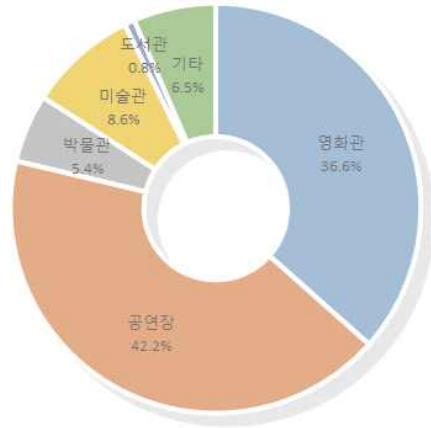
- '문화가 있는 날' 현장에 참여한 곳은 어디인가에 대한 전체응답(369명, 중복응답 포함) 중에서 '공연장'이 155명, 42.0%로 가장 많았고, '영화관' 133명, 36.0%, '미술관' 32명, 8.7%, '기타'가 26명, 7.0%, '박물관'이 20명, 5.4%. '도서관'이 3명, 0.8%의 순으로 나타났다.
- '문화가 있는 날'의 행사가 관람객으로써는 가격 할인이나 무료 관람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면서 평소에 높은 비용으로 인해 관람이 어려운 '공연장'에 대한 수요가 높았고, 주관자(주체자)로써도 다양한 문화행사를 추진할 수 있는 '공연장'이 가장 수요가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 그리고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영화관'이 많은 참여 장소로 나타났으며, 이외의 장소는 참여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박물관'이나 '도서관'의 참여 장소 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 다양한 문화행사의 추진으로 관람객을 유입할 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부산시 문화정책에 대한 인식도 및 만족도 조사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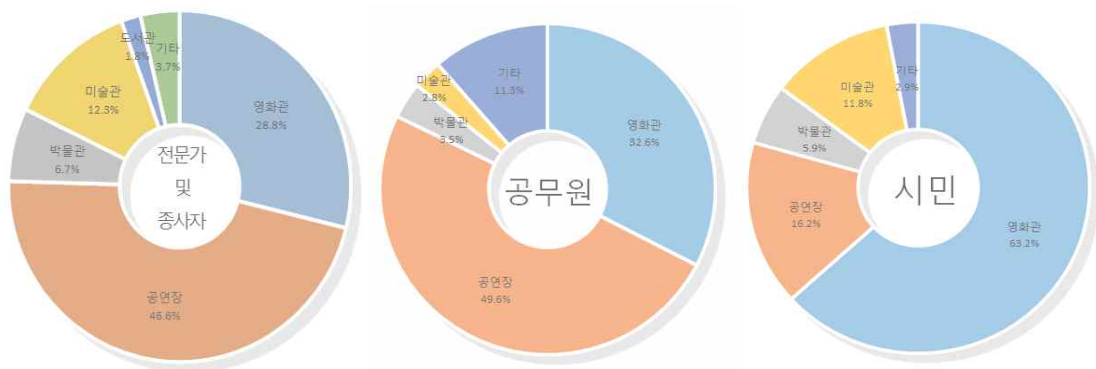
[표 117] '문화가 있는 날' 현장 참여 장소

구분	빈도	비율(%)
영화관	136	36.6
공연장	157	42.2
박물관	20	5.4
미술관	32	8.6
도서관	3	0.8
기타	24	6.5
합계	372	100.0



[표 118] '문화가 있는 날' 현장 참여 장소(응답자별 비율(%))

구분	전문가 및 종사자		공무원		시민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영화관	47	12.6	46	12.4	43	11.6	136	36.6
공연장	76	20.4	70	18.8	11	3.0	157	42.2
박물관	11	3.0	5	1.3	4	1.1	20	5.4
미술관	20	5.4	4	1.1	8	2.2	32	8.6
도서관	3	0.8	-	-	-	-	3	0.8
기타	6	1.6	16	4.3	2	0.5	24	6.5
합계	163	43.8	141	37.9	68	18.3	37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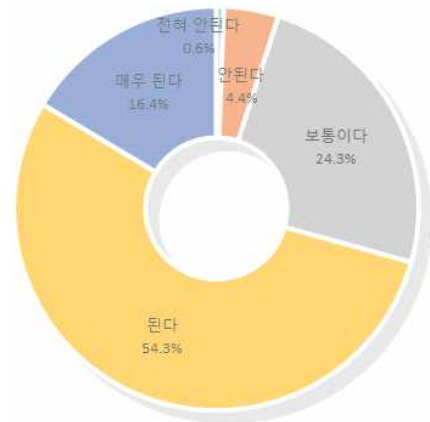
- 응답자별로는 전문가 및 종사자와 공무원은 '공연장'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시민의 경우에는 '영화관'이 가장 높은 참여 장소로 나타났다.

3)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이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정도

-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한 전체응답(342명) 중에서 ‘된다’가 188명, 55.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보통이다’가 80명, 23.4%, ‘매우 된다’가 56명, 16.4%, ‘안된다’가 16명, 4.7%, ‘전혀 안된다’가 2명, 0.6%의 순으로 나타났다.
- ‘된다’와 ‘매우 된다’가 71.4%로 나타나고 있어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문화가 있는 날’에서 수행하는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의 향상도 매우 중요하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참여의 폭을 확대하고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표 119]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의 삶의 질 향상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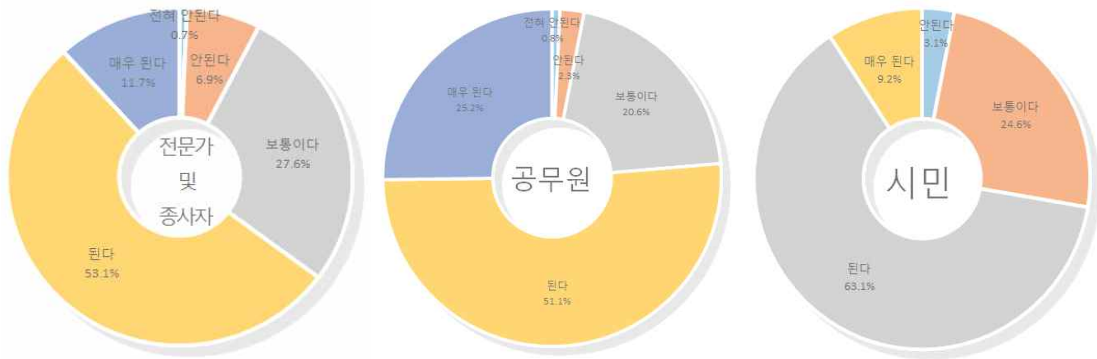
구분	빈도	비율(%)
전혀 안된다	2	0.6
안된다	15	4.4
보통이다	83	24.3
된다	185	54.3
매우 된다	56	16.4
합계	341	100.0



- ‘매우 된다’라는 의견은 공무원이 25.2%로 가장 높았고, ‘된다’라는 의견은 시민이 6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공무원이 다른 집단에 비해서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표 120]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의 삶의 질 향상 기여도(응답자별 비율(%))

구분	전문가 및 종사자		공무원		시민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혀 안된다	1	0.3	1	0.3	-		2	0.6
안된다	10	2.9	3	0.9	2	0.6	15	4.4
보통이다	40	11.7	27	7.9	16	4.7	83	24.3
된다	77	22.6	67	19.6	41	12.0	185	54.3
매우 된다	17	5.0	33	9.7	6	1.8	56	16.4
합계	145	42.5	131	38.4	65	19.1	341	100.0



4) '문화가 있는 날'이 지역문화·예술가에 대한 경제적 기여 정도

- '문화가 있는 날'이 지역문화·예술가에게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한 전체응답(342명) 중에서 '된다'가 128명, 37.4%로 가장 높았고, '보통이다'가 118명, 34.5%, '매우 된다'가 45명, 13.2%, '안된다'가 44명, 12.9%, '전혀 안된다'가 7명, 2.0%의 순으로 나타났다.
- '된다'와 '매우 된다'의 응답이 50.6%로 지역문화·예술가의 경제적인 기여도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 그러나 '보통이다'의 의견이 34.5%이고, '안된다'와 '전혀 안된다'의 의견이 14.9%로 나타나고 있어, '문화가 있는 날'이 지역 문화·예술가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민들이 이를 참여하면서 지역문화·예술가에게도 경제적 기여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공무원은 '매우 된다'라는 의견이 21.4%로 다른 집단에 비해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된다'라는 의견도 39.7%로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 그러나 전문가 및 종사자는 ‘보통이다’라는 의견이 37.2%로 가장 높았고, 시민은 ‘안된다’라는 의견이 21.5%로 다른 집단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다.
- 경제적인 기여도에서 공무원과 전문가 및 종사자, 시민이 서로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어 실질적인 경제적 기여도에 대해서 심층적 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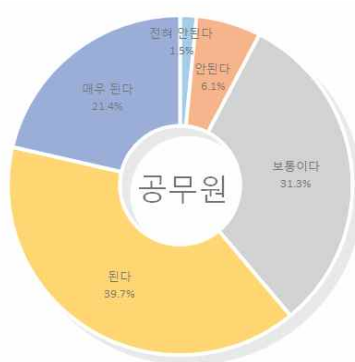
[표 121] ‘문화가 있는 날’의 지역문화 예술가의 경제적 기여도

구분	빈도	비율(%)
전혀 안된다	7	2.1
안된다	45	13.2
보통이다	117	34.3
된다	125	36.7
매우 된다	47	13.8
합계	341	100.0



[표 122] ‘문화가 있는 날’의 지역문화 예술가의 경제적 기여도(응답자별 비율(%))

구분	전문가 및 종사자		공무원		시민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혀 안된다	5	1.5	2	0.6	-		7	2.1
안된다	23	6.7	8	2.3	14	4.1	45	13.2
보통이다	54	15.8	41	12.0	22	6.5	117	34.3
된다	50	14.7	52	15.2	23	6.7	125	36.7
매우 된다	13	3.8	28	8.2	6	1.8	47	13.8
합계	145	42.5	131	38.4	65	19.1	34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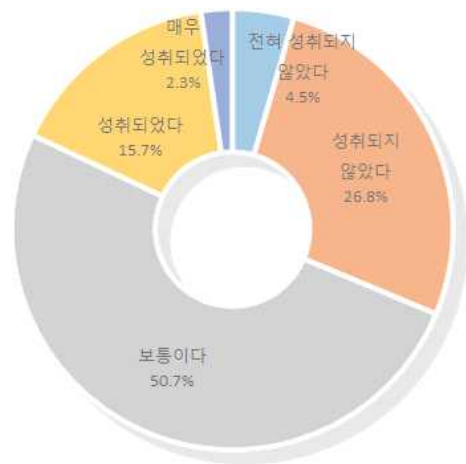
3. 예술창작 환경 조성 정책에 대한 인식도 및 만족도

1) 민선6기 부산시 '문화융성' 비전의 성취도

- 민선6기 부산시는 '문화융성'을 비전으로 삼고 있으며, 이에 현재 어느 정도 성취되었다고 보는가에 대한 응답으로, '보통이다'가 301명, 50.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성취되지 않았다'가 163명, 27.2%, '성취되었다'가 95명, 15.8%, '전혀 성취되지 않았다'가 27명, 4.5%, '매우 성취되었다'가 14명, 2.3%의 순으로 나타났다.
- '성취되었다'와 '매우 성취되었다'라는 의견이 18.1%로 '성취되지 않았다'와 '전혀 성취되지 않았다'의 31.7%에 비해 매우 낮아 부산시의 문화정책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부산시 '문화융성'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문화융성에 대해서 잘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부산시의 문화정책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된다.

[표 123] 부산시 '문화융성' 비전의 성취도

구분	빈도	비율(%)
전혀 성취되지 않았다	27	4.5
성취되지 않았다	161	26.8
보통이다	304	50.7
성취되었다	94	15.7
매우 성취되었다	14	2.3
합계	6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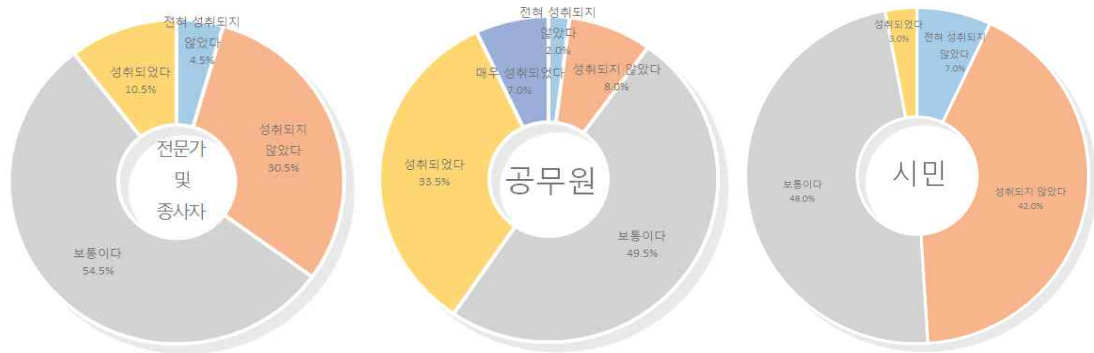


- 응답자별로 공무원은 '매우 성취되었다'와 '성취되었다'가 40.5%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전문가 및 종사자는 '전혀 성취되지 않았다'와 '성취되지 않았다'의 의견이 35.0%, 시민은 49.0%로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 특히 공무원과 시민의 의견의 차이가 매우 크게 발생하고 있어, 문화분야의 행정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입장과 그 수혜를 입는 수혜자의 입장의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 향후 문화 정책 수행에 있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현장에 직접 나가서 실질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124] 부산시 '문화융성' 비전의 성취도(응답자별 비율(%))

구분	전문가 및 종사자		공무원		시민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혀 성취되지 않았다	9	1.5	4	0.7	14	2.3	27	4.5
성취되지 않았다	61	10.2	16	2.7	84	14.0	161	26.8
보통이다	109	18.2	99	16.5	96	16.0	304	50.7
성취되었다	21	3.5	67	11.2	6	1.0	94	15.7
매우 성취되었다	-	-	14	2.3	-	-	14	2.3
합계	200	33.3	200	33.3	200	33.3	6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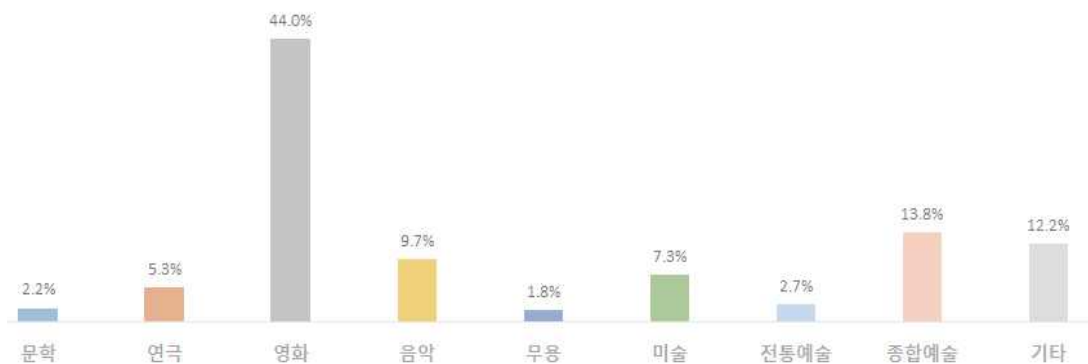
5) 문화예술의 변화와 발전이 가장 크게 이루어진 분야

- 문화예술의 변화와 발전이 가장 크게 이루어진 분야는 어디라고 보는가에 대한 응답으로, '영화'가 261명, 43.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종합예술'이 85명, 14.2%, '기타'가 76명, 12.7%, '음악'이 56명, 9.3%, '미술'이 49명, 8.2%, '연극'이 30명, 5.0%, '전통예술'이 18명, 3.0%, '문학'이 14명, 2.3%, '무용'이 11명, 1.8%의 순으로 나타났다.
- 부산시가 영화의 도시로써 영화분야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영화와 관련된 시설이나 기관이 설립되고 운영되면서 '영화'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 그러나 영화로 편중된 결과로 인해 향후 지역 문화예술의 기반조성과 발전을 위해

서는 다양한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문화예술의 공연시설이나 교육시설 등이 확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125] '문화융성'이 가장 성취된 분야

구분	빈도	비율(%)
문학	13	2.2
연극	32	5.3
영화	264	44.0
음악	58	9.7
무용	11	1.8
미술	44	7.3
전통예술	16	2.7
종합예술	83	13.8
기타	73	12.2
합계	600	100.0



- 응답자별로는 모든 집단에서 '영화'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특히 시민에서 62.0%로 집중되어 나타났다.
- 전문가 및 종사자와 공무원은 '종합예술'의 성취도를 높이 평가하고 있었으며, 일부 성취된 분야가 없다는 의견이 전문가 및 종사자의 기타의견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 공무원과 전문가 및 종사자가 보는 문화 분야의 성취도와 시민이 체감하는 문화 분야의 성취도는 일부 차이가 보이고 있어 향후 문화 분야의 정책 수립 및 시행과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에 있어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126] '문화융성'이 가장 성취된 분야(응답자별 비율(%))

구분	전문가 및 종사자		공무원		시민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문학	2	0.3	6	1.0	5	0.8	13	2.2
연극	8	1.3	7	1.2	17	2.8	32	5.3
영화	63	10.5	77	12.8	124	20.7	264	44.0
음악	19	3.2	19	3.2	20	3.3	58	9.7
무용	6	1.0	1	0.2	4	0.7	11	1.8
미술	19	3.2	15	2.5	10	1.7	44	7.3
전통예술	3	0.5	7	1.2	6	1.0	16	2.7
종합예술	34	5.7	40	6.7	9	1.5	83	13.8
기타	46	7.7	22	3.7	5	0.8	73	12.2
합계	200	33.3	200	33.3	200	33.3	6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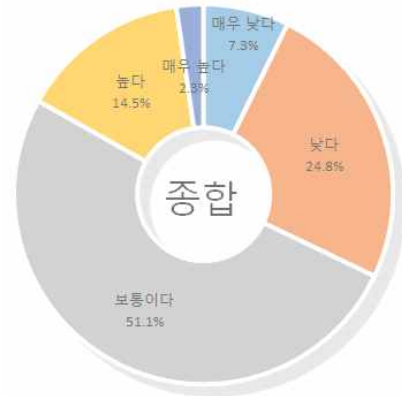
6) 부산시 문화분야 공무원의 전문성

- 부산시 문화분야 공무원의 전문성에 대한 의견으로 '보통이다'가 306명, 51.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낮다'가 149명, 24.8%, '높다'가 87명, 14.5%, '매우 낮다'가 44명, 7.3%, '매우 높다'가 14명, 2.3%의 순으로 나타났다.
- '매우 낮다'와 '낮다'의 의견이 32.1%로 '높다'와 '매우 높다'의 16.8%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고 있어 문화분야 공무원의 전문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다.
- 부산시 문화분야에 대한 발전과 문화 및 예술가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며,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이나 전문가 영입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응답자별로는 공무원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시민은 반대로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 전문가 및 종사자와 시민이 부산시 문화분야 공무원의 전문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어 공무원과의 의견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 문화분야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며, 전문가 및 종사자와 시민에게 전문적 견해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겠다.

부산시 문화정책에 대한 인식도 및 만족도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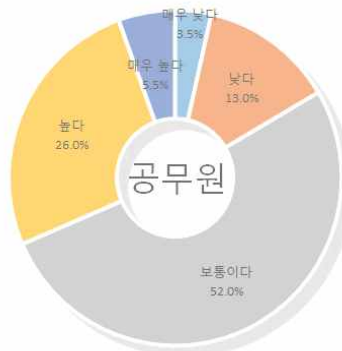
[표 127] 부산시 문화분야 공무원의 전문성

구분	빈도	비율(%)
매우 낮다	44	7.3
낮다	149	24.8
보통이다	306	51.0
높다	87	14.5
매우 높다	14	2.3
합계	600	100.0



[표 128] 부산시 문화분야 공무원의 전문성(응답자별 비율(%))

구분	전문가 및 종사자		공무원		시민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매우 낮다	18	3.0	7	1.2	19	3.2	44	7.3
낮다	57	9.5	26	4.3	66	11.0	149	24.8
보통이다	99	16.5	104	17.3	103	17.2	306	51.0
높다	25	4.2	52	8.7	10	1.7	87	14.5
매우 높다	1	0.2	11	1.8	2	0.3	14	2.3
합계	200	33.3	200	33.3	200	33.3	6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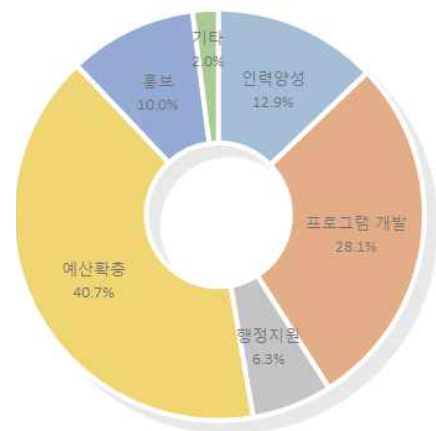


7) 부산시 문화시설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

- 부산시 문화시설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견으로 '예산확충'이 240명, 40.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프로그램 개발'이 167명, 27.8%, '인력양성'이 79명, 13.2%, '홍보'가 61명, 10.2%, '행정지원'이 41명, 6.8%, '기타'가 12명, 2.0%의 순으로 나타났다.
- 부산시 문화시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장 핵심 요소는 '예산확충'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문화시설 개선이나 확충, 다양한 문화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예산적 부분이 가장 핵심적 요소로 작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의 경우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만 문화시설을 이용하고 활용하는데 기회가 늘어나고 다양한 계층이 문화시설을 이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129] 부산시 문화시설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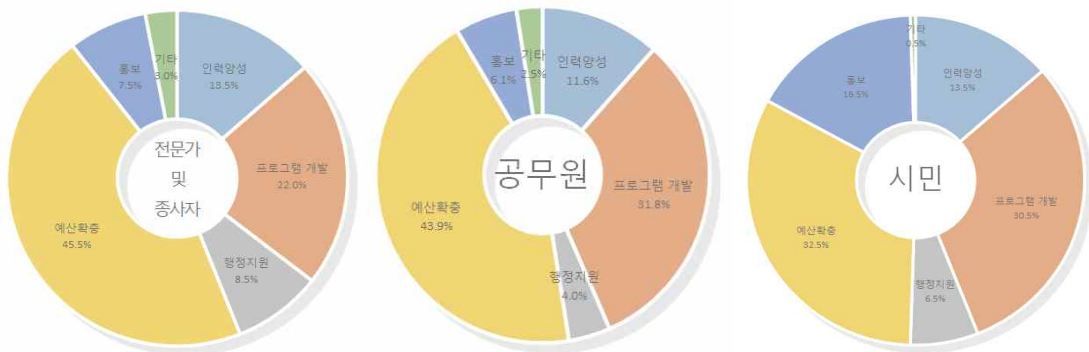
구분	빈도	비율(%)
인력양성	77	12.8
프로그램 개발	168	28.0
행정지원	38	6.3
예산확충	243	40.5
홍보	60	10.0
기타	12	2.0
합계	600	100.0



- 응답자별로는 전문가 및 종사자와 공무원이 '예산확충'이 각각 45.5%, 43.5%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시민은 '예산확충'이 32.5%, '프로그램 개발'이 30.5%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 시민에서는 다른 집단에 비해서 '홍보'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문화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다양한 정보의 습득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 시민들이 문화시설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예산의 확충과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적절한 홍보도 함께 진행되어야 함을 나타낸다.

[표 130] 부산시 문화시설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응답자별 비율(%))

구분	전문가 및 종사자		공무원		시민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인력양성	27	4.5	23	3.8	27	4.5	77	12.8
프로그램 개발	44	7.3	63	10.5	61	10.2	168	28.0
행정지원	17	2.8	8	1.3	13	2.2	38	6.3
예산확충	91	15.2	87	14.5	65	10.8	243	40.5
홍보	15	2.5	12	2.0	33	5.5	60	10.0
기타	6	1.0	5	0.8	1	0.2	12	2.0
합계	200	33.3	200	33.3	200	33.3	6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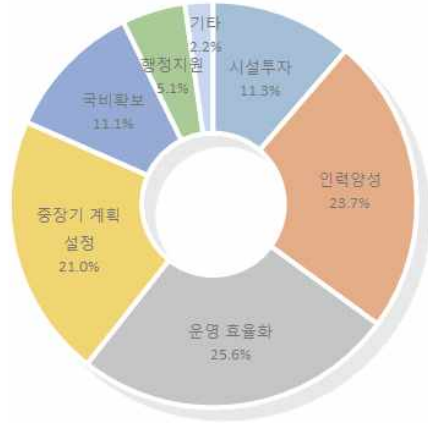
8) 부산시의 미래 문화비전을 위한 필요 정책

- 부산시의 미래 문화비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가에 대한 응답으로, '운영 효율화'가 149명, 24.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인력양성'이 143명, 23.8%, '중장기 계획 설정'이 129명, 21.5%, '국비확보'가 68명, 11.3%, '시설투자'가 67명, 11.2%, '행정지원'이 31명, 5.2%, '기타'가 13명, 2.2%의 순으로 나타났다.
- 부산시의 미래 문화비전을 위해서는 '운영 효율화'가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문화정책들이 비합리적인 운영을 통해서 미흡한 결과를 나타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 '운영 효율화' 다음으로 '인력양성'과 '중장기 계획 설정'이 높게 나타난 것은 미래를 위해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함이 중요함을 나타낸다.
- 응답자별로는 전문가 및 종사자는 '인력양성' 25.5%, '중장기 계획 설정' 25.0%로 높이 나타났고, 공무원은 '인력양성' 26.5%, '운영 효율화' 25.0%, 시민은 '운영 효율

화' 28.0%, '인력양성' 18.5%로 높이 나타났다.

[표 131] 부산시 미래 문화비전을 위한 필요 정책

구분	빈도	비율(%)
시설투자	67	11.2
인력양성	141	23.5
운영 효율화	152	25.3
중장기 계획 설정	125	20.8
국비확보	66	11.0
행정지원	30	5.0
기타	13	2.2
합계	600	100.0



[표 132] 부산시 미래 문화비전을 위한 필요 정책(응답자별 비율(%))

구분	전문가 및 종사자		공무원		시민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시설투자	16	2.7	24	4.0	27	4.5	67	11.2
인력양성	51	8.5	53	8.8	37	6.2	141	23.5
운영 효율화	46	7.7	50	8.3	56	9.3	152	25.3
중장기 계획 설정	50	8.3	43	7.2	32	5.3	125	20.8
국비확보	22	3.7	15	2.5	29	4.8	66	11.0
행정지원	10	1.7	7	1.2	13	2.2	30	5.0
기타	5	0.8	2	0.3	6	1.0	13	2.2
합계	200	33.3	200	33.3	200	33.3	6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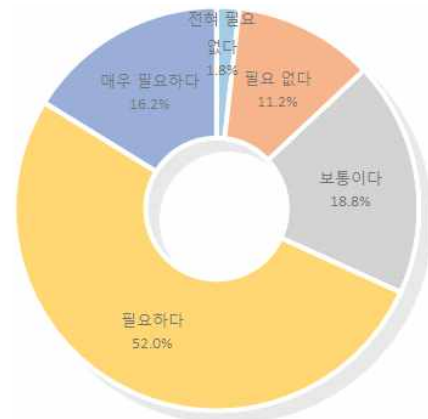


9) 부산시 문화예술정책을 연구·개발하는 기관의 필요성

- 부산시 문화예술정책을 연구·개발하는 기관이 필요한가에 대한 응답으로는 ‘필요하다’가 315명, 52.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보통이다’가 113명, 18.8%, ‘매우 필요하다’가 99명, 16.5%, ‘필요 없다’가 63명, 10.5%, ‘전혀 필요 없다’가 10명, 1.7%의 순으로 나타났다.
- ‘필요하다’와 ‘매우 필요하다’가 69.0%로 부산시 문화예술정책의 연구·개발을 전담하는 기관에 대한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문화예술정책을 연구·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나타내며, 장기적이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문화예술정책의 연구 및 개발이 진행되어야 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표 133] 부산시 문화예술정책을 연구·개발하는 기관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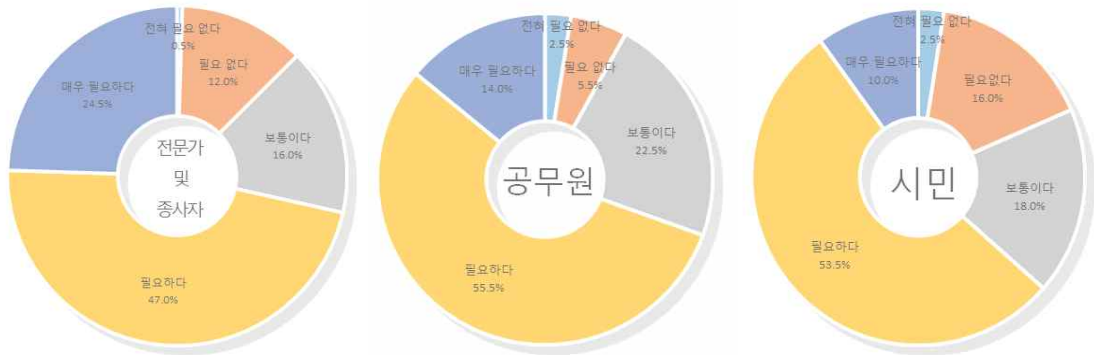
구분	빈도	비율(%)
전혀 필요 없다	11	1.8
필요 없다	67	11.2
보통이다	113	18.8
필요하다	312	52.0
매우 필요하다	97	16.2
합계	600	100.0



- 응답자별로는 전문가 및 종사자가 ‘매우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24.5%로 다른 집단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필요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 그러나 시민은 다른 집단에 비해서 부정적 의견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 향후 부산시 문화예술정책을 연구·개발하는 기관에서는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정책을 홍보하고 다양한 정책을 연구·개발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표 134] 부산시 문화예술정책을 연구·개발하는 기관의 필요성(응답자별 비율(%))

구분	전문가 및 종사자		공무원		시민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혀 필요 없다	1	0.2	5	0.8	5	0.8	11	1.8
필요 없다	24	4.0	11	1.8	32	5.3	67	11.2
보통이다	32	5.3	45	7.5	36	6.0	113	18.8
필요하다	94	15.7	111	18.5	107	17.8	312	52.0
매우 필요하다	49	8.2	28	4.7	20	3.3	97	16.2
합계	200	33.3	200	33.3	200	33.3	600	100.0



10) 문화예술정책 연구·개발 기관의 주체

- 문화예술정책 연구·개발 기관을 만든다면, 어디에 만들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응답으로, '부산문화재단'이 288명, 48.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기관 신설'이 137명, 22.8%, '부산발전연구원'이 101명, 16.8%, '부산예총·민예총'이 48명, 8.0%, '기타'가 26명, 4.3%의 순으로 나타났다.
- 현재 부산시 문화예술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부산문화재단이 문화예술정책 연구·개발 기관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나타났으나, 기관신설이나 부산발전연구원에 대한 의견도 일부 나타나고 있어 부산문화재단에 대한 역할수행을 다소 미흡하다는 의견으로 도출된 결과로 판단된다.
- 향후 문화예술정책 연구·개발에 있어 부산문화재단의 경우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업무와 기능을 홍보하고,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시민이 만족감을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향상되어야 할 것이다.
- 응답자별로는 공무원과 시민이 '부산문화재단'을 50%이상이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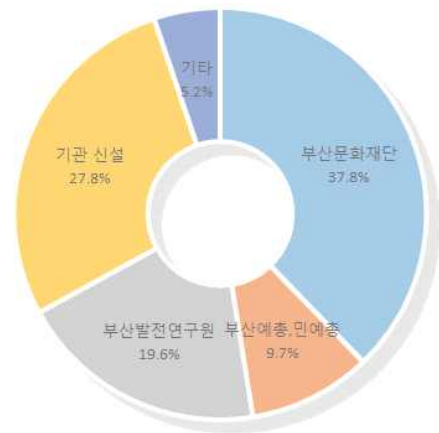
부산시 문화정책에 대한 인식도 및 만족도 조사

나타났으나, 전문가 및 종사자는 39.5%만이 선호하였고, 기관신설이 27.0%로 나타나고 있어 현재 '부산문화재단'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전문가 및 종사자의 입장에서 부산문화재단의 역할이나 기능에 미흡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부산문화재단이 문화예술정책을 연구·개발하는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가 및 종사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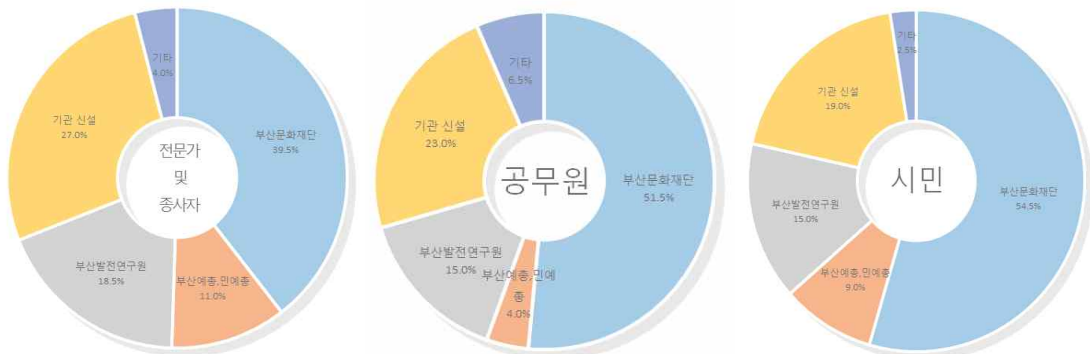
[표 135] 문화예술정책 연구·개발 기관의 주체

구분	빈도	비율(%)
부산문화재단	188	31.3
부산예총·민예총	48	8.0
부산발전연구원	97	16.2
기관 신설	138	23.0
기타	26	4.3
합계	600	100.0



[표 136] 문화예술정책 연구·개발 기관의 주체(응답자별 비율(%))

구분	전문가 및 종사자		공무원		시민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부산문화재단	79	13.2	-		109	18.2	188	31.3
부산예총·민예총	22	3.7	8	1.3	18	3.0	48	8.0
부산발전연구원	37	6.2	30	5.0	30	5.0	97	16.2
기관 신설	54	9.0	46	7.7	38	6.3	138	23.0
기타	8	1.3	13	2.2	5	0.8	26	4.3
합계	200	33.3	200	33.3	200	33.3	600	100.0



V. 설문조사결과 요약 및 함의

부산시 문화정책을 크게 '문화도시 기반 조성', '시민 생활문화 확산', '예술창작 환경 조성' 정책 등 3개 분야로 구분하고 이를 일반 시민,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지도 및 만족도를 조사함 (각 200명, 총 600명).

1. 조사결과 요약

1) '문화도시 기반 조성' 정책 관련 사항

- '문화도시 기반 조성' 정책으로는 부산오페라하우스와 부산국제아트센터를 구분해서 인지도 및 만족도를 조사함.
- 부산오페라하우스와 부산국제아트센터의 건립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서 '타당하다'와 '매우 타당하다'가 53.2%와 54.3%로 각각 나타나, 이들 문화시설의 건립을 대체로 긍정하고 있음을 보여줌.
- 부산의 랜드마크로서 오페라하우스가 문화관광 거점시설로서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조사에서는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가 59.9%로 나타나, 활용 가능성을 비교적 높게 보고 있음.
- 부산오페라하우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중요한 요소로는 '전문기획·연출가'가 44.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예산'이 29.7%, '전속 오페라단'이 11.5%로 각각 나타나 콘텐츠·운영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의 확보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고 있음.
- 부산국제아트센터의 가장 중요한 기능에 관해서는 '음악공연'이 35.2%, '문화축제'가 34.2%로 무려 69.4%가 공연과 축제의 장으로서 국제아트센터가 기능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음.
- 부산국제아트센터의 클래식 전용 콘서트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43.0%)와 '매우 필요하다'(17.5%)가 60.5%,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요소로는 '전문기획·연출가'가 44.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예산'이 25.0%, '전속 오케스트라'가 17.5%로 나타나 전문성과 예산, 공연단체 등이 주요한 요소임을 보여줌.

2) '문화'·시민 생활문화 확산' 정책 관련 사항

- '시민 생활문화 확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문화가 있는 날'에 대한 인식도 및 만족도를 조사함.
- '문화가 있는 날' 현장 참여 경험은 57%에 달했고, 참여 장소는 공연장(42%), 영화관(36%)이 78%의 압도적인 응답율을 나타냈으며, 이 프로그램이 지역 예술가 및 지역 문화 활성화에 대한 경제적 기여도가 50.6%로 다소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남.

3) '예술창작 환경 조성' 정책 관련 사항

- '예술창작 환경 조성' 정책으로는 부산시 '문화융성' 비전의 성취도, 문화예술 발전이 크게 이루어진 분야, 문화시설 활성화를 위한 핵심적 요소, 문화예산 집행의 합리성과 정책 수립시 전문가·종사자 의견 반영 정도, 문화예술정책 연구·개발 기관의 필요성 등을 조사함.
- 민선 6기 부산시 '문화융성' 비전의 성취도에 대한 질문에 '성취되었다'(15.8%), '매우 성취되었다'(2.3%)가 19.1%, '성취되지 않았다'(27.2%)와 '전혀 성취되지 않았다'(4.5%)가 31.7%로 나타나 비전 성취도가 매우 낮다고 인식하고 있음.
- 문화예술분야에서 가장 발전된 장르에 대한 질문에서는 '영화'(43.5%)가 압도적인 응답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종합예술'(14.2%), '음악'(9.3%) 등이 그 뒤를 잇고 있음.
- 문화시설(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등) 활성화에 가장 필요한 요소로는 '예산 확충'(40%)이 압도적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프로그램 개발'(27.8%), '인력양성'(13.2%), '홍보'(10.2%)가 그 뒤를 따르고 있음.
- 미래 문화비전을 위한 정책 관련 질문에서 '시설투자'는 11%에 불과했고, 반면에 '운영 효율화'(24.8%), '인력양성'(23.8%), '중장기 계획 설정'(21.5%) 등 운영분야에 높은 응답율을 보이고 있음.
- 또한 부산시 문화예산의 합리적 집행 여부에 대해서 긍정(14.0%) 보다 부정(31.5%) 응답이, 문화분야 관련 기구 및 인력투입에 대해서도 긍정(7.5%) 보다 부정(47.0%) 응답이 더 많았으며, 문화정책 수립시 전문가·종사자 의견 반영 정도에 대해서도 긍정(20.5%) 보다 부정(25.5%)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문화예술정책 연구·개발 기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52.5%)와 '매우 필요하다'(16.5%) 등 69.0%가 긍정적인 응답율을 보인 반면, '필요없다'(10.5%)와 '전혀 필요 없다'(1.7%) 등 부정적인 응답은 1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문화예술정책 연구·개발 기관의 운영 주체를 묻는 질문에는 '부산문화재단'(48.0%)이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고, 그 다음이 '기관 신설'(22.8%), '부산발전연구원'(16.8%)의 순으로 각각 나타남.

2. 조사결과에 대한 함의

1) '문화도시 기반 조성' 정책 관련 사항

- '문화도시 기반 조성' 정책 가운데 부산오페라하우스와 부산국제아트센터 건립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대체로 긍정하고 있으며, 그 활용 가능성 또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그렇지만 두 건립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은 전문가·종사자 47.0%와 51%, 시민 44%와 47%에 비해, 공무원은 66%와 64%를 각각 차지하고 있어 공무원이 다른 그룹에 비해 편차가 확연한 차이가 있음.
- 민선 6기 부산시의 '문화융성' 비전의 성취도는 낮은 편인데, 그 이유는 그동안 부산 국제영화제 및 원아시아페스티벌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란과 잡음 때문으로 보이며, 이에 부산시가 현장 전문가·종사자는 물론 일반 시민과의 소통 및 의견수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여겨짐.
- 또한 부산의 미래 문화비전을 위해서는 시설투자(문화시설 건립) 보다 운영 효율화나 인력양성, 전문기획·연출가에 의한 프로그램 개발 등이 중장기적인 계획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이므로 이제는 문화시설의 건립보다 기존 시설의 합리적·효율적 운영에 정책적 방점을 찍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특히 문화예술분야의 인력양성이나 전문기획·연출가 등 '사람'에 대한 투자가 미래 부산의 문화비전을 실현시키는데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요소로 보여짐.
- 한편 문화시설 건립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현황조사가 먼저 필요함. 즉 기존 문화시설의 활용도(가동일 및 가동률, 수지현황)는 물론, 일반 시민의 참여도 및 만족도 등이 폭넓게 조사·분석·연구되어야 할 것임.
- 부산오페라하우스의 건립 및 활용 가능성에 응답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은 북항의 입지적 조건(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크루즈 관광수요에 대한 기대감)을 긍정한 결과로 보이지만, 오페라와 뮤지컬은 음향시설 면에서 그 차이가 매우 크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부산국제아트센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음악공연'과 '문화축제'로 나타남으로써

부산시민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즐겨 참여할 수 있는 야외콘서트와 축제행사의 기획과 운영이 절실히 필요함.

- 부산국제아트센터 내에 클래식 전용 콘서트홀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 것은 부산에 클래식 전용 콘서트홀이 전무하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으며, 아울러 기획자·연출가 등 전문성을 갖춘 운영자가 적재적소에 포진되어야 함을 요청하고 있음.
- 전용 콘서트홀의 경우 부산시는 2,000석 규모를 계획하고 있지만, “실제 대규모 공연을 상시 무대화할 만한 지역 악단이 많지 않을 뿐 아니라, 초청 공연으로 채우기에는 비용부담이 만만찮기 때문에 기존 계획의 재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지역 최대 클래식홀…중소 규모 공연 설 자리가 없다, 부산일보 2017. 1. 16).

2) ‘시민 생활문화 확산’ 정책 관련 사항

- ‘시민 생활문화 확산’ 정책과 관련해서 ‘문화가 있는 날’ 현장 참여자는 물론, 지역문화 및 예술가에 대한 경제적 기여도 또한 높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고 저변확대를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여겨짐.
- 그러나 현장 참여 여부를 묻는 설문에서 ‘있다’가 57%(342명)의 응답율을 보였지만, ‘없다’도 43%(258명)에 이르고 있음. 또한 참여도는 전문가·종사자 72.5%, 공무원 65.5%인데 비해 일반 시민은 겨우 32.5%에 머물고 있음. 이에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판단됨.

3) ‘예술창작 환경 조성’ 정책 관련 사항

- 부산시 문화예산의 합리적 집행 여부, 문화분야 관련 기구 및 인력투입, 문화정책 수립시 전문가·종사자 의견 반영 정도가 긍정보다 부정의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을 볼 때 투명하고 효율적인 문화예산의 집행, 현장 전문가 및 종사자들과의 소통을 통한 적극적인 의견수렴 등이 문화정책 의사결정과정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또한 문화예술정책 연구·개발 기관의 필요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응답이 무려 7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관의 운영 주체를 부산문화재단 내에 두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함으로써 “지역문화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부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3조 2항)을 부산문화재단의 핵심 사업의 하나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그런 점에서, 최근 부산문화재단이 ‘정책연구기능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2017년도 경제문화위원회 하반기 업무보고)을 시도하려는 계획은 매우 긍정적이라 판단됨.

부 록

1. 설문지(관계자)
2. 설문지(시민)

부 록 ①

설문지(관계자)

부산시 문화정책에 대한 인식도 및 만족도 조사(관계자)

안녕하십니까?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는 문화예술분야 공무원, 전문가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부산시 문화정책에 대한 인식도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문은 익명으로 진행되며, 통계분석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조사에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5월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항보승희 위원장

※ 통계를 위한 기초자료

응답자	성 별	① 남성	② 여성			
	연령대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이상
	거주지	() 구·군				
	학 력	① 무학	② 초졸	③ 중졸	④ 고졸	⑤ 대졸 ⑥ 대학원 이상
	관련분야	① 문학 ② 연극 ③ 영화 ④ 음악 ⑤ 무용 ⑥ 미술 ⑦ 전통예술 ⑧ 종합예술 ⑨ 문화예술행정·경영 ⑩ 공무원 ⑪ 기타()				

※ 부산시의 주요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물음에 답해 주십시오.

I. 문화도시 기반 조성 정책에 대한 인식도 및 만족도

부산오페라하우스에 관한 질문입니다.

부산오페라하우스는 문화관광 거점시설로 북항재개발지구 내 지하2층, 지상5층으로 건립되며, 대극장(1,800석), 컨퍼런스홀(300석), 전시실, 야외공연장 등이 들어섭니다. 2017년 말에 착공, 2021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2,500억원(민자 1,000억원, 시비 1,500억원)입니다.

-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오페라하우스 건립 사업의 타당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① 전혀 타당하지 않다 ② 타당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타당하다 ⑤ 매우 타당하다
- 오페라하우스가 부산의 랜드마크로서 문화관광 거점시설이 될 수 있겠습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3. 오페라하우스에서는 오페라무용(발레)·뮤지컬 등이 무대에 올려질 예정입니다. 참관할 의향이 있습니까?
 ① 전혀 없다 ② 없다 ③ 보통이다 ④ 있다 ⑤ 매우 있다
4. 오페라하우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① 예산 ② 전문 기획·연출가 ③ 전속 오페라단 ④ 전문 스텝진 ⑤ 기타()

부산국제아트센터에 관한 질문입니다

부산국제아트센터는 시민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부산시민공원 내 지하2층, 지상4층 규모로 건립되며, 주요시설은 콘서트홀(2,000석, 클래식 전용), 야외공연장 등입니다. 2017년에 착공, 2020년에 완공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900억원(국비 420억, 시비 480억) 정도입니다.

5.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부산국제아트센터 건립 사업의 타당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① 매우 타당하지 않다 ② 타당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타당하다 ⑤ 매우 타당하다
6. 국제아트센터의 기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① 문화강좌 ② 문화축제 ③ 음악공연 ④ 미술전시 ⑤ 영화상영 ⑥ 기타()
7. 부산에는 클래식 전용 콘서트홀이 없습니다. 전용홀의 필요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 필요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필요하다 ⑤ 매우 필요하다
8. 클래식 전용 콘서트홀은 2,000석 규모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활용도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참고]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2,523석), 대구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1,284석)
 통영국제음악당(1,309석), 부산문화회관 대극장(복합문화공간 1,403석)

- ① 매우 낮다 ② 낮다 ③ 보통이다 ④ 높다 ⑤ 매우 높다
9. 클래식음악 전용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① 예산 ② 전문 기획·연출가 ③ 전속 오케스트라 ④ 전문 스텝진 ⑤ 기타()

Ⅱ. 시민 생활문화 확산 정책에 대한 인식도 및 만족도

'문화가 있는 날'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은 생활 속 문화향유 확산하기 위해 문화융성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2014년 1월부터 시행하는 제도로써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시민들이 전국 주요 문화공간 프로그램에 할인·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10. '문화가 있는 날' 현장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① 참여한 적이 없다 (Q. 15번으로) ② 주관자(주체자)로 참여했다 ③ 관람객으로 참여했다

11. '문화가 있는 날' 현장에 참여한 곳은 어디입니까?
 ① 영화관 ② 공연장 ③ 박물관 ④ 미술관 ⑤ 도서관 ⑥ 기타()
12. '문화가 있는 날' 현장에 참여한 경우 문화향유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① 전혀 만족 안됐다 ② 만족 안됐다 ③ 보통이다 ④ 만족됐다 ⑤ 매우 만족됐다
13.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① 전혀 안된다 ② 안된다 ③ 보통이다 ④ 된다 ⑤ 매우 된다
14. '문화가 있는 날'이 지역문화예술가에게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① 전혀 안된다 ② 안된다 ③ 보통이다 ④ 된다 ⑤ 매우 된다

Ⅲ 예술창작 환경 조성 정책에 대한 인식도 및 만족도

부산문화재단에 관한 질문입니다

부산문화재단은 문화예술 창작, 학예진흥 지원을 통해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및 정체성 확립을 목적으로 2009년에 설립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문화예술교육, 국제문화교류, 위탁운영 및 대외협력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5. 부산문화재단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① 문화예술활동지원 ② 학예진흥지원 ③ 문화예술교육지원 ④ 국제문화교류지원 ⑤ 기타()
16. 부산문화재단이 집중 지원해야 할 대상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① 문화예술 생산자 ② 문화예술 유통자 ③ 문화예술 수요자 ④ 기타()
17. 부산문화재단의 지원 사업비가 예술가의 문화예술활동에 어느 정도 도움된다고 보십니까?
 ① 전혀 도움 안된다 ② 도움 안된다 ③ 보통이다 ④ 도움된다 ⑤ 매우 도움된다
18. 부산문화재단 지원사업이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한다고 보십니까?
 ① 전혀 기여 못한다 ② 기여 못한다 ③ 보통이다 ④ 기여한다 ⑤ 매우 기여한다
19. 부산문화재단의 지원사업 심의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① 전혀 공정하지 않다 ② 공정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공정하다 ⑤ 매우 공정하다
20. 부산문화재단의 지원사업 이후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1. 부산문화재단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가 이후의 지원사업에 잘 반영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부산시 문화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22. 민선6기 부산시는 '문화융성'을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성취되었다고 보십니까?

- ① 전혀 성취되지 않았다 ② 성취되지 않았다 ③ 보통이다 ④ 성취되었다 ⑤ 매우 성취되었다

23. '문화융성'이 가장 크게 성취된 분야는 어디라고 보십니까?

- ① 문학 ② 연극 ③ 영화 ④ 음악 ⑤ 무용 ⑥ 미술 ⑦ 전통예술 ⑧ 종합예술 ⑨ 기타()

24. 부산시 문화예산 집행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5. 부산시 문화분야 관련 기구 및 인력투입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 ① 매우 낮다 ② 낮다 ③ 보통이다 ④ 높다 ⑤ 매우 높다

26. 부산시 문화분야 공무원의 전문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 ① 매우 낮다 ② 낮다 ③ 보통이다 ④ 높다 ⑤ 매우 높다

27. 부산시 문화정책 수립에 있어서 해당분야 전문가종사자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된다고 보십니까?

- ① 전혀 반영 안된다 ② 반영 안된다 ③ 보통이다 ④ 반영된다 ⑤ 매우 반영된다

28. 부산시 문화시설(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 등)의 활용도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 ① 매우 낮다 ② 낮다 ③ 보통이다 ④ 높다 ⑤ 매우 높다

29. 부산시 문화시설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① 인력양성 ② 프로그램 개발 ③ 행정지원 ④ 예산확충 ⑤ 홍보 ⑥ 기타()

30. 부산시의 미래 문화비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① 시설투자 ② 인력양성 ③ 운영 효율화 ④ 중장기 계획 설정
⑤ 국비확보 ⑥ 행정지원 ⑦ 기타()

31. 부산시 문화예술정책을 연구개발하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① 전혀 필요 없다 ② 필요 없다 ③ 보통이다 ④ 필요하다 ⑤ 매우 필요하다

32. 문화예술정책 연구개발 기관을 만든다면 어디에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 ① 부산문화재단 ② 부산예총·민예총 ③ 부산발전연구원 ④ 기관 신설 ⑤ 기타()

※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 록 ②

설문지(시민)

부산시 문화정책에 대한 인식도 및 만족도 조사(일반시민)

안녕하십니까?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부산시 문화정책에 대한 인식도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문은 익명으로 진행되며, 통계 분석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조사에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5월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황보승희 위원장

0. 응답자의 관심분야

문화예술에 대한 참여도·만족도 질문입니다

- 문화예술 가운데 귀하께서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는 무엇입니까?
① 문학 ② 연극 ③ 영화 ④ 음악 ⑤ 무용 ⑥ 미술 ⑦ 전통예술
⑧ 종합예술 ⑨ 기타()
-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에 대한 귀하의 현장 참여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① 매우 낮다 ② 낮다 ③ 보통이다 ④ 높다 ⑤ 매우 높다
- 현장 참여 때 문화향유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① 매우 낮다 ② 낮다 ③ 보통이다 ④ 높다 ⑤ 매우 높다

※ 부산시의 주요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물음에 답해 주십시오.

I. 문화도시 기반 조성 정책에 대한 인식도 및 만족도

부산오페라하우스에 관한 질문입니다

부산오페라하우스는 문화관광 거점시설로 북항재개발지구 내 지하2층, 지상5층으로 건립되며, 대극장(1,800석), 컨퍼런스홀(300석), 전시실, 야외공연장 등이 들어섭니다. 2017년 말에 착공, 2021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2,500억원(민자 1,000억원, 시비 1,500억원)입니다.

-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오페라하우스 건립 사업의 타당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① 전혀 타당하지 않다 ② 타당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타당하다 ⑤ 매우 타당하다

5. 오페라하우스가 부산의 랜드마크로서 문화관광 거점시설이 될 수 있겠습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6. 오페라하우스에서는 오페라무용(발레)·뮤지컬 등이 무대에 올려질 예정입니다. 참관할 의향이 있습니까?
 ① 전혀 없다 ② 없다 ③ 보통이다 ④ 있다 ⑤ 매우 있다
7. 오페라하우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① 예산 ② 전문 기획·연출가 ③ 전속 오페라단 ④ 전문 스텝진 ⑤ 기타()

부산국제아트센터에 관한 질문입니다

부산국제아트센터는 시민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부산시민공원 내 지하2층, 지상4층 규모로 건립되며, 주요시설은 콘서트홀(2,000석, 클래식 전용), 야외공연장 등입니다. 2017년에 착공, 2020년에 완공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900억원(국비 420억, 시비 480억) 정도입니다.

8.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부산국제아트센터 건립 사업의 타당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① 매우 타당하지 않다 ② 타당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타당하다 ⑤ 매우 타당하다
9. 국제아트센터의 기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① 문화강좌 ② 문화축제 ③ 음악공연 ④ 미술전시 ⑤ 영화상영 ⑥ 기타()
10. 부산에는 클래식 전용 콘서트홀이 없습니다. 전용홀의 필요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 필요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필요하다 ⑤ 매우 필요하다
11. 클래식 전용 콘서트홀은 2,000석 규모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활용도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참고]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2,523석), 대구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1,284석)
 통영국제음악당(1,309석), 부산문화회관 대극장(복합문화공간 1,403석)

- ① 매우 낮다 ② 낮다 ③ 보통이다 ④ 높다 ⑤ 매우 높다
12. 클래식음악 전용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① 예산 ② 전문 기획·연출가 ③ 전속 오케스트라 ④ 전문 스텝진 ⑤ 기타()

Ⅱ. 시민 생활문화 확산 정책에 대한 인식도 및 만족도

‘문화가 있는 날’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은 생활 속 문화향유 확산하기 위해 문화융성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2014년 1월부터 시행하는 제도로써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시민들이 전국 주요 문화공간 프로그램에 할인·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13. '문화가 있는 날' 현장에 관람객으로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없다 (Q. 18번으로) ② 있다

14. '문화가 있는 날' 현장에 참여했던 곳은 어디입니까?

- ① 영화관 ② 공연장 ③ 박물관 ④ 미술관 ⑤ 도서관 ⑥ 기타()

15. '문화가 있는 날' 현장에 참여한 경우 프로그램에 만족하십니까?

- ① 전혀 만족 안했다 ② 만족 안했다 ③ 보통이다 ④ 만족했다 ⑤ 매우 만족했다

16.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 ① 전혀 안된다 ② 안된다 ③ 보통이다 ④ 된다 ⑤ 매우 된다

17. '문화가 있는 날'이 지역문화예술가에게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 ① 전혀 안된다 ② 안된다 ③ 보통이다 ④ 된다 ⑤ 매우 된다

Ⅲ 예술창작 환경 조성 정책에 대한 인식도 및 만족도

부산문화재단에 관한 질문입니다

부산문화재단은 문화예술 창작, 학예진흥 지원을 통해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및 정체성 확립을 목적으로 2009년에 설립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문화예술교육, 국제문화교류, 위탁운영 및 대외협력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8. 귀하는 부산문화재단을 아십니까?

- ① 모른다 (Q. 21번으로) ② 안다

19. 부산문화재단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 ① 전혀 만족 못한다 ② 만족 못한다 ③ 보통이다 ④ 만족한다 ⑤ 매우 만족한다

20. 부산문화재단이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한다고 보십니까?

- ① 전혀 기여 못한다 ② 기여 못한다 ③ 보통이다 ④ 기여한다 ⑤ 매우 기여한다

부산시 문화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21. 민선6기 부산시는 '문화융성'을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성취되었다고 보십니까?

- ① 전혀 성취되지 않았다 ② 성취되지 않았다 ③ 보통이다 ④ 성취되었다 ⑤ 매우 성취되었다

22. '문화융성' 즉 문화예술의 변화와 발전이 가장 크게 이루어진 분야는 어디라고 보십니까?
 ① 문학 ② 연극 ③ 영화 ④ 음악 ⑤ 무용 ⑥ 미술 ⑦ 전통예술 ⑧ 종합예술 ⑨ 기타()
23. 부산시 문화분야 공무원의 전문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① 매우 낮다 ② 낮다 ③ 보통이다 ④ 높다 ⑤ 매우 높다
24. 부산시 문화정책 수립에 있어서 일반 시민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된다고 보십니까?
 ① 전혀 반영 안된다 ② 반영 안된다 ③ 보통이다 ④ 반영된다 ⑤ 매우 반영된다
25. 부산시 문화시설(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등)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① 전혀 만족 못한다 ② 만족 못한다 ③ 보통이다 ④ 만족한다 ⑤ 매우 만족한다
26. 부산시 문화시설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① 인력양성 ② 프로그램 개발 ③ 행정지원 ④ 예산확충 ⑤ 홍보 ⑥ 기타()
27. 부산시의 미래 문화비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① 시설투자 ② 인력양성 ③ 운영 효율화 ④ 중장기 계획 설정
 ⑤ 국비확보 ⑥ 행정지원 ⑦ 기타()
28. 부산시 문화예술정책을 연구·개발하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① 전혀 필요 없다 ② 필요 없다 ③ 보통이다 ④ 필요하다 ⑤ 매우 필요하다
29. 문화예술정책 연구·개발 기관을 만든다면 어디에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① 부산문화재단 ② 부산예총·민예총 ③ 부산발전연구원 ④ 기관 신설 ⑤ 기타()

※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 통계를 위한 기초자료

응답자	성 별	① 남성	② 여성			
	연령대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이상
	거주지	() 구·군				
	학 력	① 무학	② 초졸	③ 중졸	④ 고졸	⑤ 대졸 ⑥ 대학원 이상
	월평균 가구소득	① 99만원 이하 ② 100~149만원 ③ 150~199만원 ④ 200~299만원 ⑤ 300~399만원 ⑥ 400~499만원 ⑦ 500만원 이상				